



# 한류 : K-Pop에서 K-Culture로

## 한류 : K-Pop에서 K-Culture로

한국문화가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K-Pop, 드라마 등 대중문화를 넘어 의식주, 순수예술, 법과 제도, 사회운영 시스템 등 모든 영역에서 '한국 스타일(K-Style)'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 문화가 최고'라고 애써 호소하지 않아도 한국문화를 찾고, 한국에 오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K-Culture의 확산은 우리 역사에서 처음 경험하는 현상이며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사례다.

한류:  
K-Pop에서  
K-Culture로

한류:  
K-Pop에서 K-Culture로

8 서장 | 디지털로드의 시대

● 한류에서 신한류로

30 멋과 풍류의 전통

멋과 흥의 문화

잘 노는 인간, '호모 코레아누스'

46 코리아, 세계문화의 용광로

경주의 아랍인

장안의 코리안 유학생

글로벌 코리안 해초와 장보고

한양의 무슬림

조선의 신세대, 서양과 소통하다

외국노래, 한국의 노래로 다시 태어나다

66 한류의 시작

K-Pop의 탄생 배경

한국 가수의 해외진출

번안 가요의 시대

원조 K-Pop 조용필

한류의 시작, 아시아를 놀라게 한 K-Drama

82 한류의 확산

한류, 일본으로의 확산

「대장금」, 한류를 본궤도에 올린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남녀

할리우드 스타 바람맞힌 '비'

한류의 글로벌 확산

한류드라마의 성공 요인

114 전 세계 신한류와 소통하다

K-Pop의 성공을 예견한 사람들

세계를 강타한 '강남스타일'

'놀자판'과 싸이

작지만 당찬 K-Movie의 힘

"한국의 파워브랜드"

SNS와 신한류

한국 한 번 가보는 게 소원

유럽에 비친 한류

한류 확산에 놀란 일본

북한에 부는 '남조선풍(風)'



## ● '맛'과 '풍요' 한류의 확산과 미래

### 168 K-Food, 세계가 반한 한국의 맛

원산지 입맛을 만족시키는 한국식품

세계인의 입맛에 맞춘다

김치의 힘

### 186 서양을 감동케 한 K-Classics, K-Arts

한국인의 일상이 된 클래식

유럽의 연구대상으로 부상한 K-Classics

오페라의 본바닥에서 인정받은 '김치 클래식'

세계와 소통하는 K-Arts

### 200 세계 속 한국어와 K-Literature

세계 속 한국어

세계를 감동케 하는 K-Literature

### 212 세계 속에 우뚝 선 K-Sports

한국인의 적은 '한국인'?

1억인의 스포츠, 태권도

야구 명가도 인정한 한국야구

### 230 세계에서 불러들이는 코리아 스탠더드

한국을 배우자

미국도 부러워하는 한국의 건강보험

세계가 배우는 한국의 전자정부

세계를 리드하는 녹색성장

글로벌 스탠더드로 나아가는 Korea Standard

해외로 수출하는 한국 법제

'차이'에서 조화를 추구하는 문화동반자 사업

벤치마킹 대상이 된 한국식 교육

경이로운 한국의 기술력

### 274 K-Pop에서 K-Culture로

문화전쟁의 시대

문화발신국 '코리아'

경제·산업적 접근을 넘어

# 디지털로드의 시대

인류는 교류와 소통을 통해 문명을 창조해왔다. 인류의 역사는 선사시대부터 이웃마을과 물물교환을 하는 것에서 시작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소박한 교류들이 확장되면서 문명 간의 교류로 확대된 것을 말해준다.

문명 간의 소통이 평화적으로 이뤄진 경우도 있었지만 무력을 동원한 전쟁과 정복, 강제적 개방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고대 아테네와 페르시아의 패권쟁탈전(Greco-Persian Wars, BC 492경~449경)은 최초의 동서 문화 충돌이다. 그후 알렉산더 대왕(Alexander the Great, BC 356~ BC 323)이 출현하면서 동방원정이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그리스, 페르시아, 아프가니스탄 등 서역을 정복하고 인도까지 진출하는 과정에서 헬레니즘이란 새로운 문화가 형성됐다.

동서문화가 융합된 헬레니즘 문화에서 간다라(Gandhara) 미술이 탄생했다. 원래 신격화된 불상이 존재하지 않았던 불교는 서기 1,2세기경 그리스풍의 자연주의·현실주의를 반영하여 불상과 조각을 만들기 시작했다. 중국, 한반도는 물론 일본에까지 간다라 미술의 영향을 받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후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실크로드(Silk Road)가 형성됐고, 이 길을 따라 중국의 비단

과 서역, 로마의 문물들이 오갔다. 통상 실크로드는 중국 중원(中原) 지역에서 시작, 간쑤성(甘肅省) 란저우(蘭州)에서 치렌 산맥(祁連山脈)과 둔황(敦煌)에 이르는 허시후이랑(河西回廊)을 가로질러 타클라마칸 사막의 남북 끝자락을 따라 파미르 고원, 중앙아시아 초원, 이란 고원을 거쳐 지중해 동안과 북안에 이르는 길을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한반도와 일본에까지 연결되는 장대한 교통로였다. 신라 천년의 고도 경주에서 빈번히 출토되는 서역계 로만글라스, 켈트식 보검이나 일본 나라(奈良)의 쇼쇼인(正倉院)에 보관돼 있는 서역계 악기, 병풍, 그릇류 등은 오래전부터 실크로드를 따라 동서양의 교류가 활발히 전개됐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 실크로드에서 디지털로드로

실크로드는 해상으로도 확장됐다. 15, 16세기에는 ‘대항해 시대(포르투갈어 Grandes Navegações, 영어 Age of Discovery)’가 개막돼 신대륙까지 포함하는 전 세계의 문화교류가 이뤄졌다.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에 따른 근대화의 개막은 문명교류를 더욱 가속시켰다. ‘이양선(異樣船)’으로 상징되는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서구 열강의 선박들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에까지 출몰하여 끊임없이 문을 두드렸다. 결국 19세기 후반 일본까지 가세한 외세에 의해 우리는 문호를 열어야 했다. 대항해 시대, 산업혁명의 시대는 제국주의의 확장에 따른 아프리카, 아시아의 식민지화라는 부정적 역사의 오점과 적잖은 후유증 또한 남겼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은 20세기 후반 디지털 시대가 도래할 때까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포스트모던으로 대변되는 20세기 후반에 이뤄진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혁명은 문명교류를 일상화시켰다. 시간과 공간의 벽을 뛰어넘는 '디지털로드(Digital Road)'가 탄생함으로써 문명교류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게 되었다.

과거에는 하나의 유행이 다른 지역이나 나라로 유입되려면 수많은 시간이 걸렸다. 고대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던 수학자 유클리드(Euclides, Euclid)의 『기하학 원본(Elements)』이 이탈리아 출신 예수회 선교사 마테오 리치(Matteo Ricci, 중국명 利瑪竇, 1552~1610)와 명나라 관리 서광계(徐光啓, 1562~1633)에 의해 1607년 『기하원본』으로 번역돼 조선에 오기까진 무려 1천8백여 년이 걸렸다. 유대 땅의 지역종교였던 기독교가 사도 바오로(Paul, Paulos)에 의해 로마에 전파된 이래 이 땅에 오는 데도 비슷한 시간이 걸렸다. 따라서 실크로

드 시대는 시간적·지리적 한계로 인해 확산범위는 제한됐고 단절되기 일쑤였다.

디지털로드의 시대에는 K-Pop과 K-Drama가 발신지인 한국과 실시간으로 세계에 전파된다.

한국의 지구대척점인 남미에서 똑같이 K-Pop과 K-Drama에 열광하고 자연스럽게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다. 애써 감상을 권유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매력 있다고 판단하면 받아들여지고 이를 이웃에게 전한다. 한국문화(K-Culture)

를 정부기관이나 언론사, 매니지먼트사에서 전

파하는 단계를 이미 넘어 평범한 외국인 수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전파하고 있는 현상

이 일상이 됐다. 보통사람들이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에 끊임없이 K-Culture를 실어나르고 있다.

2012년 7월 15일 가수 싸이가 '강남스타일'이란 노래를 부르자 유튜브 검색어 1위에 오



실크로드 시대 서양과학이 아시아에 전래되기까지 수많은 노력과 적잖은 세월을 기다려야 했다. 마테오 리치와 그가 전한 유클리드 『기하학 원본』의 한문번역본.

---

---

르고 두 달 만에 조회수 2억 회를 기록했다. 18개국의 아이튠스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는 무한질주를 했다.

주로 정치지도자나 유명인사들이 소개되는 타임지에 해외에서 콘서트를 한 번도 갖지 못한 싸이가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같은 비중으로 소개됐다. 미식축구에서는 터치다운 세리모니를 싸이의 말춤으로 하고 관중들도 따라서 즐기고 있다. 월드 팝스타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강남스타일’에 대해 자신의 트위터에 “난 이 뮤직비디오와 사랑에 빠졌다. 아주 재밌다. 안무를 배울 수 있을 것 같다. 내게 가르쳐줄 사람?(I am LOVING this video, so fun! Thinking that I should possibly learn the choreography. Anybody wanna teach me?)”이라는 글을 올려 깊은 관심을 표시하는가 하면 영화배우 톰 크루즈도 가수 싸이의 트위터를 방문해 팔로우 신청을 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톰 크루즈는 “우리 나중에 함께 ‘강남스타일’을 해보는 게 어떨까?”는 싸이의 제안에 “생각해보겠다(Think)”는 짧은 답글을 남겼다.

‘어느날 아침 깨어나 보니 유명해졌더라(He awoke, one bright morning, to find himself)’라는 시인 바이런(George Gordon Byron, 1788~1824)의 말이 빈말이 아닌 현실이 된 것이다. 뿐만인가. 마스크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충북 청원의 10대 소년 정성하가 클래식 기타 연주로 유튜브

---

---

조회수 5억8천만여 건을 기록하고, 23세 청년 임정하의 일렉트릭 기타 연주가 조회수 수천만 건을 기록해 뉴욕타임스에 보도되는 등 갑작스레 유명인사로 등장한다. 아날로그 시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소통 혁명의 시대를 맞이한 것이다.

### 집단지성을 출현시킨 디지털로드 시대

디지털로드 시대는 과거 대왕의 길(King's Road) 시대나 실크로드, 대항해 시대와는 확연하게 차별점을 갖는다. 먼저 전달수단이 강압이 아닌 자발성에서 출발한다. 철저히 받아들이는 대상의 의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물론 경제적, 정치적 홍보전략이 수반되지만 그것만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철저히 수용자의 감성에 기반을 둔 문화소비 형태를 띠고 있다.

디지털로드 시대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ect)’의 출현이다. 한 세대 전만해도 국가권력, 경제권력만이 정보독점과 신속대응 능력을 보유할 수 있었다. 당시 한 언론은 한국사회의 컴퓨터 현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마술상자라고도 불리는 이 가공의 기계(컴퓨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957년 한

국전자계산소가 한국생산성본부 산하기관으로 설립되면서부터였다. (중략) 이 중 6만여 대가 미국에 집중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는 경제기획원, 한국전자계산소, 서강대, 육군본부(2대), 건설부, 한양공대, KIST, 보사부 등 10여 대이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 상은과 KCC(한국전자계산소) 등 3, 4개소. (후략)” 매일경제신문, 1969년 8월 28일자, 5면

얼마전까지만 해도 고속인터넷은 국가의 핵심기관이나 거대 기업집단밖에 보유할 수 없었다. 위성전화, 휴대폰 또한 지극히 선택된 소수의 전유물이었다. 사진전송도 마찬가지였다. 한 예로 1980년대 말 신문제작용 컴퓨터 스캐너의 가격은 당시 강남아파트 한 채 가격이었다.

인터넷으로 표상되는 첨단기술의 혁신은 첨단기기의 코스트다운을 낳았고 대중의 지적 능력을 상상불허할 수준으로 높여줬다. 한 세대도 채 못되는 시기에 초첨단 장비들

**시대별로 본 문명교류의 '길'**

구분	시대	교류범위	형성계기	발신주체
King's Road	고대 그리스, 페르시아, 로마	유럽~아프리카 유럽~아시아 일부	정치군사적 정복	국가
Silk Road	로마, 중국 한나라 대항해 시대	유럽~아시아 전역 아시아~아프리카 유럽~신대륙~아시아	정치군사적 정복 경제 침략	국가, 기업
Digital Road	21세기 디지털 시대	전 세계	문화-경제 교류	국가, 개인

이 이제는 개인의 일상용품이 됐다. 1990년대 초반만 해도 1기가 바이트 용량의 하드 디스크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을 되돌아보면 기술의 발전은 상상을 불허한다. 눈 깜박할 새 대중은 과거 극소수 권력집단의 전유물을 보유하게 됐다. 다시 말해 정보력과 신속성을 갖게 된 것이다. 더군다나 개개인이 보내는 발신력들은 때때로 국가권력을 압도하기도 한다.

이처럼 첨단기술의 발달과 이에 따른 코스트다운은 '집단지성'을 탄생케 했다. 집단지성은 전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기존의 소수 지식 계급과는 달리 두터운 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다르다. 또한 국가, 기업, 언론 등 권력 집단을 감시하며 견제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5세기 인쇄술의 발달로 대중이 문자해독 능력을 갖게 됐고 절대권력과 맞서게 된 구텐베르크(Johannes Gensfleisch zur Laden zum Gutenberg, 1398?~1468)의 인쇄혁명을 능가하는 역사의 대전환이다. 집단지성의 출현은 더 이상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도도한 대세가 됐다. 다가올 미래에서 일어날 변화의 폭과 크기는 상상할 수 없으며 집단지성과 소통을 못하는 문화는 도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 5.1 Angles and Their Measure

#### Angles

As derived from the Greek language, the word **trigonometry** means “measurement of triangles.” Initially, trigonometry dealt with relationships among the sides and angles of triangles and was used in the development of astronomy, navigation, and surveying. With the development of calculus and the physical sciences in the 17th century, a different perspective arose—one that viewed the classic trigonometric relationships as *functions* having the set of real numbers as their domains. Consequently, the applications of trigonometry expanded to include a vast number of physical phenomena involving rotations and vibrations, including the following.

- sound waves
- light rays
- planetary orbits
- vibrating strings
- pendulums
- orbits of atomic particles

This text incorporates *both* perspectives, starting with angles and their meas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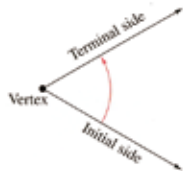


Figure 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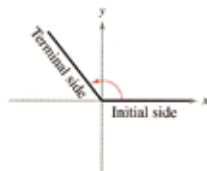


Figure 5.2

An **angle** is determined by rotating a ray (half-line) about its endpoint. The starting position of the ray is the **initial side** of the angle, and the position after rotation is the **terminal side**, as shown in Figure 5.1. The endpoint of the ray is the **vertex** of the angle. This perception of an angle fits a coordinate system in which the origin is the vertex and the initial side coincides with the positive  $x$ -axis. Such an angle is in **standard position**, as shown in Figure 5.2. **Positive angles** are generated by counterclockwise rotation, and **negative angles** by clockwise rotation, as shown in Figure 5.3. Angles are labeled with Greek letters such as  $\alpha$  (alpha),  $\beta$  (beta), and  $\theta$  (theta), as well as uppercase letters such as  $A$ ,  $B$ , and  $C$ . In Figure 5.4, note that angles  $\alpha$  and  $\beta$  have the same initial and terminal sides. Such angles are **cotermi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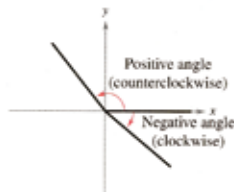


Figure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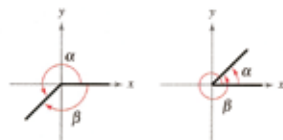


Figure 5.4

detailerl 2018/used under license from Shutterstock.com



#### What you should learn

- Describe angles.
- Use degree measure.
- Use radian measure and convert between degrees and radians.
- Use angles to model and solve real-life problems.

#### Why you should learn it

Radian measures of angles are involved in numerous aspects of our daily lives. For instance, in Exercise 106 on page 407, you are asked to determine the measure of the angle generated as a skater performs an axel jump.

디지털로드 시대에 한국문화는 매력을 갖춘 문화 발신력을 갖게 됐다. 반만년 역사상 처음으로 경험하는 미지의 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1990년대초 드라마로 시작된 한류는 2000년대 K-Pop을 넘어 2010년대에는 K-Culture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음악도들이 클래식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환영을 받는 모습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라 흔한 일상이 됐다. 올림픽에서 축구 중주국 영국의 한복판에서 영국에 승리를 거두고, 야구 명가인 쿠바·미국·일본을 꺾는 것도 흔한 일이 됐다.

광복 이후 우리가 조금씩 쌓아온 문화소통의 성과는 우리의 상상을 훨씬 웃돈다. 세계가 단순히 한국의 대중문화에 감동하는 차원이 아니라 한국 자체를 부러워하고 배움의 대상, 연구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한 것이다. 여러 나라에서 전자정부를 배워가고 한국형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그대로 이식되며 한국형 공무원 교육시스템, 심지어 법과 제도까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소위 서구의 선진문화를 캐치업(Catch up)하던 개발 시대와는 정반대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고교 수학교과서에 실린 세계 피겨 스케이팅 '여왕' 김연아 선수. 대중문화 차원을 넘어 한국문화 자체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 先進各国のクリエイティブ産業へのシフト

■英国、韓国などは政治的リーダーシップの下、クリエイティブ産業立国へ大きく舵を切り、継続的な取り組みを行い、成果を挙げつつ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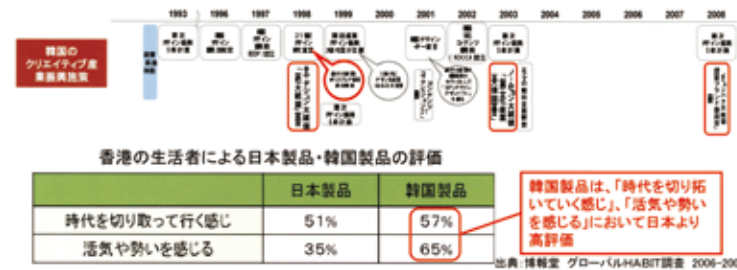
英国	韓国	米国						
<p>■ 97年にトニー・ブレア元首相が「クール・ブリタニア」を宣言。以後、以下の取り組みにより成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クリエイティブタスクフォース」による横断的取り組み</li> <li>「デザイン・カウンシル」を中核とした産業全体の創造力強化</li> <li>大使館や貿易・対英投資部による徹底した海外市場開拓支援</li> </ul>	<p>■ 97年にキム・デジュン大統領が「文化大統領宣言」。以後、官民一体となったCool Korea戦略でアジア市場に浸透。</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デザイン振興院」「コンテンツ振興院」の設立</li> <li>新興マーケットへの官民挙げた戦略的売り込み</li> <li>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KOTRA)を中心とした海外市場獲得支援</li> </ul> <p>■ イ・ミョンバク大統領は「国家ブランド委員会」を設置し、国家的に文化産業を育成。</p>	<p>■ 29年にルーズベルト大統領が「ニューディール政策」を表明。この政策の一環として、35年に「事業促進法」による芸術家雇用政策「フェデラル・ワン」(連邦計画第1号)による4万人の芸術家を雇用。</p>						
<p>効果</p> <table border="1"> <tr> <td>クリエイティブ産業の輸出総額</td> <td>1. 0倍 (2008 → 2018)</td> </tr> <tr> <td>クリエイティブ産業の輸出額</td> <td>1. 7倍 (2008 → 2018)</td> </tr> <tr> <td>クリエイティブ産業の事業数</td> <td>1. 4倍 (2008 → 2018)</td> </tr> </table>	クリエイティブ産業の輸出総額	1. 0倍 (2008 → 2018)	クリエイティブ産業の輸出額	1. 7倍 (2008 → 2018)	クリエイティブ産業の事業数	1. 4倍 (2008 → 2018)		<p>効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欧州などの多くの優れた芸術家が米国へ流入</li> <li>米国内の地域社会の文化の発展</li> <li>1945年以降のブロードウェイ・ミュージカルやハリウッド映画といった文化芸術産業の発展、等</li> </ul>
クリエイティブ産業の輸出総額	1. 0倍 (2008 → 2018)							
クリエイティブ産業の輸出額	1. 7倍 (2008 → 2018)							
クリエイティブ産業の事業数	1. 4倍 (2008 → 2018)							

## (参考2) 韓国のクリエイティブ産業振興政策

■ 韓国では、通貨危機後の97年、キム・デジュン大統領が「文化大統領宣言」。以後、官民一体となったCool Korea戦略でアジア・マーケットに浸透。

- ①「デザイン振興院」「コンテンツ振興院」の設立
- ②新興マーケットへの官民挙げた戦略的売り込み
  - ・韓流ブームを起し、ファッション、コンテンツ、消費財を一体で売り込み
  - ・上海、香港→ベトナム・タイ→インドという順番でブランドイメージを確立
- ③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KOTRA)を中心とした徹底した海外市場獲得支援

■ イ・ミョンバク大統領は「国家ブランド委員会」を設置し、国家的に文化産業を育成。



2012年 1月 韓国のクリエイティブ 전략을 선진국 사례라며 벤치마킹 대상으로 소개한 일본 경제산업성의 '쿨재팬전략' 보고서.



미래학자 허만 칸(사진)은 이미 1960년대에 한국이 2000년대에는 유럽 수준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코리아스타일’, 국내보다

해외에서 높이 평가

그동안 우리는 우리 것은 폄

하하고 남의 것을 부러워해

왔다. 지금도 그런 잔재는 남

아 있다. 흔히 문제에 봉착하

면 선진국, 외국(흔히 유럽, 미국을 가리킨다)의 사례나 기준을 들먹이며 우리는 아직도 멀었

다고 비하할 때가 많다. 오히려 선진국의 학자들 가운데 한국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예

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일찍이 미국의 미래학자인 하버드대 교수 허만 칸(Herman

Kahn, 1922~1983)은 1960년대에 이미 아시아로의 권력 이동이 1980년대에 시작된다고 예

견했다. 1973년 7월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소 초청으로 방한한 그는 한국의 미래를 다

음과 같이 예견했다.

“한국은 풍부한 노동력을 가진데다 교육된 기술자의 해외파견 기회 등이 늘어나고 있어

경제적 전망이 밝은 나라이며 1980년대에는 아시아의 부강국으로, 그리고 2000년대에는

---

---

유럽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1986년 대만계 일본인 문명사가 샤세이키(謝世輝, 1929~) 일본 도카이대 교수는 『日本이 美國을 추월하고 韓國에 지게 되는 理由 日本がアメリカを追い抜き、韓国に蹴落とされる理由』라는 저서에서 한국은 2000년에 1인당 GNP가 8천 달러에 이르고 대외차관은 2010년부터 흑자국으로 전환, 또 21세기 초기 세계 제1의 자동차왕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들의 낙관적 전망에 대해 당시 국내의 언론인, 지식인들은 장밋빛 투성이라며 반신반의했다. 21세기 초에 진입한 오늘날, 허무맹랑해 보이던 이들의 주장이 우리의 현실과 별반 다르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선진국’이란 시각도 외국에서 대두하고 있다. 더구나 일본 정부에서 ‘선진국’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이다. 2012년 1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클래젠전략’을 발표하면서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한국의 크리에이티브 전략을 상세하게 소개하며 ‘선진국 사례’라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이 진단한 한국의 발전 성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

“영국, 한국 등은 정치적 리더십으로 크리에이티브 산업입국으로 방향을 잡고 지속적으로 추진, 성과를 계속 거두고 있다. 97년 김대중 대통령의 문화대통령 선언 이후 민관 일체가 돼 쿨코리아 전략으로 아시아시장에 진출했다. 디자인진흥원, 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여 민관을 통틀어 전략적으로 집중했다는 것. 여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중심으로 한 해외시장 획득 지원도 한몫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브랜드위원회를 설치, 국가적으로 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불과 20여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세계에 내세울 것은 별로 없었다. 고려청자, 금속활자, 한글 등 과거 문화유산 몇 점 밖에 없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남들이 우리의 문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프랑스문화원(알리앙스 프랑세즈), 독일문화원(피테인스티튜트)에서 언어를 배우거나 영화 감상을 하러 가는 게 교양인의 모습으로 인식될 정도였다.

2012년 11월 19일 독일의 유력 일간지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은 ‘한국의 성공 역사(Südkoreas Erfolgsgeschichte)’ 제하의 도쿄 특파원 카르스텐 게르미스(Carsten Germis)의 기명 기



---

---

사에서 한국 경제성장의 비결을 주목하며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한국은 1년에 한 번 외국인 투자자들을 서울에 초청한다. 행사 주최측은 전 세계의 금융인들과 펀드매니저, 그리고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왜 이 역동적인 국가경제에 투자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이들이 언급하는 수치들은 한국이 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명제를 확인시켜주는 것처럼 보인다. 선진 산업국가들이 전반적으로 경제적 역동성을 잃고 있는 반면,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경제는 2012년 3.5%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파나소닉과 소니와 같은 일본의 유명한 전자기업들이 손실을 입고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는 동안, 삼성은 분기마다 최대 매출액과 최대 수익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애플이 좀 더 유명한 상표일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 분야에서 독보적인 세계 1위는 삼성이다.

서울의 삶은 이러한 역동성을 대변하고 있다. 비록 서울은 사람보다는 자동차에 맞춰져 건설되었지만, 교통은 언제나 혼잡하다. 거의 모든 자동차는 신차처럼 보이는데다가 차량도 너무 많다. 스마트폰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지방의 인적 드문 산골농

---

---

장에서도 방문자들을 위해 무료로 무선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럽이나 일본에서 한국을 방문한 사람들은 더 빠른 템포를 금방 느끼게 된다.

한국의 경제적 성공 역사는 이례적이다. 1950년대에만 해도 한국은 동아시아의 빈국에 불과했다. 하지만 산업 중심지가 있었던 공산주의 북한이 경제변영에 실패한 반면, 농업 위주의 한국은 세계 9위의 무역국가로 성장했다. 그 어떤 나라도 한국보다 빠르게 개발원조 대상국에서 중요한 개발원조 공여국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이러한 성공의 근거는 무엇인가? 경제학자들은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을 기러기 모델과 비교한다. 기러기처럼 한 국가 - 아시아에서는 일본 - 가 다른 기러기들을 이끌어간다는 것이다. 한국과 다른 나라들은 성공모델을 모방하다가 언젠가는 우두머리 기러기를 앞서가게 된다는 것이다. 일본처럼 한국의 산업 역시 처음에는 값싼 상품 위주였고 종종 미국이나 일본의 상품을 모방했다.

하지만 낮은 생산비용만으로는 지속적인 성공을 설명할 수 없다. 경제적 역동성은 대부분 기술혁신의 힘이라는 점은 OECD가 확인해준 바 있다. 2011년에 한국은 유럽 특허청에 약 5천 건의 특허를 제출했으며, 미국, 일본, 독일만이 한국보다 출원 건수가 더 많다.

---

---

만일 기업만으로 본다면,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 한국의 3개 기업은 세계에서 특허출원이 가장 많은 12개 기업에 속한다. 한국기업들은 소니와 같은 일본 기업들을 보면서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 (후략)

지난 2011년 1월 3일 프랑스 국영 2TV의 간판 프로그램 「세상을 보는 눈Un Oeil sur la Planete」은 한국을 집중 조명했다. 이 프로그램에 비친 한국은 북한과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정도로 역동적이고 짧은 시간에 이례적인 발전을 이룬 나라, 많은 노력을 하고 하는 나라(교육, 직장 등),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나라, IT 부문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나라, 열정이 있는 나라로 인식됐다. 이 프로그램은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한국의 숨겨진 저력은 바로 열정이라고 분석하며 한국은 현대와 전통이 잘 어우러진 나라이며, 세계의 중심이 아시아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이고 한국이 중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브리엘레 메네가티(Gabriele Menegatti) 전 주한 이탈리아 대사는 “한국의 성장은 하나의 비범한 현상이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상당기간 계속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

“(한국은) 독일 모델을 참조하여 하이테크, 자동차 그리고 중공업 분야에 대한 일본과의 가격경쟁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수출에 초점을 맞춰 무차별 전략이 아닌, 서유럽과 오랫동안 광대한 시장이지만 소홀히 하던 중국의 북부지역에 집중했다”며 한국경제의 ‘봄’은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탈리아 경제전문지 Panorama Economy, 2012년 5월 9일자, 16~17면)

이제 한국은 세계가 배울 수 있도록 준거를 마련해야 하는 글로벌 국가로 진입했다. 대표적인 예가 한국의 건강보험이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난제였던 의료보험 개혁을 추진하는 데 한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벤치마킹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재해가 나면 신속하게 구조하고 의식주 일체를 제공하는 비상구조 시스템도 그렇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일본의 비상구조 체계는 지나치게 경직돼 수많은 원성을 들었다. 신속하게 대책을 세우고 현장에 인력과 물자를 제공하는 한국과 비교된다는 여론이 들끓었을 정도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성취한 이래 이제 한국은 남들이 부러워하고 배울 것이 적잖은 역량을 갖추게 됐다.

---

---

## 인류문명사의 획을 가르는 패러다임의 전환

디지털로드 시대가 21세기 대한민국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절호의 기회일 수도 있고, 위기일 수도 있다. 반만년 역사상 K-Culture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된 것은 분명 축복이며 기회다. K-Culture의 빠른 확산은 거꾸로 뒤집으면 빠른 반작용으로 돌변할 수도 있다. 매력의 대상으로 등장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지만 순간의 실수나 오해로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많은 시간을 요구하지 않는다.

디지털로드 시대에는 더 이상 '우리식'대로의 폐쇄성, 특수성이 통하지 않는다. 전 세계가 단일 경제권이나 다름없게 돼 한 지역이 위협을 받으면 곧바로 우리에게 파급되는 위기의 상시화(常時化) 시대이기도 하다. 세계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당면한 경제·환경·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는 일들이 많아졌다.

디지털로드 시대에 이르기까지 K-Culture가 어떻게 발생했으며 오늘날의 모습은 어떠한지 되돌아보는 것도 의미있는 작업이다. 이를 통해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역동성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반성해야 할 요소들도 적잖게 있을 것이다. 장점은 더욱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고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문화는 힘이며 우리의 또다른 생존방

식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K-Culture의 확산은 우리 역사에서 처음 경험하는 현상이며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사례다. 이는 지난 2천여 년간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연결해준 실크로드에 비견할 수 있다. 실크로드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도보·철도·항해 등 아날로그식 소통수단을 통해 지탱돼 왔다면 IT, 첨단기술로 대표되는 디지털혁명은 보이는 길을 뛰어넘어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만들었다. '비단'을 매개로 한 길이 이제는 '디지털'을 매개로 한 K-Culture의 시대를 연 것이다.

디지털매체를 전파수단으로 하는 K-Culture는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로드의 탄생은 실크로드, 대항해 시대에 이어 인류문명사의 획을 가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한류에서  
신한류로



## 멋과 풍류의 전통

### 멋과 흥의 문화

“한국은 내가 가본 나라 중에서 가장 노래를 많이 부르는 나라다. 나는 핀란드·스웨덴·덴마크·러시아·뉴질랜드·일본·태국·베트남·영국·아일랜드 등 여러 나라에서 살았고 여행도 해보았다. 그러나 어떤 나라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노래를 잘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 한국인들은 언제 어느 곳에서라도 노래를 부를 자세가 되어 있다. 혼자서도 부르고 여럿이 같이 부르기도 한다. 라디오를 따라 흥얼거릴 때도 있고 텔레비전 가요 프로그램을 보면서 같이 부를 때도 있고, 길을 걷거나 차를 운전하면서 노래를 부른다. 5년 동안 근무한 일본에서도 동료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자주 가라오케에 가곤 했다. 몇몇 대회에 나가 상을 탄 적도 있고 텔레비전에 출연한 일도 있다. 그런데 거기에는 뭔가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

일본인은 한국인과 같은 ‘노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노래하기 위해 사는 것 같은데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정말 한국인은 어디서나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지 않을 수 없다. 박찬호 선수가 공을 던질 때도 노래를 할까? 잠실야구장에 가서도 관중이 응원하는 광경에 감동받았다. 야구장에서 관중이 얼마나 노래를 많이 부르는지, 도대체 이 사람들이 노래하러 온 것인지 야구를 보러 온 것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들은 노래 중 가장 놀라운 것은 일요일 명동성당 미사에 갔을 때 들은 합창이다. 미국의 성당에서 다 같이 노래하는 것은 대개 억지로 하는 일 같은 것으로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하는 일 같지만 한국 가톨릭 신자들이 노래하는 것은 진짜로 노래하는 것이다.

내가 그 자리에서 느낀 것은 그들이 정말로 그곳에 있고 싶어 하고 행복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로 그런 의미일까. 한국인들은 행복하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는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 누군가 이 의문을 풀어주었으면 좋겠다.” 주한 美 공보원 공보관 패트릭 리네헨, 주간조선 1997년 8월 7일자

인간은 생각도 하고(Homo sapiens), 일하기도(Homo faber) 하지만 놀기를 좋아하는 존재(Homo ludens)라는 게 본성에 가깝다고 네덜란드의 역사학자이며 인류학자인 호이징가(Johan Huizinga, 1872~1945)는 말했다. 놀이와 축제의 전통은 어느 나라, 어느 사회를 가도 나름대로 존재한다. 다만 한국인의 놀이문화는 뿌리깊은 전통과 열정의 강도에서 차별적인 면이 있는 듯하다.

고금에 관계없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사람들이 남겨놓은 인상 가운데 꼭 따르는 것이 음주가무의 문화다. 흥겹게 놀고 마시는 문화가 남다른 면이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의 일상은 역동적이고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외국인들이 적잖다. 변화 없고 밋밋한 서구나 일본보다는 시끄럽고 복잡하지만 변화무쌍하고 역동적인 한국이 재미 있다는 게 이구동성이다.

최근 한국출신 아이돌들에 대한 폭발적인 인기, ‘강남스타일’ 등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놀이문화의 전통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우리나라의 프로야구, 축구 등 운동경기장에 가보면 흥겨로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치킨과 맥주를 곁들이며 모르는 사람과도 쉽게 말을 터놓고 응원을 하는 모습은 흔한 광경이다. 응원하는 팀의 승패와 관계없이 즐겁게 놀다가 유쾌한 마음을 안고 돌아간다. 응원 열기가 지나쳐 이따금씩 몸싸움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운동경기를 빙자해 난동을 부리며 폭도로



고금을 불문하고 외국인들이 본 한국인들은 흥겹게 잘 놀며 열정적이라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변신하는 홀리건(hooligan)들은 찾아볼 수 없다.

유패하게 놀며 노래부르는 문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역사와 더불어 이어진 전통이다. 1백여 년 전 구한말 고종황제의 외교고문을 지냈던 미국인 호머 헐버트(Homer Bezael Hulbert, 1863~1949)는 “조선인은 즉흥곡의 명수다. 곡(완성된 작품)이나 음계 없이도 노래를 잘한다”고 한국인의 음악 사랑을 기록으로 남겼을 정도다.

훨씬 오랜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도 한국의 놀이문화, 축제에 대한 기록은 적잖

중국인 진수에게 비친 부여인은 놀기를 좋아하면서도 예절바른 사람들이다. 진수는 덧붙여 부여 사람들이 “밤낮 길에서 노인과 아이 없이 모두 노래를 부르다 보니, 종일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다. 그것도 우리가 아닌 이웃나라의 기록에서 발견된다. 중국 서진(西晉)의 진수(陳壽, 233~297)가 편찬한 『삼국지(三國志)』 「위지동이전(魏志東夷傳)」의 부여(夫餘)조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부여는 장성(만리장성) 북쪽에 있다. …사람은 크고, 성품은 굳세고 용감하며 삼갈 줄 알고 후덕하니, 도둑질 하지 않는다.(其人羸大, 性彊勇謹厚, 不寇鈔)… 여럿이 모이면 절하고 술을 마시면서 잔을 닦아 돌리고, 서로 절하고 양보하여 오르고 내린다. 은력(은나라 탈력)의 정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나라의 큰 모임으로, 연일 음식을 먹으며 노래와 춤을 하니, 이를 영고라 하며, 이때에는 형벌과 가둠이 없고, 죄인들을 풀어준다(會同拜爵洗爵, 揖讓升降. 以殷正月祭天, 國中大會, 連日飲食歌舞, 名曰迎鼓, 於是時斷刑獄, 解囚徒).”

중국인 진수에게 비친 부여인은 놀기를 좋아하면서도 예절바른 사람들이다. 진수는 덧붙여 부여 사람들이 “밤낮 길에서 노인과 아이 없이 모두 노래를 부르다 보니, 종일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行道晝夜無老幼皆歌, 通日聲不絕)”고 기록하고 있다.

진수는 고구려 사람들은 노래와 춤을 좋아하여, 나라 안의 촌락마다 밤이 되면 남녀가 떼지어 모여서 서로 노래하며 유희를 즐긴다(其民喜歌舞, 國中邑落, 暮夜男女羣聚)고 기록했다. 삼한 사람들 또한 해마다 5월, 10월에는 제사를 지내고 때를 지어 모여서 노래와 춤을 즐기며 술 마시고 노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그들의 춤은 수십명이 모두 일어나서 뒤를 따라가며 땅을 밟고 구부렸다 치켜들었다 하면서 손과 발로 서로 장단을 맞춘다(常以五月下種訖, 祭鬼神, 羣聚歌舞, 飲酒晝夜無休. 其舞, 數十人俱起相隨, 踏地低昂,

手足相應)고 열정적인 모습을 구체적으로 전했다. 춤추고 노래하는 전통은 고대는 물론 전근대에도 이어졌다. 유네스코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된 강강술래(Ganggangsullae)는 전형적인 사례다. 주로 해남·무안·진도·완도 등 서남해안 일대에서 음력 8월 15일 밤에 예쁘게 차려입은 부녀자들이 넓은 공터에 모여 손에 손을 잡고 둥근 원을 만들어, ‘강강술래’라는 후렴이 붙은 노래를 부르며 원을 그리며 집단으로 춤추고 노래하는 놀이에는 자연스럽게 남녀 간의 소통도 뒤따르게 마련이다.

구한말 진도에서 12년간의 유배생활을 했던 무정 정만조(茂亭 鄭萬朝, 1858~1936)는 진도 생활을 기록한 『은파유필(恩波濡筆)』에서 ‘강강술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높고 낮은 소리 내어 느릿느릿 돌고돌아  
 한동안 서 있다가 이리저리 움직이네  
 여자들의 마음에는 사내 오길 기다린 것  
 강강술래 부를 때 그대 역시 찾아오리  
 高唱低磨緩緩回  
 一番延佇一徘徊  
 娘心只要郎采得  
 强强采時亦是采

추석놀이(秋夕雜絕)를 소개하는 대목에 등장하는 강강술래는 남녀의 애뜻한 연모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다. 멋과 흥은 단순히 유쾌하고 즐거운 것이 아닌 남녀 간을 이어주고 사랑으로 매듭지어주는 위대한 힘을 발휘한다.

2천년 가까이 흐른 21세기 한국의 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풍경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무리를 지어 노래부르고 춤추는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한국 사람들의 보편적 특징임에는 분명하다.

### “한국 사람들은 영상예술에서 천부적인 자질”

한국 사람들은 영상예술에서 천부적인 자질을 타고 태어났다고 생각한다. ‘강남스타일’만 해도 B급 문화 소재와 간단한 스텝으로 이루어진 춤사위만으로 전 세계를 휩쓸었다. 리듬감 넘치는 선율과 함께 어우러져 사람들로 하여금 눈을 땔 수 없게 만드는 영상의 선풍적인 인기는 결코 우연만은 아니다.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를 보니 베이징에서 알고 지내던 한국인들이 떠올랐다. 당시 ‘TV광고제작’이라는 강의 첫 수업에 들어갔을 때 한눈에 한국인을 알아볼 수 있었다.

한국인들은 하나같이 최신 유행 스타일을 따르고 있었으며, 여학생들의 희고 고운 피부와 남학생들의 시원시원한 외모가 유독 돋보였다. 그들은 첫 수업 이후로는 다신 볼 수 없었는데, 마지막 수업일이 되어서야 관중을 압도하는 기세로 나타나 그간 준비한 작품을 선보였다.

배우, 색채, 배경음악 등이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진 영상은 보는 이의 입



을 딱 벌어지게 만들었다. 한 여성이 바쁘게 움직이며 땀을 흘리는 모습이 연이어지던 영상의 마지막 장면에서는 '운동? 혹은 커피?' 라는 카피 문구가 등장했다. 커피 광고였던 것이다.

그들은 영상 하나로 강의실에 앉아 있던 학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필자는 그때가 되어서야 그들이 수업 시간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완성도 높은 영상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상하이의 유스호스텔에 묵었던 당시에도 한 한국인 남성과 마주한 적이

있었다. 그는 하루 종일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다녔는데, 그는 필자에게 중국에서 북한과 가장 가까운 지역을 찾아 탈북하는 사람들의 영상을 촬영한다고 말해주었다. 그와는 우연히 만나 연락처를 교환하지 못했지만, 아마 전에 말했던 지역에서 원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한시도 디지털 카메라를 내려놓지 않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 생각에 이것이 바로 한국스타일이다. 이처럼 열정적으로 하나에 몰두하는 한국인들의 집념은 사람들을 매료시킨다.

홍콩 명보, 한국스타일, 2012년 10월 17일, 寶兒

## 韓國 Style

對韓國人有個獨特的印象，就是他們有着駕馭影像的天賦。儘管說 *Gangnam Style* 題材庸俗、舞步簡單而滑稽，但確是席捲全球，那剪接與音樂節奏的配合，分分秒秒緊緊抓住人的神經。窺紅，並非偶然。

這樣一個 MV，把我在北京有幾面之緣的韓國人，一併連繫起來。那時隨意選讀「電視廣告製作」，第一堂，班上的韓國同學讓人一眼便看出來，都是衣著風格分明，女的皮膚幼白，男的壯碩冷酷，自成一隅。只談理論的課，從第二堂開始，便再見不到他們的蹤影。

直至期末功課來了，傳說中的韓國同學再次現身，不由分說播放自己的作品，臉上有種壓倒眾人的氣勢。僅是一個女生連串的揮掌鏡頭，汗水淋漓，但那些拍攝角度、色調、剪接與音樂節奏，足以令人屏息靜氣。激烈之際，女生倏然倒下，畫面現出字幕：「運動，還是咖啡？」原來是

咖啡廣告，令人絕倒。

他們實在善於借影像來捕捉與撫弄人的情緒，一擊即中，頃刻把班上所有同學的血汗比下去。那一刻我才知道，他們並非把時間都用來睏懶，只是直截了當的，專注拍攝。

真正接觸韓國人，是在上海青年旅舍，認識了一個男生。不管白晝街上，還是夜半走廊，只見他整天持着 DV 游游蕩蕩。我倆坐在旅舍的後樓梯，他告訴我，準備到中國最接近北韓的地方，拍那些從北韓逃出來的人。

萍水相逢，我們沒有留下聯絡，也許他現在已身處曾經朝思暮想的地方，追尋劫後餘生的人，依舊不曾放下手上的 DV。相處大半天，直至他吞吞吐吐用不靈光的英文訴說他的計劃，那一刻，我的仰慕到了極點。

也許這便是韓國 style，那種強烈的風格凝聚與心思，引人入勝。

| 高 | 樓 | 斜 | 巷 |  
寶兒 星期三見報  
http://poyee.net

## 잘 노는 인간, '호모 코레아누스'

지난 8월 19일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미국 출신 세계적 래퍼 에미넴(EMINEM)이 첫 내한 공연을 가졌다. 2만여 한국팬들은 공연 내내 'Won't Back Down'부터 'Lose Yourself'까지 그의 노래를 모두 '떼창'했다. 멜로디라인은 물론 랩 부문까지 따라 불렀다. 에미넴도 흥겨워서 직접 떼창을 유도하기도 했다. 에미넴의 히트곡 '라이어'가 울려 퍼지자 2만여 관객들은 일제히 불을 켜 라이트를 높이 들었다. 라이트가 없는 관객들은 휴대폰 불빛과 형광봉으로 화답했다.





2만 관객의 '떼창'에 감동, 한국을 떠나고 싶지 않다고 밝힌 에미넴.

공연장은 환한 불빛으로 뒤덮이고 에미넴은 고조돼 열정적으로 랩을 하며 화답했다. 'Airplanes Part.2'를 부를 때도 그랬다. 전주가 흘러나오자 팬들은 사전에 약속이라도 한듯 흰 종이를 접어 만든 종이비행기를 무대 위로 날렸다. 수많은 종이비행기와 관객의 율동이 파도처럼 넘실댔다. 잠실벌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작정한 떼창 앞에 유별난 개성의 에미넴도 무장해제됐다. 한국인의 섬세한 감성이 돋보이는 순간이었다. 한국 공연에 앞서 가진 일본 오사카와 도쿄 공연에서 일본 관객의 썰렁한 반응과는 대조를 이루는 장면이었다.

한국 사람들이 흥겹게 노는 모습은 어딜 가나 바뀌지 않는다. 밴쿠버 조선일보 LA통신원 김인중 씨는 'LA통신, 잘 먹고 잘 노는 한인들의 한판 마당-한인축제'의 생생한 모습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어디에 있던 한국인들은 유쾌하게 어울리며 '놀이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사진은 LA할로윈 축제 장면(위)과 LA한인축제(아래). <사진제공 LA한국문화원>



“남가주 한인사회는 바야흐르 축제의 계절이다. 38회째를 맞는 LA 한인축제가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LA 코리아타운에서 성대하게 펼쳐졌다. LA와 이웃한 오렌지카운티 한인축제는 10월 15일부터 가든그로브 한인타운에서 오픈한다. 나홀간의 LA 한인축제에는 12만 명이 몰렸다. 최근의 한류 붐과 겹쳐 다른 민족도 눈에 띄게 많이 몰려들었다. 주류 정치인들도 이 잔치에 빠지면 여러모로 손해라서 너도 나도 초대에 응해 타운축제에 참여했다.(중략)

한인축제는 그 규모와 기간이 과연 잘 놀고 잘 먹는 한인들의 풍속을 보여준다. 한편 벌리기로 마음먹으면 무엇이든지 총동원되는 한인들의 놀이 끼가 발산된다. 무려 나홀간에 걸쳐 주요 도로의 차량통행을 막고 놀아대는 민족축제는 한인들밖에 없다. 중국 커뮤니티가 차이나타운에서 한인축제 흥내를 내며 해보지만 먹고 마시는 문화는 한민족을 따라올 수가 없다.

5월 1일의 멕시코 축제는 LA 최대의 멕시코 행사이지만 이렇게 한인들처럼 조직적으로(?) 놀지는 못한다. 올림픽이 서울국제공원의 장터에서는 막걸리가 팔린다. 미국법상 공개 지역에서 음주는 절대 불가지만 한인축제 때만은 예외다. 한인들이 LA시에 가서 때를 써서 특별히 음주허가를 받아냈다.

한국의 시골 오일장 같은 분위기의 장터에서 거나한 막걸리 파티가 벌어지며 빈대떡, 홍합탕이 오간다. 떡볶이와 순대, 어묵국들은 고향에 두고 온 포장마차에서의 향수를 채워준다. 타인종들은 그들의 커뮤니티에서 볼 수 없었던 거나한 분위기에 매혹돼 홀린 듯이 돌아다닌다. 한국에서 온 특산품 코너에는 덕유산 어성초, 태종대 황칠차, 통영 어간장, 장뇌, 영지 등 민속자연 건강식품들로 꽉 차 있다.

한인놀이의 정수는 역시 ‘노래’이다. 한인들의 모든 모임은 노래로 끝난다는



일찌감치 한국의 명절로 자리잡은 크리스마스. 한국문화의 융합·개방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  
〈사진 전한 코리아넷 기자〉

어느 외국대사의 말처럼 노래와 춤판은 한인축제의 절정이다. 비보이 댄스 배틀, 블라도 힙합 경연에는 그야말로 남녀노소가 없다. 이제는 한인 2,3세들이 이 자리를 이어받아 부모들이 만들어 놓은 마당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로 등장한 ‘나도 가수다-K팝 경연대회’는 이민 할머니부터 10대 이민 3세가 경연을 벌여 세대를 초월한 자칭 가수들의 놀이마당 모습이다.(중략) LA 한인축제는 38년 전 어설픈 시작됐다. 몇몇 의지의 한인들이 ‘계란으로 바위치기’로 시작했다. 밴쿠버는 이런 축제에 걸맞은 커뮤니티인지 가늠해 볼만하다.” 2011년 9월 30일

해마다 크리스마스(성탄절)를 맞으면 전국의 도심과 놀이동산, 관광지 등에는 인파



파견한 국민에게 감사의 성의를 표한다.” 당시 한글표기법에 따라 원문 인용

이와함께 크리스마스를 맞아 서적, 의류 등 가격할인 행사를 광고하는 등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현상도 늘어나기 시작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선물을 나누고 즐기는 명절로 성격이 바뀐 것이다. 특히 1930년대에는 서울 시내에 백화점, 카페, 다방 등이 들어서며 등 서구화·도시화가 급진전되면서 ‘모던’ 풍조가 확산됐다. 당시의 신세대는 ‘모던 걸’과 ‘모던 보이’로 서구 취향의 소비문화에 익숙해졌다.

크리스마스는 해방 이후 더욱 친숙해졌다. 1945년 10월 미 군정은 크리스마스를 공휴일로 제정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1981년까지 존재했던 통행금지 시기에다 해마다 12월 24일과 12월 31일 이틀만은 밤새 자유롭게 놀 수 있었다. 밤새 노는 ‘올나잇’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됐고 건강한 밤문화로 연장됐다.

여성과 남성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콜릿을 전하는 밸런타인 데이도 축제일로 토착화됐다. 성 밸런타인 데이(Saint Valentine's Day)는 연인들이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날이다. 기원은 서기 269년 로마제국의 기독교 박해로 순교한 성 밸런타인을 기념하여 해마다 2월 14일에 기도하는 기독교의 축일이었다. 여성이 남성에게 선물을 주는 날이라는 식의 발상은 일본에서 생겨난 습관이고, 초콜릿을 보내는 관습은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1936년 일본 고베의 모로조프 제과에서 밸런타인 초콜릿 광고를 시작으로 ‘밸런타인 데이=초콜릿을 선물하는 날’이라는 이미지가 일본에서 정착하기 시작했으며 1960년 일본 모리나가 제과가 여성들에게 초콜릿을 통한 사랑고백 캠페인을 벌이기 시작한 것이 계기가 되어 여성이 초콜릿을 통해 좋아하는 남성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날로써의 일본식 밸런타인 데이가 정착하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밸런타인 데이를 두고 알팍한 상흔에서 비롯된 국적불명의 이벤트라고 치부하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많은 남녀들이 그날을 빌려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하며 선물을 주고받는다. 그날만큼은 의사표시를 해도 좋다는 암묵적인 약속이 고정관념이 됐기에 어느때보다도 당당하고 부담스럽지 않다. 이에 덧붙여 빼빼로 데이까지 생겨났다. 어디서 유래됐든 토착화시켜 나름대로의 새로운 놀이문화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융복합 능력이다.

훗날 ‘잘 노는 인간’을 의미하는 용어로 ‘호모 코레아누스(Homo koreanus)’가 생길지도 모를 일이다.



## 코리아, 세계문화의 용광로

### 경주의 아랍인

한동안 이웃나라 중국, 일본을 제외하고 일찍이 우리나라의 존재를 인식한 것은 유럽이라고 배워왔다. 13세기 중반 프랑스 루이 9세가 원나라 헌종에게 파견한 프란체스코회 수도사 루브룩(Guillaume de Rubrouck, 1220?~1293년?)이 고려를 'Caule'라고 부른 이래 유럽인들은 Core, Cory, Caoli, Corai 등으로 우리나라를 표기했다. 'COREA'가 유럽 문헌에 나타난 것은 1571년 포르투갈 선교사 가스파르 빌렐라(Gaspar Vilela, 1525?~1572)가 당시 예수회(Societas Iesu) 총장에게 보낸 서신에 "중국과 일본 사이에 COREA라고 불리는 다른 왕국이 있다"라는 구절에 처음 보인다.

근래 들어 이같은 학설은 무너졌다. 이보다도 훨씬 앞서 아랍인들이 우리나라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미 10세기에 아랍 지리학자 이븐 쿠르다지바(Ibn Khurdadhbih, 820~912)는 『도로 및 왕국 총람』에서 "중국의 맨 끝에 있는, 금이 많은 신라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간 무슬림은 이 나라의 훌륭한 때문에 정착했으며 절대로 떠나지 않았다"고 기록했다.

12세기 모로코 출신 아랍 지리학자 알 이드리시(Abu Abd Allah Muhammad al-Idrisi al-Qurtubi al-Hasani al-Sabri 또는 Al Idrisi, 1099~1165 또는 1166)는 스페인·프랑스·영국·아라비아·소아시아·그리스 등을 여행한 후 세계지도 제작 작업에 착수했다. 1154년 그동안 쌓은 성과를 집대성하여 『세계 횡단을 갈망하는 자를 위로하는 책 Nuzhat al-mushtaq fi ikhtiraq al-afaq』이란 책을 펴냈다. 이 책에는 역사상 최초로 세계를 정확하게 그린 한 장의 세계지도와 70장의 지역 세분도가 수록돼 있다. 이드리시의 세계지도에는 아랍어로 '신라'란 이름이 우리나라 발음대로 'Silla'로 뚜렷이 명기되어 있다. 한국을 동양권 이외 지역으로 소개



경주 괘릉의 서역인상. 높은 코, 움푹 들어간 눈, 아랍식 의상 등으로 미뤄 오래전부터 한반도와 서역이 교류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사진제공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한 최초의 지도다. 이드리시는 “신라에는 금이 너무 흔하다. 개의 사슬이나 원숭이의 목테도 금으로 만든다”고 신라를 황금의 나라로 인식했다.

1250년 천문지리학자이며 물리학자인 알 카즈위니(Abu Yahya Zakariya' ibn Muhammad al-Qazwini 1203~1283)는 ‘신라=이상향’으로 표현했다. 역사학자 알 마크디시도 『창세와 역사서Kitabu'l Badi Wa'd Tarikh』(서기 966)에서 “중국의 동쪽에 신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그곳이 공기가 맑고 재부가 많으며 땅이 비옥하고 물이 좋을뿐만 아니라 주민의 성격이 또한 양호하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려고 하지 않는다”고 극찬하고 “신라인들은 가옥을 비단과 금실로 수놓은 천으로 단장하며 식사 때는 금으로 만든 그릇을 사용한다”며 황금의 나라로 표현했다.

경북 경주에는 수많은 신라시대 고분이 산재한다. 이 가운데 괘릉(掛陵, 사적 제26호)의 존재는 특별하다. 신라 38대 원성왕릉으로 추정되는 이 능 앞에 유별난 형상의 무인석이 턱하니 버티고 있다. 2m50cm가량의 당당한 체격, 움푹 들어간 눈, 날카로운 콧날, 양끝이 말려 올라간 팔자형 콧수염, 그리고 머리에 두른 아랍식 터번까지 서역인의 모습을 빼닮았다. 한 마디로 말해 깊숙이 들어간 눈에 높은 코의 심목고비(深目高鼻)의 인상을 한 서역인상은 신라 제33대 성덕왕릉(경주시 조양동 소재)과 제42대 흥덕왕릉(경주시 안강읍 소재)에서도 볼 수 있다.

인터넷 언론 오마이뉴스는 2011년 6월 14일 한국을 방문한 이라크 국립박물관 연구원 사드 함자 주게흐 씨와 모하마드 살리 아티아 씨와 인터뷰를 가졌다. 이들은 “신라는 실크로드의 종착지이기도 하다. 신라 향가에는 ‘처용’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의 외모 때문에 이슬람인(무슬림)이라는 설이 있다. 이것 말고도 괘릉의 무인상도 있다. 이 설로 볼 때 과거 신라 때 중동 지역과의 교류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이라크에도 이

런 유물이 있는지?”라는 질문에 “여러 가지 학설로 봐서 양국이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확신한다. 이슬람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이븐 바투타 등 실크로드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다. 우리들도 괘릉의 무인상을 봤는데 정말 놀랍고 멋졌다. 그래서 양국이 고대의 교류국임을 더욱 확신하게 됐다”라고 답했다.

이렇듯 외국인들의 빈번한 출입은 자연스럽게 교역의 증대로 이어졌다. 외국문물에 대한 민간의 지출이 심해지자 서기 834년 신라 흥덕왕은 “세속이 점차 경박해져서 백성들이 다투어 사치와 호화를 일삼아 오직 외래품의 진기한 것만을 좋게 여기고 토산물은 오히려 야비하다 싫어한다”고 개탄하며 사치를 금지하는 교지를 내린다. 대상은 진골에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을 망라했다.

삼국사기 잡지 색복조(色服條)를 보면 흥덕왕 시기 진골 여인은 목도리에는 모직과 금은실로 수놓은 것과 공작꼬리(孔雀尾)와 비취털(翡翠毛)의 사용을 금하고, 빗에는 슬슬(瑟瑟)을 박은 것과 대모(玳瑁)의 사용을 금하며, 비녀에는 금실을 새겨 넣거나 구슬다는 것을 금하고, 모자에는 슬슬을 박은 것을 금한다고 시시콜콜히 규정했다.

공작꼬리와 비취털은 신라산이 아닌 동남아 지역 수입품으로 보인다. 비취털은 청호반새의 푸른 깃털로 장신구를 장식하는 데 사용됐다. 슬슬은 과거 서역 지역인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호탄에서 출토되는 곤륜옥의 일종을 말한다. 실크로드의 중심지인 카슈가르에서는 요즘에도 비싼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타슈켄트 지방에서 나오는 터키석도 슬슬로 불리며 고구려 유민출신 고선지가 석국(石國,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을 정복하여 전리품으로 슬슬을 획득했다는 기록도 있다. 옥석 또는 터키석을 박은 모자를 쓰고 다니는 여인은 요즘에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호사스럽다.

서역과의 빈번한 교류에는 음악, 곡예 등 다양한 예술들도 빠질 수 없었다. 신라말

명문장가 최치원은 당대 유행했던 다섯 가지의 놀이를 주제로 「향악잡영오수(鄕樂雜詠五首)란 5개의 시로 소개했다. 이 시는 ‘금환(金丸), ‘산예(狻猊), ‘월전(月顛), ‘속독(束毒), ‘대면(大面)’ 등 다섯 수로 되어 있다. 금환은 금빛의 공 여러 개를 공중으로 던져 양손으로 받는 곡예다. 오늘날 서커스에서 자주 선보이는 저글링(juggling)과 별반 차이 없다. 월전은 실크로드의 주요 거점이었던 신장웨이우얼 자치구 호탄(于闐, kothan)지역의 놀이로서 여러 선비들이 술잔을 다투며 노래하는 놀이다. 속독은 중앙아시아의 타슈켄트와 사마르칸트 일대의 소그드(粟特, sogdiana)지방의 춤이다. 국립국악원, 『보정한국음악사』 47쪽 참고

서역에서 전래됐음에도 ‘향악’이라고 부른 것은 자연스럽게 토착화·대중화됐음을 보여준다. 오랜 과거에도 교역, 문화예술의 교류는 존재했으며 전래된 문화는 우리의 문화를 더욱 다채롭게 만들었다.

### 장안의 코리안 유학생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평왕 조에는 아래와 같은 기록이 있다.

“진평왕 9년(서기 587년) 가을 7월에 대세와 구칠 두 사람이 바다로 떠났다. 대세는 내물왕의 7세손 이찬 동대의 아들로, 자질이 뛰어났고 어려서부터 세속을 떠날 뜻이 있었다. 승려 담수와 사귀며 놀던 어느 날 말하였다.

‘이 신라 같은 산골에서 일생을 마친다면, 연못의 고기가 산림의 크기를 모르고 새장의 새가 바다의 넓음을 모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나는 장차 뗏목

우리의 선조들은 일찍이 오래전부터 외국으로 진출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 많은 이들이 이웃나라인 중국, 일본은 물론 인도, 서역에까지 적잖은 족적을 남겼다. 중국 당나라의 수도 장안은 국제사회의 중심이었다.

을 타고 바다를 건너 오나라, 월나라에 가서 스승을 찾아 명산에서 도를 구할 것이다. 만약 속된 자세를 바꿀 수 있거나 신선되기를 배울 수 있다면, 텅 비고 넓은 허공 위를 바람을 타고 훨훨 나를 터이니 이것이야 말로 천하의 기이한 놀이요, 불만한 광경일 것이다. 그대는 나를 따를 수 있겠는가?’

담수는 이에 따르지 않았다. 대세는 그를 버리고 다시 벗을 찾았다. 마침 구칠이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사람됨이 굳건하고 남다른 절개가 있었으므로 드디어 그와 함께 남산의 절에 놀러갔다. 갑자기 비바람이 불어와 정원의 연못에 나뭇잎이 떠 있게 되었다. 대세가 구칠에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와 함께 서방을 유람할 마음이 있는데, 지금 각자 나뭇잎 하나씩을 집어 그것을 배로 삼아 띄워 누구 것이 먼저 가고 뒤에 가는지를 보자.’ 잠시 후에 대세의 잎이 앞섰으므로 대세가 웃으면서 ‘내가 먼저 간다’라고 하자 구칠이 화를 내면서 ‘나 또한 사내자식이니 어찌 못 가겠는가?’라고 말했다. 대세는 구칠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고 남모르게 자신의 뜻을 말하였다. 구칠이 말하기를 ‘이것이 바로 내 소원이다’라고 하자 마침내 서로 벗이 되어 남해에서 배를 타고 떠났는데 그 후로 그들이 간 곳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

이 기록을 보면 우리의 선조들은 일찍이 오래전부터 외국으로 진출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시대 많은 이들이 이웃나라인 중국, 일본은 물론 인도, 서역에까지 적잖은 족적을 남겼다. 중국 당나라의 수도 장안(長安, 오늘날 산시성 시안)은 국제사회의 중심이었다. 동양과 서양의 수많은 문물이 오갔다. 기독교의 일종인 경교(景教, Nestorianism)사원에는 많은 교인들이 몰려들었으며 푸른 눈의 소그드(Sogd, 이란계 민족) 상인들이 상권을 좌

지우지 하고 있었다. 한국, 일본의 젊은이들도 몰려들어왔다. 교통수단도 변변찮은 시대에 계절풍을 타고 연안항로를 따라 중국대륙에 도착한 후 육로를 통해 상당기간 걸어가야 하는 험난한 여정이었다. 그럼에도 유학의 발길은 끊어지지 않았다.

당시 중국은 외국인을 상대로 빈공과(賓貢科)란 과거시험을 실시했다. 서기 821년 급제한 김운경을 비롯, 906년까지 빈공과에 합격한 신라인은 58명이었다. 나말여초 ‘3최(崔)’로 불리는 최치원, 최승우, 최언위 등이 대표적인 대당 유학생이다. 그후에도 발해인 오소도(烏沼度)를 포함하여 32명의 급제자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요즘말로 하면 경주, 만주의 청년에 이르기까지 유학열풍이 불었던 것이다.

## 글로벌 코리안 혜초와 장보고

달 밝은 밤에 고향길을 바라보니(月夜瞻鄉路)

뜬구름은 너울너울 고향으로 돌아가네(浮雲飄飄歸)

나는 편지를 봉하여 구름편에 보내려 하나(緘書參去便)

바람은 빨라 내 말을 들으려고 돌아보지도 않네(風急不聽廻)

내 나라는 하늘 끝 북쪽에 있고(我國天岸北)

다른 나라는 땅 끝 서쪽에 있네(他邦地角西)

해가 뜨거운 남쪽에는 기러기가 없으니(日南無有雁)

누가 내 고향 계림으로 나를 위하여 소식 전할까(誰爲向林飛)

신라출신 승려 혜초(慧超, 惠超, 704~787)가 인도 등을 순례하면서 고향을 그리는 마음을 담은 시다. 혜초는 유년시절 일찍이 당에 유학했다. 서기 719년께 남인도 출신 승려 금강지(金剛智, 원명은 Vajrabodhi, 671~741)에게서 밀교(密敎)를 배웠다. 금강지의 권유로 인도 제국을 돌아다니는 구도행을 시작했다. 먼저 중국 광저우(廣州)에서 배를 타고 동천축에 도착해 석가모니의 성지를 순례하고 오천축국(동천축, 중천축, 남천축, 서천축, 북천축), 서역 일대를 4년간(723~727년) 여행했다.

독일의 동양학자 발터 폭스(Walter Fuchs, 1902~1979)는 1938년 『왕오천축국전』을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혜초는 마르코 폴로보다 5백년 앞서 인도, 아프가니스탄, 동로마제국 및 러시아 일대를 순례했다”고 평가했다. 혜초에 앞서 당나라, 인도 등에 유학한 신라 승려들도 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인도의 나란타(那蘭陀, Nalanda) 대학에는 세계 각지의 유학생들이 찾아 왔으며, 한때 교수만 약 1천5백 명, 학생은 1만 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곳에도 아리아발마(阿離耶跋摩), 혜업(慧業), 혜륜(慧輪), 현각(玄恪), 현유(玄遊), 현대범(女大梵) 등 신라출신 승려들이 공부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구도행은 험한 여정이었다. 일연(一然)은 『삼국유사』에서 “천축의 머나먼 길 만첩산인데, 가련하구나, 힘써 올라가는 유사(遊士)들이여. 몇 번이나 저 달은 외로운 배를 보냈는가. 한 사람도 구름따라 돌아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고 적었다. 당나라 승려 의정(義淨, 635~713)은 『대당서역구법고승전(大唐西域求法高僧傳)』에서 파로스국(婆魯斯國, 오늘날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서해안)에서 신라 승려 2명이 병사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기록했다.

천축으로 가는 길은 바닷길이나 육로 모두 험난했다. 중도 탈락자, 사망자가 끊임 없이 이어졌다. 먼저 신라에서 중국의 장안으로 가는 길이 멀고도 험했다. 다음으로 는 만리장성을 넘어 아득하게 펼쳐진 사막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역 출발 지점인 둔



어려움 속에서도 신라는 중국, 일본, 나아가서는 아랍 등 서역지역과 끊임없는 교류를 가졌다. 선진문물을 익히기 위해 인적 교류를 추진하였고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부를 축적했다.

황 서쪽에서 과미르 고원까지 동서로 1천km, 남북 4백km의 타클라마칸 사막이다. 『서유기』에 등장하는 화염산(火焰山)이 이 곳에 있다. 섭씨 50도에 이르는 폭염지대가 무려 1백km에 달한다. 사막을 지나면 과미르 고원의 남서쪽을 뚫어 나온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야 했다. 7천m가 넘는 수많은 고봉에 만년설 지대가 펼쳐져 있다. 혹서와 혹한, 온갖 전염병이 도사리고 있었다. 그럼에도 신라의 구도자들은 험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신라인들의 대외진출은 활발했다. 중국 산둥반도 일대에는 수많은 신라인들이 이주하여 신라방이라는 거류지를 형성했다. 신라인들의 거점은 황해와 중국의 내륙을 연결하는 중국의 동남쪽 해안과 대운하 주변에 집중돼 있었다. 특히 해상왕 장보고(張保皋, ?~846)의 활약은 발군이었다. 장보고는 중국과 신라, 일본을 연계하는 거대한 해상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아랍상인까지 가세한 국제적인 경제 네트워크였다.

장보고를 비롯한 재당 신라인들은 산둥성 적산(赤山)에 사찰 법화원(法華院)을 건립했다. 법화원은 연간 쌀 5백 석을 수확할 수 있는 농장을 소유하였으며 그 소출로써 운영됐다. 27명의 승려가 상주하면서 매년 여름과 겨울에 신라말과 신라 방식으로 진행되는 법회를 열었다. 법회에는 250여 명의 신라인이 참석하는 규모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서기 838년에서 847년까지 9년간 중국 전역을 여행했던 일본 승려 엔닌(円仁, 794~864)의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줄여서 『행기』라고 부름)에 상세하게 전해진다.

『행기』에는 엔닌이 장보고를 비롯한 신라인들의 도움을 받아 9년간의 중국 순례를 마치고 무사히 돌아온 여정이 꼼꼼하게 기록돼 있다. 적산포(赤山浦)를 중심으로 한 신라인 사회의 도움을 받아 장기체류를 하게 되고 통행허가증을 받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다. 또한 법화원에서 신라승려 성림(聖林)의 도움으로 불교성지 오대산(五台山)을 소개받아 수행의 기회를 얻었다(『행기』 840년 기록). 장보고와 신라인 네트워크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줘 무사히 일본에 돌아왔다는 휴먼스토리가 곳곳에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역사학자이며 전 주일 미국대사였던 에드윈 라이샤워(Edwin Reischauer, 1910~1990)가 지난 1955년 엔닌의 일기를 영어로 번역(Ennin's Diary: The Record of a Pilgrimage to China in Search of the Law)하고 관련 박사학위 논문(Ennin's Travels in T'ang China)을 발표하면서 세계에 알려지게 됐다. 라이샤워는 장보고를 “해양상업 제국의 무역왕(Trade Prince of the Maritime Commercial Empire)”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이영훈 국립경주박물관장은 “신라 천년은 끊임없는 창신(創新)의 역사였다. 신라는 한반도 동남쪽에 자리하였으나 전혀 고립되지 않았다. 끊임없이 소통하고 자신의 문화를 밖으로 내보냈다”고 신라 천년의 역사를 해석했다. 매일신문, 2011년 6월 3일자

신라는 한반도의 끝자락에 있는 궁벽한 나라였다. 경주 주변의 6촌으로 출발한 작은 국가였다.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 국력도 미약했다. 한때 신라 영내에는 고구려 군대가 주둔할 정도로 상당기간 정치·군사적으로 예속된 상태에 놓이기도 했다. 뿐만인가. 백제의 끊임없는 침공 속에 위기상황에 놓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어려움 속에서도 신라는 중국, 일본, 나아가서는 아랍 등 서역지역과 끊임없는 교류를 가졌다. 선진문물을 익히기 위해 인적 교류를 추진하였고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부를 축적했다. 지속적으로 외부와 소통하여 다양한 문화를 흡수하면서 국력은 팽창의 길을 걸었다. 결국 역사는 신라에 한반도의 첫 번째 패자(覇者)가 되는 영광을 안겨줬다.

## 한양의 무슬림

서기 1407년(태종 7년) 1월 17일 일본 단주(丹州, 오늘날 교토·오사카 일대) 사자(使者)가 태종을 알현했다. 동행한 무슬림 승려(回回沙門) 도로(都老)가 처자와 함께 와서 머물러 살기를 원했다. 태종이 명하여 집을 주어서 살게 하였다. 도로란 무슬림은 광물에 대해 조예가 깊었던 모양이다. 1412년 태종은 도로에게 명하여 금강산, 순흥, 김해 등지에서 수정을 캐도록 하였다.

도로가 일찍이 본국의 수정모주(水晶帽珠)를 만들어 바치었는데, 임금이 좋다고 칭찬했다. 도로가 태종에게 “산천이 많아서 반드시 진귀한 보화를 가졌을 것이니, 만일 나로 하여금 두루 돌아다니게 한다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하고 아뢰자 태종은 수정 채취를 명했다. 그해 3월 29일에는 경상도 도관찰사 안등이 도로가 캔 수정 3백 근을 바쳤다. 태종은 이따금씩 도로에게 쌀을 하사하기도 하고 양질의 옥(良玉)을 내어 옥도장을 새기도록 했다.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무슬림과 관련한 기록이 있는데, 조선에 정착한 무슬림이 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418년(세종 즉위년) 9월 27일 기록에는 종묘 의식에 무슬림들이 참여하는 내용이 있다. “회회인(回回人)들이 뜰에 들어와 송축(頌祝)하고 끝나면, 판통례가 꿇어 엎디어 예(禮)를 마쳤다”고 의식의 절차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아 조선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송축이란 꾸란을 낭송하는 행위를 뜻한다.

역대 왕들의 위패 앞에서 꾸란을 낭송하며 존경을 표시하고 국가의 안녕을 빌었던 것이다. 조선의 무슬림들은 고유의 풍습과 의복을 한동안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1427년(세종 9년) 4월 4일 예조에서 세종에게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회회교도(回回教徒)는 의관(衣冠)이 보통과 달라서, 사람들이 모두 보고 우리 백성이 아니라 하여 더불어 혼인하기를 부끄러워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사람인 바에는 마땅히 우리나라 의관을 좇아 별다르게 하지 않는다면 자연히 혼인하게 될 것입니다. 또 대조회(大朝會) 때 회회도(回回徒)의 기도하는 의식도 폐지함이 마땅합니다.”

세종은 그들의 원만한 정착을 배려하여 예조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이슬람 문화는 조선시대 생활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1442년(세종 24년) 이슬람력을 보완하여 만든 『칠정산외편(七政算外篇)』의 편찬이다. 『칠정산외편』을 사용하기 이전엔 중국의 수시력을 사용했다. 그런데 해뜨는 시각, 달의 움직임 등이 중국과 맞지 않았다.

세종은 집현전 학자인 정인지, 정흠, 정초 등을 시켜 역법을 연구케 했다. 이들 학자가 중국에 가서 수시력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수시력의 과학적 토대가 이슬람의 역법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 정인지가 이슬람 역법의 원리와 이슬람 과학을 배워 우리에게 맞는 일몰시간, 동지 등을 모두 대입해 만든 것이 『칠정산외편』이다. 이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음력의 기초가 됐으며, 1653년(효종 4년) 서양의 시헌력을 도입하기 전까지 2백 년간 광범위하게 사용됐다.

## 조선의 신세대, 서양과 소통하다

1636년 조선은 중국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패했다.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1612~1645)는 인질로 끌려가 청나라 선양(瀋陽)에서 9년간 억류생활을 해야 했다. 귀국 몇 달을 앞둔 1644년 9월 소현세자 일행은 연경(燕京)에서 70일간 머물렀다. 그곳에서 세자는 예수회 선교사인 탕약망(湯若望 Johannes Adam Schall von Bell, 1591~1666)을 알게 됐다. 본명이 아담 샬인 탕약망은 독일 쾰른 출신으로 1622년 중국에 입국하여 서양의 천문학을 소개한 인물이다. 그는 태음력에 태양력의 원리를 부합시켜 24절기의 시각과 하루의 시각을 정밀히 계산하여 시헌력(時憲曆)을 만들었다. 시헌력은 1644년(인조 22년) 김육(金瑬)이 가져와 10년 간 연구검토를 거쳐 1653년(효종 4년) 시행했다. 아담 샬은 서양 천문학 서적을 번역하고 황실의 천문연구소 책임자로 일했다. 그 공로로 중국 황제는 그에게 연경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허락했다.

세자는 이 천문연구소를 찾았고, 서양 과학자들의 방문을 받았다고 아담 샬의 보고서는 전하고 있다. 이때 세자는 천문학자와 동행하여 서양역법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연경을 떠날 때 세자는 “경의의 표시로 매우 귀중한 선물과 석별의 눈물까지 흘렸다”고 한다. 아담 샬은 세자에게 많은 서적과 한문으로 번역한 『천문역산서』와 지구의 등을 선사했다. 1644년 9월 세자는 답례의 서신을 보냈다.

“귀하가 주신 천주상과 지구본, 천문학과 서구과학에 관한 그 모든 저서는 저를 얼마나 기쁘게 하였으며 또한 그것으로 해서 귀하께 얼마나 감사드리고 있는지 귀하는 짐작조차 못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 중 몇 권의 책을 읽어보았습니다만 그 속에서 정신

수양과 덕행을 실천하는 데 적합한 최상의 교리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지식의 빛이 전혀 어두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벽에 걸어놓은 천주상은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줄 뿐 아니라 속세의 때를 깨끗이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천주상과 저서의 내용은 이 세상에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었으며 어떻게 되어 그들이 제 손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매우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것과 비슷한 서적이 우리 왕국에도 있긴 하나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것은 결함 투성이며 수세기 동안 천행(天行)의 사실과는 상반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보물을 제가 보관하게 된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저의 왕국에 돌아가는 즉시로 그것을 궁중에서 사용할 뿐 아니라 출판하여 학자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옵니다. 그것들은 장차 사막을 박학의 전당으로 바꿔놓은 은총의 보물로 찬양될 뿐만 아니라 조선인이 서구과학을 완전히 배워 익히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 태어난 당신과 나, 대양으로 분리된 머나먼 나라에 태어난 우리들이 이국의 땅에서 상봉하여 마치 핏줄이 같은 형제 모양 서로 사랑해 왔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의 힘이 우리를 이끌어 주었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란 아무리 먼 거리에 떨어져 산다 해도 그들이 지식을 애호하는 데



17세기 중국에서 활동했던 예수회 선교사 탕약망은 소현세자와 과학·종교 등에 대해 깊은 대화와 교류를 가졌다.





북경의 천주교 성당인 남당. 홍대용 등 조선선비들이 출입하며 신학문을 흡수했던 곳이다.(위)

조선시대 지식인들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인식하고 있었다. 직각삼각형은 모든 도형의 기본으로 이를 제대로 인식하면 기구를 제작하고 천문을 헤아리는 등 그 쓰임은 끝이 없다고 생각했다. 18세기 초 조선에 전래된 구고술(句股術, 피타고라스 정리)은 조선의 수학자들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사진은 19세기 수학자 남병길의 직각삼각형과 관련한 224개 문제집을 정리한 『유씨구고술요도해』(아래). (사진제공 한국학중앙연구원)

홍대용(洪大容, 1731~1783)은 지적 호기심으로 가득찬 인물이었다. 일찍이 수많은 문물과 인재들이 모여 있는 연경에 가는게 소원이었다. 이를 위해 중국어를 익히고 차근차근 준비를 했다. 1765년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가는 숙부를 따라 60여 일간 베이징에 머물렀다. 중국인 학자들과 친교를 맺었으며 독일계 선교사로 오늘날 기상청에 해당하는 함천감(欽天監)의 감정(監正) 유송령(Augustin Ferdinand Haller von Hallerstein, 劉松齡,

있어서 융합할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기에 저는 그 서적들과 성화를 저의 고국으로 간직하여 돌아가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김용덕, 『조선후기사상사연구』, 422~424쪽

1645년 1월 9일 소현세자 일행은 연경을 떠나 2월 18일 서울에 도착했다. 한국한 지 두 달쯤 지나 병에 걸렸다. 학질로 진단하여 침을 놓았으나 4월 26일 창경궁 환경당(歡慶堂)에서 숨을 거두었다. 아쉽게도 세자가 체험한 식견들은 현실에 반영되지 못했다.

홍대용의 눈길을 끈 것은 파이프 오르간이었다. 거문고와 가야금 연주에 능했으며 음악에 조예가 깊었던 홍대용은 선교사들로부터 간단히 설명을 들은 후 즉시 연주를 해보였다. 유송령은 홍대용의 빠른 이해에 놀라워하며 “반드시 전에 와서 보고 싶었던 분일 것”이라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1703~1774)과 부정(副正)인 포우관(Anton Gogcisl, 鮑友管, 1701~1771)을 찾아갔다.

1765년 1월 두 서양 선교사의 거처인 천주교당 남당(南堂)의 문을 두드렸다. 이들과 천문학, 유교와 천주교의 철학, 서양 기술 등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눴다. 이들과의 만남은 홍대용의 연경 기행문 「연기(燕記)」의 ‘유포문답(劉鮑問答)’에 상세히 남아 있다. 1765년 1월 그들을 만났을 당시 홍대용의 나이는 34세. 유송령의 나이는 62세, 포우관의 나이는 64세로 부자뻘 되는 세대차였으나 ‘배우기를 원한다’는 홍대용의 부탁에 ‘감히 어찌’라고 겸손히 대했다고 한다.

홍대용의 눈길을 끈 것은 파이프 오르간이었다. 거문고와 가야금 연주에 능했으며 음악에 조예가 깊었던 홍대용은 선교사들로부터 간단히 설명을 들은 후 즉시 연주를 해보였다. 유송령은 홍대용의 빠른 이해에 놀라워하며 “반드시 전에 와서 보고 싶었던 분일 것”이라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홍대용은 이들과 필담을 나누면서 서양 천문·역법, 다양한 천문기구와 자명종, 망원경 등을 상세히 관찰했다.

조선시대 이방인과의 만남은 드문드문 이뤄지는 일이었으나 조선 지식인들의 지적 호기심은 끊이지 않았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규경(李圭景)은 『오주연문장전산고(五州衍文長箋散稿)』라는 방대한 분량의 백과사전을 펴냈다. 이규경은 서양의 알파벳을 소개하면서 표기와 표음의 편리성을 설명하고 있다.

“서양과 중국, 그리고 우리나라는 마치 암내 난 소나 말이 서로 짝지으려 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거리인데 배를 타고 와서 정박하였으니 매우 기이한 일이고, 동양과 서양이 서로 왕래한다 해도 그 문자나 언어는 서로 통하기 어려운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수사(修士)들이 중국의 경전을 환히 익혀서 마치 전세(前

卍)부터 약속이라도 한 것 같은가 하면, 중국에서도 서양의 글자 23자를 해독하여 이리저리 문장을 형성하니 아름다운 일이다. 이는 「중용中庸」에서 말하는 ‘서동문 거동궤(書同文車同軌, 문자와 수레의 규격의 통일을 뜻하며 여기서는 동서양 문자가 서로 통하는 것을 의미-집필자)’의 대의(大義)이다.

등옥함(鄧玉函)·왕징(王徵)의 『기기도설(寄器圖說)』에 보면, 서양 문자 A e I o u z Q k p t j v f g l m n s x h의 20자가, 한자로는 丫額衣阿午則者格百德日物弗額勒麥擲色石黑의 20자로 기재되어 있다. 즉 그 해설에 “기기도설에서는 기호로 일체 서양 문자를 사용하였다. 이 기호는 처음으로 보면 얼른 기록하기 어려운 듯하므로, 보는 이들이 호기심을 갖고 이리저리 추구하여 기어이 해독하려 하는데, 이 기호가 겨우 20자로 그 모양이 각기 다르니, 어찌 매우 번거롭고 매우 어렵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지금 서양문자를 위에 열거하고 한자를 다음에 열거 해석하여 보기에 편리하게 하였다. 또한 서양 문자를 해독함에 있어 20자밖에 되지 않지만, 자모(字母)·자부(字父)가 모두 25자가 되므로, 온갖 음과 온갖 글자를 포괄할 수 있으니, 서양 글자 20자는 그 모양을 기록하였고, 한자 20자는 그 음을 기록하였을 뿐이다.”

『오주연문장전산고 경사편』 5-논사류

대부분 도보에 의존하고 일부에서나 우마차가 통했던 전근대 시기에도 문명 간 교류는 있었으며 외부 세계에 대해 상당한 식견을 가진 지식인들이 있었다. 드문드문 이뤄졌던 외부 세계와의 교류가 조선시대에 끼친 영향은 크진 않았지만 지적 호기심을 높이고 다른 문화에 대한 수용의 자세를 넓혀준 것은 분명했다. 그 개방성은 근대화 과정에서 외래문화를 수용하고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밑거름이 됐다.

## 외국노래, 한국의 노래로 다시 태어나다

문화의 이동에는 장벽이 없다.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에 들면 어떤 형식으로든 받아들여지게 된다. 재스민 혁명의 와중에도 이집트의 청소년들은 K-Pop과 한국 드라마를 즐겨 감상하고 있었다.

빛장을 단단히 걸어 잠근 북한에서도 K-Pop과 한국 영화, 드라마는 시골의 장마당에서도 유통된다고 한다. 2011년 자유북한방송 소식통에 따르면 평양에서는 지금 한국 드라마 「아이리스」, 「아테나」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테일리NK 관계자는 “드라마 「올인」에 나오는 송혜교 머리 스타일이 평양에서 유행하는 데 북한 당국에선 ‘남조선 날라리풍’이라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 젊은이들은 드라마에서 본 그대로 머리 스타일을 흉내내고 서울말씨를 배운다고 한다. 혹독한 처벌이 따른다는데도 근절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처럼 문화는 장벽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대륙과 해양의 중간에 위치한 한반도에도 수많은 외래 문화가 유입됐다. 더욱이 19세기 근대화 이후에는 완전히 개방돼 타 문화와의 소통은 일상이 됐다. 상징적인 사례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듣거나 부르는 노래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한국인의 애창곡 가운데 「연가(戀歌)라는 노래가 있다. 청소년들이 수학여행이나 캠핑을 가면 단골로 부르는 노래다.

비바람이 치던 바다 잔잔해져 오면  
오늘 그대 오시려나 저 바다 건너서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빛도 아름답지만



수많은 가수를 배출한 1970, 80년대의 대학가요제.

사랑스런 그대 눈은 더욱 아름다워라  
 그대만을 기다리리  
 내 사랑 영원히 기다리리  
 그대만을 기다리리  
 내 사랑 영원히 기다리리

1970년대초 널리 불려진 이 노래의 원곡이 외국곡이라고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 이 노래의 기원은 뉴질랜드다. 그것도 원주민 마오리(Maori)족의 구전 민요 'Pokarekare Ana'다. 이 노래는 마오리족 거주지 인근에 주둔했던 뉴질랜드의 군부대에 구전됐고 6·25전쟁에 참전한 뉴질랜드군 병사들에 의해 우리나라에 알려져 연인들이 사랑을 속삭이는 아름다운 노래로 자리잡았다.

버터 냄새 질게 나는 아메리칸 팝이 민요풍의 가요로 정착한 경우도 많았다. 가수

조영남이 불러 히트를 쳤던 '최진사택 셋째딸'이란 노래가 있다. 이 노래를 미국 노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몇이나 있을까. 미국가수 알 윌슨(Al Wilson)이 부른 'Snake'가 한국에서 조선시대 최진사의 셋째딸로 둔갑해버린 것이다. 그것도 해학적인 내용으로 구수하게 바뀐 것이다.

뿐만인가. 1970년대 인기 팝가수 올리비아 뉴턴 존(Olivia Newton John)이 불렀던 'The Banks Of The Ohio(오하이오강의 뚝방)'는 가수 조영남에 의해 '내고향 충청도'로 돌변했다. 미국의 오하이오주 주민이 알면 포복절도할 노릇이다. 심지어는 우리와는 한참 동떨어진 이스라엘의 노래까지 근사한 우리 노래로 변신했다. 그것도 고려가요로. 이스라엘 노래 'Erev shel shoshanim(장미가 가득한 저녁에)'는 1977년 제1회 대학가요제에서 '가시리'로 바뀌어졌다. 가사는 고려가요 청산별곡을 그대로 붙여 붙여졌다. 히브리풍의 음색과 한국어 가사, 가수 이명우의 구성진 음성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 한 세대가 훌쩍 지난 요즘에도 애창된다.

서양 고전음악이 가요로 재탄생된 경우도 적지 않다. 신승훈의 '보이지 않는 사랑'의 도입부는 베토벤의 'Ich liebe dich'로 시작된다. 저작권이 적용된다면 베토벤 후손에게 사용료를 단단히 치렀을 법하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클래식 연주곡 가운데 '사계'가 있다. '사계'의 겨울 2악장이 '헤어진 다음날'로 변신해 가수 이현우가 애절하게 불렀다. 뿐만인가. 영국 음악가 에드워드 엘가(Edward Elgar, 1857~1934)의 'Salut D'amour(사랑의 인사)'가 한국에선 '흰눈이 기쁨 되는 날'로 불려지고 차이코프스키 '비창'의 4악장을 빌려 '어느 소녀의 사랑 이야기'가 만들어졌다. 이런 사례는 무수히 많다. 이렇듯 한국인들은 전혀 이질적인 문화를 흡수하여 새로운 하나의 문화로 다시 창조했다. 문화에는 내 것과 네 것이 없다. 너와 나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이 바로 문화의 힘이다.

## 한류의 시작

### K-Pop의 탄생 배경

K-Pop은 한국에서 대중적 인기를 얻는 대중 음악을 뭉뚱그린 이름이다. 간단히 가요, 또는 유행가라고 부르기도 한다. K-Pop이란 개념이 나온 지는 1990년대 후반으로 10여 년밖에 안된다. 그동안 한국에서 팝뮤직이라면 미국과 일본의 팝 정도가 보편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왔다. 한국노래가 다른 나라에서 불려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사실 요즘 한국에서 불려지는 노래들은 대부분 미국, 유럽 등 서구음악의 영향을 짙게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K-Pop은 서구의 팝과 한국의 감성이 어우러져 탄생한 새로운 장르다. 한국 것이면서도 한국만의 것이 아니며 서구적이면서도 전적으로 서구만의 것이 아닌 동서양 문화 소통 및 교류의 산물이다. 이는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K-Pop 현상이 문명교류라는 인류 역사의 보편성과도 일치하고 있다.

1945년 8월 일제가 패망하면서 한반도에는 미군이 진주했다. 미국의 대중음악도 자연스럽게 들어왔다. 미군이 출입하는 'Club'을 중심으로 미국 음악이 붓물 넘치듯 유통됐다. 몇몇 음악들은 한국어로 번안돼 확산됐다. 'Besame Muscho', 'You are my Sunshine' 등이 대표적인 곡이다. 서양곡 번안(adaptation)의 시초였다. kiss me much 라는 뜻의 'Besame Muscho'의 의미가 어여쁜 여자의 이름으로 둔갑하는 왜곡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들은 오늘날에도 널리 불려지고 있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한국 주둔 미군의 규모는 대폭 늘어났다. 전쟁 전 제24사단에서 1955년 7월 미8군 사령부가 일본에서 서울 용산으로 이전했고 미군과 군무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쇼무대는 더욱 확대됐다. 미국 본토에서 미군위문협회(USO)

공연단이 방한, 위문공연을 하는 일이 잦았다. Nat King Cole, Marilyn Monroe, Louis Armstrong 등 슈퍼스타들이 내한해 강한 인상을 남겼다. 미8군 무대를 미국 연예인들만으로 감당할 수는 없었다. 자연스럽게 한국 연예인들이 진출, 미군을 대상으로 공연을 하게 됐다.

처음에는 연주자 개인이나 팀이 개별적으로 클럽과 교섭하여 진출하다가 화양, 유니버설, 삼진, 공영 등의 용역업체들이 산하에 쇼 단체들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했다. 경쟁이 치열했던 이유는 미군 당국이 쇼에 대한 심사(일명 오디션)에 엄격했기 때문이다. 각 쇼단은 보통 6개월마다, 미국에서 직접 파견된 음악 전문가들이 심사하는 엄준한 오디션 절차를 거쳐 더블A, 싱글A 하는 식으로 등급이 매겨졌는데, 기득권이나 명성은 전혀 통하지 않아 탈락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미8군 무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왕도는 없었다. 최신 레퍼토리를 입수해 끊임없이 연습함으로써 실력과 흥행성을 배가하는 길이 유일했다. 악보가 거의 없던 시절이었기에 미군 라디오 방송을 녹음하고 최신 음반을 입수해 일일이 채보하면서 소속 용역 회사 창고에서 연습했다는 얘기는 미8군 무대 출신 음악인들의 공통된 후일담이다.

당시 실제 미8군 쇼는 어떤 것이었을까. 빅 밴드 편성의 악단은 재즈를 위주로 컨트리, 리듬앤블루스, 로큰롤 등 다양한 스타일을 연주했다. 쇼는 음악이 중심이긴 하지만 무용, 코미디, 마술 등이 가미된 1시간 남짓의 버라이어티 쇼에 가까웠다. 그래서 쇼 단체는 악단 외에 가수, 무용수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에는 여러 재능을 가진 멀티 플레이어도 적지 않았다. 베니 쇼, 에이원 쇼, 스프링 버라이어티 쇼, 토미 아리오 쇼, 웨스턴 주빌리 쇼 등은 당대 미군 클럽들을 누비던 대표적인 쇼다.

1950년대 후반 미군 무대가 한창 정점에 이르렀을 때 미군 클럽은 264곳에 이르렀



미8군 쇼를 통해 한국 연예인들의 수익은 연간 120만 달러에 육박했는데 이는 당시의 한국 수출총액과 맞먹는 액수였다. 미군 클럽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한국인이 아니라 미군 청중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한국의 대중음악으로 정착하는 단초를 열었다.

고 미군 쇼를 통해 한국 연예인들의 수익은 연간 1백20만 달러에 육박했는데 이는 당시의 한국 수출총액과 맞먹는 액수였다. 미군 클럽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한국인이 아니라 미군 청중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방의 과정을 거쳐 한국의 대중음악으로 정착하는 단초를 열었다. 미8군 쇼 무대에서 단련한 음악인들은 1960년대부터 한국인 대중을 상대로 한 이른바 ‘일반 무대’에 본격적으로 진출해 파란을 일으켰다. 이봉조·김대환·김희갑·신중현·김홍택 등의 연주자와 작곡가, 한명숙·최희준·현미·패티김·윤복희·필리스터즈 등의 가수들이 미8군 무대에서 활약했으며 이들은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실력파들이다.

### 한국 가수의 해외진출

K-Pop 이전에도 한국 노래 또는 가수의 해외 진출은 드물지만 있었다. 그 단초를 연 것이 한명숙의 ‘노란 샤쓰 입은 사나이’다. 미8군 쇼에서 활약했지만 일반 가요팬들에게는 무명이었던 한명숙은 1961년 3월 비너스레코드에서 녹음을 마쳤다. 비너스레코드사의 사장이 작곡가 손석우였다.

그는 자신이 작사작곡한 ‘노란 샤쓰 입은 사나이’를 부를 여가수를 찾고 있었다. 당일로 연습을 시작해 녹음을 했다. 음반 판매를 시작했으나 이내 반품이 돌아왔다. 서구풍의 노래가 어색하게 받아들여졌던 탓이라는 풍문이었다. 상황은 몇 달 후 반전됐다. 1961년 12월 ‘노란 샤쓰’ 붉은 절정에 달했다. 5만장을 넘어서 계속 팔려 해방 후 최대의 히트를 기록했다. 라디오방송에 연일 나왔으며 경기장에서 응원가로 불려졌다.

“노란 샤쓰 입은 말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  
미남은 아니지만 씩씩한 생김생김  
그 이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쏠려...”

이 노래는 1962년부터 동남아로 퍼져나갔다. 1965년 프랑스 샹송가수 이베트 지로(Yvette Giraud 1916~)가 방한, 콘서트를 가졌을 때 서울시민회관에서 이 노래를 불렀고, 레코드를 취입했는데 이것이 동남아로 ‘노란 샤쓰’ 열풍이 퍼졌다. 대만, 태국 등에 수출된 동명의 영화와 함께 동남아 관광객이 오면 거의 레코드를 사가는 바람에 노란 샤쓰 붉은 더욱 고조됐다. 1972년 이 노래는 일본의 가수 하마무라 미치코가 리메이크하여 30만 장의 판매고를 기록하기도 했다.

국제가요제에 직접 진출하는 경우도 많았다. 가수 정훈희는 1970년대에 음악 팬들의 관심을 끌었던 제도권 행사인 국제가요제에 첫 입상 가수이자 가장 많은 상을 수상했다. 1970년 42개국에 참여한 일본 도쿄 야마하가요제에서 ‘안개’로 입상했으며 이듬해 그리스 국제가요제에서는 ‘너’라는 곡으로 아시아에서 일본을 제치고 유일하게 수상했다. 1972년에는 또 한 차례 도쿄 야마하가요제에서 ‘좋아서 만났지요’로 가수상을, 1975년 칠레 가요제에서는 ‘무인도’로 3위와 최고가수상을 함께 받았다.

가수 현미는 1971년 7월 그리스 세계가요제에 참가, ‘별(My Star)’로 입상했으며 패티김은 1974년 6월 4회 도쿄국제가요제에 ‘사랑은 영원히(Forever My Love)’로 출전해 14개국 450곡 중에서 3위에 입상했다. 당시 1위는 미국 필라델피아 출신 여성 3인조 그룹 The Three Degrees 의 ‘When Will I See You Again’, 2위는 일본의 후세 아키라(布施明)의 ‘積木





김씨스터즈는 우리나라 걸그룹의 효시이자 최초의 해외진출 가수이다.

의部屋'로 쟁쟁한 스타들이 참가한 가운데 얻은 성과였다. 소설가 이병주(1921~1992)는 그녀의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무대 연출이나 감정 표현이 서양의 동작에 한국적 목소리를 실었다”고 평했다.

김씨스터즈의 미국 진출도 특기할 만한 사실이다. 미8군 쇼에서 GI(미군)들을 상대로 공연하다가 1959년 1월 29일 동양쇼의 매니저였던 톰 볼스에게 픽업돼 라스베이거스에 진출했다. 초기에는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활동하다가 1964년 이들은 선망의 대상인 에드셀리번쇼에 20여 회 공연을 하는 동안에 폭발적 갈채를 받음으로써 동양에서 온 마녀들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으며, 주급 5백 달러가 하루아침에 주급 2만 달러로 치솟았으며 세금만도 50만 달러를 내는 라스베이거스에서 다섯번째 고액 납세자가 됐다.

김씨스터즈는 프랭크 시나트라, 마릴린 먼로, 딘 마틴 등에 이어서 데저트인 호텔에 출연했으며, 텔레비전과 라디오는 물론 뉴욕의 월트어프, 워싱턴의 쇼햄, 시카고의

팔머 하우스, 델리스의 힐튼 등을 순회공연했으며, 이듬해에는 로마로부터 시작해서 파리, 베니스, 마드리드, 뮌헨, 런던, 몬테카를로 등 유럽 각국을 돌아다니며 인기를 얻기도 했다.

## 번안 가요의 시대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 가요는 미국식 팝이나 번안가요가 주류를 이뤘으며 자작곡은 드물었다. 1960년대 말 어쿠스틱 기타의 반주에 서정적인 가사를 담은 가수들이 서울의 중심 명동에서 활동하기 시작했고 방송을 통해 인기스타로 떠올랐다. 톰 존스(Tom Jones)의 'Delilah'(1968)를 번안해 부른 조영남, 나나 무스쿠리(Nana Mouskouri)의 'Me T'aspro Mou Mantil'(1969)를 '하얀 손수건'으로 번안해 부른 트윈폴리오, 뚜아에 무아의 '약속'(1970), 라나에 로스포의 '사랑해' 등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미8군 무대에서 활동했던 경험이 있던 이들은 명동의 음악살롱 쉼시봉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스스로 기타를 튕기며 영미 팝송과 샹송, 칸초네 등을 연주했다. 특히 트윈폴리오는 이탈리아의 칸초네 가수 밀바(Milba)와 그리스 가수 나나 무스쿠리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특히 1980년대까지 미국식 팝의 영향력은 압도적이었다. 1978년 10월 10일자 동아일보는 '뽕짝가요 퇴조시킨 팝송'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미국식 가요가 80%에 달한다며 한국적 특성의 상실을 우려하기도 했다.

“주한미군 AFKN방송은 24시간 방송시간 중 20시간 이상을 미국의 팝송(유행

가요)을 틀어댄다. 서울 광화문 한복판에 있는 한 레코드점엔 미군계통으로부터 1주일에만도 2백 장의 새로운 팝송판이, 한 달에 1천여 장의 레코드판이 흘러나와 날개돋친듯 팔려 나간다. 아니 국내 TV, 방송에서조차도 팝송화한 미국식 가요들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전국은 온통 미국 팝송으로 가득하다.

한미 간의 문화관계에 있어서도 팝송처럼 우리 사회에 ‘철저하게’ 파고든 그리고 우리의 것을 ‘몰아대고’ 있는 것은 또 없을지도 모른다. 얼마전 한 TV방송국에서 있었던 일이다. 우리 가요 가수 U양이 새로운 곡을 갖고 음악담당 프로듀서를 찾았다. 젊은 이 음악담당 프로듀서는 U양의 신곡을 보더니 ‘트로트곡(한국 민요조곡)이라 곤란하다’며 거절을 해버렸다. 이런 일은 ‘다반사’로 경음악계에 알려져 있다. 이제 한국인의 감정과 희로애락이 담긴 전통가요들은 설 자리를 잃었으며 ‘구정이나 추석날의 특별쇼에나 나갈 정도’라고 한다. (중략) 요즘 당국은 심야의 라디오방송에서 미국의 팝송을 자율규제토록 했다. 그러나 한국방송에서 미국의 팝송이 끊어지는 순간 젊은이의 다이얼은 AFKN으로 돌려졌다는 게 방송가의 말이다.” (후략)

1982년 8월 30일자 경향신문은 ‘가요 뽕짝조서 팝계열로’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한국의 대중가요가 전통성을 잃어가고 있다고 개탄했다.

“우리의 대중가요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부분 감상적인 주제에 애조의 멜로디로 가슴을 적셨던 뽕짝조의 노래는 우리 주위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음을 실감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다양한 가사에 발랄, 경쾌한 리듬의 팝뮤직이 대중가요

의 주류를 형성해가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이미 세계적 경향인 팝송의 영향권에 깊숙이 침투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같은 현상은 현재 디스크 판매와 방송 횟수 빈도 등에서 나타난 인기송의 가사와 리듬에서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

톱랭킹의 가수 조용필이 지난 6월 동심을 노래한 ‘못찾겠다 꾀꼬리’는 4분의 4박자인 펑키리듬으로 구성돼 있다. 그는 1973년 뽕짝조의 ‘돌아와요 부산항에’를 히트시킨 이후 ‘창밖의 여자’(슬로 고고), ‘미워미워미워’(월츠) 등으로 이어지는 팝송 쪽의 노래로 리듬의 변천을 주도해오고 있다. (중략) MBC대학가요제에서 출발, 정상권에 육박해 있는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는 디스코 리듬. 산노래의 간판보컬인 산울림이 최근 신보로 열창하고 있는 ‘내게 사랑은 너무 써’는 댄스뮤직인 스윙리듬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나훈아가 뽕짝조인 ‘울긴 왜 울어’로 아직도 상층권에서 후퇴하지 않았다. 정상권 여자가수들의 노래 역시 팝뮤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후략)

이렇듯 한국에는 팝송, 샹송, 칸초네, 심지어는 포르투갈의 전통가요 파두(Fado)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외국 대중음악들이 소개됐다. 이따금씩 방문하는 서구 팝뮤지션의 공연엔 발 디딤틈 없이 관객들이 밀려들었다. 1969년 영국 가수 클리프 리처드의 내한공연은 극단적인 사례에 속한다. 강한 유교 전통이 남아 있는 한국사회였음에도 여학생들은 애정표현을 아끼지 않았다.

서구 위주의 팝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들이 밀물처럼 들어왔다. 전 세계의 음악이 유입되었다. 노래를 즐겨 부르는 한국인의 정서와 맞물려 확대재생산됐다. 필리핀의 타갈로그어로 불려진 ‘Anak’이란 노래도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물을 맘껏

물을 맡겼 빨아들이는 스펀지처럼 한국의 대중음악 시장은 서구의 팝을 끊임없이 받아들였다. 비틀즈에서부터 헤비메탈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르를 소개했다. 이는 훗날 K-Pop이 탄생하는 풍성한 토대가 됐다.

빨아들이는 스펀지처럼 한국의 대중음악 시장은 서구의 팝을 끊임없이 받아들였다. 비틀즈에서부터 헤비메탈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르를 소개했다. 이는 훗날 K-Pop이 탄생하는 풍성한 토대가 됐다.

1982년 3월까지 한국공연윤리위원회 가요분과위의 심사를 거친 가요는 무려 7천 4백15건. 유형별로 분류하면 국내가요의 가사가 1천6백4건, 경음악 포함 악보가 1천6백92건, 이밖에 외국의 클래식과 팝송이 2천6백88건 수입돼 세계 속 한국이라는 말을 실감케 했다.

## 원조 K-Pop 조용필

흔히 가수 조용필을 일컬어 ‘가왕(歌王)’이라 부른다. 그것도 이론의 여지도 없이. 여간 해선 듣기 어려운 미칭(美稱)이다. 1975년만해도 가수 조용필은 부산을 무대로 활동하던 무명가수였다. 공중파 방송에 거의 소개되지 않았다.

1976년 겨울, 한 노래가 세상을 놀라게 했다. 한 해 전 발표된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대박을 터뜨린 것이다. 이 노래는 이미 1973년 불려졌으나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하다가 2년 후 킹레코드에서 제작됐다. 제일동포 고향방문단이 부산항에 속속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 구색맞추기로 넣자고 제안했던 것. 킹레코드의 박성배 사장은 ‘그리운 님’이란 단어 대신 ‘그리운 내 형제’로 바꿔 녹음했다. 부산의 다방가, 유흥가에서 난리가 났다. 동포들은 눈물을 적셨고 방송사마다 조용필을 찾았다. 다시 취입한 노래가 한국인이 사랑하는 국민가요가 된 것이다.

‘돌아와요 부산항에’는 부산에서 몇 달도 안돼 서울에서도 다방가를 석권했다. 소리 소문도 없이 레코드 판매고가 10만 장을 훌쩍 넘어섰다. 가요계의 대지진을 예고하는 하늘도 놀라고 땅도 뒤집어지는 사건이었다. 월드스타 조용필을 예고하는 사건은 태풍전야의 고요한 바다처럼 조용히 시작됐다.

조용필의 인기는 거침이 없었다. 1978년말 ‘프렌치 팝의 전설’ 폴 모리아(Paul Mauriat)는 ‘돌아와요 부산항에(Please Return To Pusan Port)’를 경음악으로 편곡했다. 유럽의 뮤지션도 인정한 것이다. 1980년 그의 1집 앨범 ‘창밖의 여자’가 한국음반 사상 처음으로 1백만 장의 판매량을 올렸다. 동아방송(DBS)의 라디오 연속극 ‘창밖의 여자’의 주제곡이 가요계를 흔들여 놓은 것이다. 한국 가요계의 한 획을 긋는 대사건이었다.

그의 인기는 바다 건너 일본으로 이어졌다. 앞서 일본에서 활동하던 발라드의 여왕 이성애가 부른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게 인연이 됐다. 일본 사람들은 술자리, 파티에서 웬만하면 한국 가사로 그대로 불렀다.

1982년 4월 3일 도쿄 시부야 공회당에서 열린 아시아 5개국 뮤직포럼에 출연한 게 일본 진출의 신호탄이 됐다. 1983년 5월 NHK콘서트홀에서 최초의 일본 공연이 이뤄졌다. 조용필이 국제 가수로 데뷔하게 된 것이다. 일본 언론들은 NHK콘서트홀 개관 이래 솔로가수로는 최대의 관중(7천5백 명)을 모았다고 주목했다. 3천6백 엔의 입장료는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될 정도였다. NHK홀은 미국의 프랭크 시나트라, 올리비아 뉴턴 존, 스페인의 홀리오 이글레시아스 등 톱가수만 공연할 정도로 권위 있는 뮤직홀. 일본 공연은 아시아의 연예 중심지이며 미국, 유럽과도 연계성이 높은 일본무대로 성공적인 데뷔였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전만해도 국내에는 일본의 엔카, J-Pop이 들어와 널리 퍼지고 있었다. 일본가요





가수 조용필은 국내 가수로는 최초로 일본과 중국 등에서 대규모 콘서트를 가진 가요 한류의 원조라 할 수 있다.  
 <사진제공 와이피씨프로덕션>

공연, 음반수입이 금지됐음에도 거리에는 ‘블루 나이트 요코하마’(이시다 아유미), ‘고이비토요’(이쓰와 마유미) 등 일본 가수들의 복제음반(이른바 𠵼판)과 복제테이프들이 즐비했다. 이는 규제의 벽으로도 막기 어려운 문화의 힘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가요의 힘은 냉전의 벽도 훌쩍 넘어버렸다. 한중수교보다 4년 앞선 1988년 8월 조용필이 베이징 장성(長城)호텔에서 단독콘서트를 가졌다. 한국 가수로는 최초로 사회주의국가 중국에서 첫 공연이 이뤄진 것이다.

당시 두 나라 사이에 국교가 이뤄지지 않아 조용필이 베이징에 도착할 때까지 한국이나 일본 언론에 보도돼서는 안된다는 까다로운 규정이 있는가 하면 출국 하루 전 공연 취소가 전해지기도 했으며 공연장소도 베이징호텔에서 장성호텔로 바뀌는

등 우여곡절 끝에 이뤄진 결실이었다. 공연 실황도 영상이 아닌 스틸사진 몇컷으로 보도됐을 뿐이었다.

후원은 당시 중국 최고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의 막내딸 덩룽(鄧榕)이 회장으로 있는 동방미술교류학회였다. 놀라운 사실은 조용필의 ‘친구여’가 ‘만추(晩秋)’라는 타이틀의 중국 노래로 둔갑(?)하여 이미 불려지고 있었던 것.

조용필의 성공은 한 장르에 머물지 않고 로큰롤·트로트·발라드·퓨전·동요·민요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미지, 패티김의 팬은 확연히 구별되지만 그의 팬은 10대에서 노년까지 폭이 넓었다. 뿐만인가. 국내를 훌쩍 뛰어넘어 글로벌한 잠재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지난 2001년 9월 26일 조용필은 탄자니아 정부로부터 문화훈장을 받았다.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제14차 세계관광기구(WTO) 총회에 참석 중인 탄자니아의 자키아 메기 관광자원부 장관이 벤자민 음카과 대통령을 대신해 훈장을 수여한 것. 1980년대에 발표한 노래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통해 탄자니아에 소개한 킬리만자로를 널리 알린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

이 노래로 인해 지난 1998년 탄자니아 정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으며 이듬해 탄자니아 홍보대사로 임명되기도 했다. 탄자니아 정부가 외국인에게 문화훈장을 수여한 것은 조용필이 최초였다.

## 한류의 시작, 아시아를 놀라게 한 K-Drama

“일본 이토추 등이 투자한 퍼펙트TV는 지난 4월부터 TV프로 57개 라디오 103개 데이터 방송 13개 채널 등으로 구성해서 며칠 전부터 한국 채널 3개 중에서 K채널 KN텔레비전채널 등 2개 채널을 정상가동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이 한국어 위성방송으로 우리 안방을 공략할 날이 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중략) 만일에 여기에 일본적 시각에서 일본의 뉴스나 일본의 문화를 우리말로 바꾸어서 방송하기 시작한다면 바로 일본문화 일본의식 일본정치가 우리 안방을 차지할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우리의 대책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996년 10월 18일, 국회 국정감사 문화체육공보위원회 회의록

「사랑이 뭐길래」가 홍콩과 중국 국영 CCTV를 통해 방영되기 시작했다. 당시 외국에서 수입된 프로그램 중 두 번째로 높은 최고 시청률 15%를 기록했다. 한국드라마의 잇단 성공은 한국 가수들이 중국과 홍콩, 대만으로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1992년 6월 공보처 해외공보관과 홍콩 한인상공회의 후원으로 MBC TV 주말연속극 「사랑이 뭐길래」가 홍콩 지역에서 처음으로 방영됐다. 홍콩 A TV를 통해 6월 28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3~4시에 영어자막을 삽입, 방영하게 된 것이다. A TV의 시청권은 홍콩, 광둥성 등 중국 남부 지역을 커버하고 있었다. 국내에선 「사랑이 뭐길래」에 등장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이 한국홍보에 얼마나 기여할지는 의문이라고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 이렇듯 한국 방송 프로그램의 중국 진출은 초기엔 미약했다. 1996년 10월 공보처에 따르면 KBS·MBC·SBS 등 공중파 방송3사가 같은 해 8월말까지 수입한 외국 프로그램 편수는 5백87종 2천7백84편인데 비해 수출편수는 23종 6백12편으로 1995년의 51종 1천98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심각한 불균형 상태였다.

「사랑이 뭐길래」가 홍콩에서 방영된 지 5년 지난 1997년 6월 15일 중국 국영 CCTV 제1채널을 통해 방영되기 시작했다. 당시 외국에서 수입된 프로그램 중 두 번째로 높은 최고 시청률 15%를 기록했다. 중국의 한국드라마에 대한 관심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이런 관심은 이어 방영된 「별은 내 가슴에」에의 큰 인기로 이어졌다. 한국드라마의 잇단 성공은 한국 가수들이 중국과 홍콩, 대만으로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 해주었다.

중국에서의 한국 문화산업의 인기는 그때부터 성장하기 시작했고 중국의 쇼 비즈니스 업계 전반의 트렌드와 스타일에 영향을 미쳐왔다. 그리고 그 한류열풍은 대만·홍콩·베트남·태국·몽골 등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됐다. 같은 해 미니시리즈 「느낌」, 「아들과 딸」이 호치민텔레비전을 통해 베트남 전역에 방영됐다. KBS는 「머나먼 나라」를 일본 KNTV에 공급했고, 기산미디어가 제작한 「등신불」 등 불교 드라마를 대만에 수출했다.

서울방송(SBS)은 「8월의 신부」 「사랑의 향기」 「모델」 등 드라마를 홍콩 스타텔레비전에 공급했으며 다큐멘터리 프로 「그것이 알고 싶다」와 오락프로 「TV가요 20」은 홍콩 스타텔레비전, 축구를 소재로 한 만화영화 「내일은 월드컵」은 홍콩텔레콤, 오락프로 「깜짝비디오쇼」는 프랑스 TILT에 각각 공급했다.

2001년은 중국·대만·베트남 등 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대중문화의 열기가 휘몰아친 ‘한류열풍’의 해였다. 탤런트 안재욱·차인표·송혜교·송승헌·채림 등이 출연한 「가을동화」, 「별은 내 가슴에」, 「불꽃」, 「이브의 모든 것」 등의 드라마가 중국, 대만 등지에서 크게 인기를 끌었다.

베이비복스, NRG 등의 가수들도 중국에서 활동하며 아시아권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을 주도했다. 동아시아권에 불어닥친 한류열풍에 힘입어 우리 드라마의 수출액도 크게 늘어났다. 1990년대 중후반까지 2백만 달러를 넘기 힘들었던 우리 드라마 수출액은 지난 2000년말 1천3백만 달러까지 늘어났다.

한류스타들을 보기 위해 한국을 찾아오는 동아시아의 팬들도 올해 부쩍 늘어나 이를 이용한 관광상품도 속속 등장했다. 한류열풍에 고무돼 정부는 2001년 8월말 중국의 주요 도시에 ‘한류체험관’을 세우고, 아시아문화교류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정책적으로 지원했다.

## 세계공용어 ‘한류’

한류란 명칭이 중국에서 유래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1999년 중국 공산당의 언론매체 중국청년보가 처음으로 중국에 부는 한국문화 현상을 ‘한류’로 부른 게 계기가 됐다.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 각국에서 통용되는 명칭이다.

온라인 백과사전 위키피디아에 나타난 한류 명칭을 보면 The Korean Wave(영·미), 韓流(중국·일본), Le Hallyu(프랑스), Koreanische Welle(독일), La Ola Coreana(스페인), Hàn luu(베트남) 등 한국에서 온 문화라는 국적성을 반영하며 사전적 의미로 정착했다. 대부분의 외국 언론들도 ‘한류’를 사용, 널리 통용되는 개념이 됐다.

일각에선 한류라고 부르는 것이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하지만 이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 받아들여져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 어디에도 특정 문화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와 반대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특정명칭으로 불러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며 반문화적 발상이다.



# 한류의 확산

## 한류, 일본으로의 확산

배용준, 최지우 주연의 KBS 드라마 「겨울연가」가 국내 드라마로는 처음으로 2003년 4월에서 9월까지 NHK BS2를 통해 방영됐다. 편당 수출가는 2천2백만 원에 20부작 전체 수출액은 4억4천만 원으로, 당시까지 수출된 국내 드라마의 최고 액수였다. 「겨울연가」가 방영되기 전엔 위성방송이나 지방방송사에서 산발적으로 방영됐을 뿐이었다.

「겨울연가」의 인기는 폭발적이었다. 2003년 12월 재방송됐다. 그것도 모자라서 지상파에서 방송됐으면 하는 여론이 거세져 2004년 4월 3일부터 8월 21일까지 NHK종합에서 방영됐다. 인기는 사그라들지 않았다. 다시 2004년 12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NHK BS2에서 미공개 장면까지 포함한 완전판이 방영됐으며 2004년 유행어 대상 상위에 랭크됐다. 「겨울연가」의 방영은 일본의 한류붐이 자리잡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일본 시청자들의 갑작스럽고 강렬한 반응은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다.

「겨울연가」는 텔레비전 드라마 성공의 기본법칙을 충실히 따른 드라마라고 한다. 선남선녀형의 주인공(배용준, 최지우), 아름다운 풍경(눈으로 하얗게 덮인 남이섬), 달콤한 러브 스토리, 죽음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강한 열망, 그리고 이런 요소들은 아름답고 감성적인 배경음악과 함께 멋지게 맞아 떨어졌다. 이 모든 요소가 잘 결합된 「겨울연가」는 일본에서 국가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드라마가 대한민국 내에서 얻었던 인기를 뛰어넘는 현상이 일어났다.

「겨울연가」 최종회의 일본 평균 시청률은 20%를 넘었다. 일본 언론은 경이적인 일로 평가하고 있다. 방송 시간이 심야시간대인 밤 11시인데다가 아테네올림픽 중계에 시선이 쏠려 있다는 점에 비추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것.



실제로 「겨울연가」의 평균 시청률은 2004년 1월 11일부터 일요일 프라임 타임(저녁 8시)에 방송되고 있는 NHK 대하드라마 「신센구미新選組」의 평균 시청률이 17.7%였던 것과 비교할 때 놀라운 수준이라는 게 일본 방송가의 일반적 평가다. 또한 2004년 말까지 일본인들의 70%가 적어도 「겨울연가」 중 한회는 시청했다고 한다.

당시 최지우는 일본 내에서 할리우드의 A급 스타들이 받는 것과 같은 수준의 인기를 얻었다. 당시 고이즈미 총리가 2004년 6월 니혼게이자이신문 주최 ‘아시아의 미래’ 심포지엄 만찬에서 “윤사마가 준사마인 나보다 (일본에서) 인기가 많다”라는 농담을





는 데엔 이견의 여지가 없다. 「대장금」은 조선시대 중종 통치시기(1506~1544)를 배경으로 한 시대극이다. 대장금이란 인물은 중종실록에 9차례 등장할 뿐인데 궁중의 부엌에서 일하게 된 궁녀가 결국 성공해 최초로 임금의 여성 주치의가 된다는 한 인간의 성공 드라마로 그려졌다.

한국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대장금」이 세계에 퍼지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한류붐을 만들어 내리라곤 예상치 못했다. 「겨울연가」는 20개국에 수출된 것에 반해 「대장금」은 2011년까지 총 90여 개국으로 수출되어 세계 곳곳에서 한류 열기를 끌어냈다. 「대장금」을 향해 환호와 열광적인 반



아시아는 물론 북미와 유럽 등 거의 모든 국가에서 방송되고 큰 성공을 거둔 한류 드라마 「대장금」.

홍콩의 동방일보는 2010년 7월27~28일 '한류(韓流), 일본 추월', '홍콩은 왜 못하는가' 제하로 홍콩이공대학 토머스 찬 교수의 논평을 실었다. 찬 교수는 한국이 홍콩을 비롯한 동남아의 한류와 함께 화장품, 패션 등 상품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홍콩도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을 보낸 외국 국가의 리스트는 마치 아시아 내에서 세계 여러 나라들의 출석 번호를 부르는 것을 연상케 한다.

「대장금」은 거의 모든 아시아 국가들에서 방송되고 큰 성공을 거두었다. 게다가 이것은 아시아 지역에만 해당하는 현상이 아니었다. 「대장금」은 북미나 유럽, 그리고 러시아·터키·이스라엘·사우디아라비아·이란 등에도 퍼져나갔다. 「대장금」 전까지 이들 나라에서는 '한류'란 그저 다른 나라의 관심사일 뿐이었다.

그리고 드라마 「대장금」 속에서 건축·음악·의상·음식·의학을 통해 보여준 한국의 전통문화는 많은 팬들에게 한국의 전통문화 유산에 대한 뚜렷한 인상을 남겼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상품과 관광상품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경제적 수익을 창출해 냈다. 한국관광공사는 경기도 양주에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대장금 테마파크'를 만들기도 했다.

###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남녀

1967년 홍콩의 멜로드라마 '스잔나(珊珊, Susanna)'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큰 인기를 끌었다. 이 영화의 주제가인 '스잔나'와 삼입곡이었던 '청춘무곡(青春舞曲)'을 모르는 젊은이는 거의 없었다. "해는 서산에 지고 쌀쌀한 바람 부네, 날리는 오동잎 가을은 깊었네, 꿈은 사라지고 바람에 날리는 낙엽..."이란 가사의 이 노래는 중국어로 부르는 우리나라 최초의 대히트곡이 됐다. 당시 18세였던 여주인공 리칭(李菁)은 학생들의 우상이었다. 1970년대 들어 '사랑의 스잔나'라는 홍콩 영화가 다시 청소년들의 심금을 울렸다.

여주인공 진추하(陳秋霞, Chelsia Chan)가 부른 'One Summer Night'은 아직도 회자되고 있을 정도다. 당시 중고생들은 진추하의 사진을 수첩에 끼워놓거나 복사한 브로마이드를 공부방 벽에 붙이고 감상하곤 했다.

이소룡(Bruce Lee)은 또 어땠나. 중고생이라면 쌍절곤을 휘두르며 쿵푸신발을 신고 '아보'라는 괴성을 지르는 흥내를 내지 않은 남학생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당시 홍콩의 대중문화는 한국의 선망 대상이었다. 언감생심 우리의 연예인들이 외국인들이 선호의 대상이 되리라곤 상상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20년이 지나 상황은 한참 역전됐다. 오죽하면 왕년의 우상이었던 진추하가 방한하면서 한류스타 배용준의 사인을 받고 싶다고 간절한 소망을 밝힐 정도였으니까. 이러한 문화 역전현상을 반영하듯 홍콩의 동방일보는 지난 2010년 7월 27~28일 '한류(韓流), 일본 추월', '홍콩은 왜 못하는가' 제하로 홍콩이공대학 중국비즈니스센터 주임 토머스 찬 교수의 논평을 실었다. 찬 교수는 한국이 홍콩을 비롯한 동남아의 한류와 함께 화장품, 패션 등 상품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홍콩도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6년 11월 15일 강원도 화천 승리부대 정문 앞. 쌀쌀한 데다 눈까지 내리는 날씨에도 일본팬 5백여 명이 이날 새벽 2시 전세버스 25대에 나눠 타고 아침 7시에 도착해 송승헌을 마중나와 환호했다. 자식이나 동생이 전역한다고 해서 마중나오는 한국의 엄마와 누나는 거의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부대 앞에는 눈이 내리는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본팬 5백여 명 등 국내외의 팬 9백여 명과 취재진 수백 명이 모여 '한류스타'의 면모를 과시했다. 일본의 후지TV와 NHK, 닛칸 스포츠 등 일본 취재진과 국내 취재진 등 2백여 명도 열띤 취재 경쟁을 벌였다.

지난 2003년 9월 16일 텔런트 김현주와 소지섭이 청와대를 방문한 팜반카이 베트남 총리 내외를 초청한 오찬에 자리를 같이해 관심을 모았다. 두 사람의 청와대 방문은 내한한 베트남 총리 내외가 요청해 이뤄졌다는 후문. 베트남 관계자들은 차례를 기다리며 소지섭과 일일이 개인촬영을 했고 사인을 챙겨 갔다고 한다. 김현주, 소지섭이 출연한 SBS-TV 드라마 「유리구두」가 2003년 5월 베트남에 진출해 VTV1을 통해 방영되면서 폭발적 인기를 얻은 게 계기였다고 한다. 소지섭은 한국-베트남 수교 11주년 행사에도 초청돼 베트남 팬들의 환대를 받았다.

## 할리우드 스타 바람맞힌 '비'

아시안 섹시 가이 비(Rain)는 어떡한가! 비는 지난 2006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온라인 투표 후보에 올랐다. 비의 인기는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영화 「트랜스포머Transformers」의 여주인공 메간 폭스(Megan Denise Fox)가 그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했다는 보도가 나왔을 정도다. 지난해 미국 대중지 인콰이어러는 '메간 폭스, 비에 구애 중(Singer Rains on Megan's love parade)'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메간 폭스가 2009년 6월 9일 영화 「트랜스포머」 프로모션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을 때 비에게 수차례 전화, 이메일을 통해 데이트 신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보도했다.

「트랜스포머」 홍보를 위해 방한한 메간 폭스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인터넷 서핑을 하다 비가 셔츠를 입지 않고 찍은 사진을 봤는데 정말 인상적이다"며 "기회가





신한류 걸그룹 돌풍을 일으킨 원더걸스(위)와 소녀시대.

한국의 대중문화는 한국이란 울타리를 벗어난 지 오래 됐다. 영화, 드라마 차원이었다면 이제는 K-Pop으로 확산되고 있다. 걸그룹의 인기는 멈출줄 모르고 있다. 일본 언론은 한류의 중심축이 40, 50대 중장년층에서 10대 여성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된다면 그를 꼭 만나고 싶고 그가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 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또한, 호주의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선 “지금 데이트를 한다면 누구와 하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메간 폭스는 “한국의 저스틴 팀버레이크, 비와 데이트 하고 싶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대답해 화제가 됐다. 이에 대해 비의 소속사 제이투엔터테인먼트는 “현재 비가 프랑스로 화보 촬영을 떠난 상태라 본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걸그룹의 인기는 멈출줄 모르고 있다. 지난 2010년 8월 25일 소녀시대는 도쿄의 아리아케 콜로세움에서 첫 일본 쇼케이스를 열고 약 40분간에 걸쳐 화려한 춤과 함께 대표곡들을 선보여 2만2천여 명의 팬들을 매료시켰다. 후지TV의 휴일 정보프로그램인 ‘미스터 선데이’는 29일 밤 방송을 통해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이자 인기 사회자인 미야네 세이지(宮根誠司)로부터 인기비결을 들어봤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루 14시간이 넘는 맹렬한 연습과 데뷔 전부터 일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등 그 수준과 열의가 매우 높다.”

후지TV의 간판 정보프로그램 ‘도쿠다네’는 지난 8월 16일 ‘일본 10대 여자 열광-신한류 여자 아이돌 돌풍’이란 주제로 일본에서 불고 있는 한국 걸그룹 열풍을 소개 하면서 일본 언론은 “한류의 중심축이 40, 50대 중장년층에서 10대 여성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오리콘 역시 8월 28일자 뉴스에서 “소녀시대의 매력은 노래, 댄스, 스타일 모두 완벽하게 소화하는 프로패셔널리즘에 있다”면서 “또한 노래를 듣고 있으면 중독되는 점도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지난 25일 행사를 찾은 많은 팬들이 평소 일본의 인기그룹 ‘아라시’나 ‘AKB48’를 좋아하는 아주 평범한 소녀들로 이전 한류와는 팬층이 다르다”며 “한국 음악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사람도 소녀시대의 퍼포먼스에는 반할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앞서 NHK는 소녀시대의 공연 당일 밤 9시 뉴스타임 첫 뉴스에서 5분간 소녀시대 데뷔를 비롯해 한국 걸그룹 열풍에 대한 특집을 방송하면서 “이제까지 한류는 드라마로 인기를 끈 잘생긴 남자배우 중심이었다”며 “그러나 지금 인기는 한국의 걸그룹으로 춤과 노래, 철저한 스타일까지 멋진 이들에게 일본 여성들이 매력을 느끼고 있어 일본 연예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른다”고 전했다.

일본에서만 한류의 영역이 확산되는 게 아니다. 원더걸스의 활약 또한 만만찮다. 원더걸스는 파워풀한 댄스와 유창한 영어 실력을 선보이며 ‘노바디’, ‘텔미’, ‘2 different tears’ 등으로 1년 넘게 미국에서 활동을 하며 30여 개 도시에서 단독투어를 하고 ‘노바디’로 빌보드차트 76위까지 오르는 등 인지도를 높였다. 어느 누가 한국 가요가 빌보드차트에 오른다고 상상이나 했던가!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은 한류 확산의 배경에는 유튜브 등 소셜 미디어의 인기가 있다고 풀이했다. 이 매체는 2012년 8월 26일 인터넷 판에 ‘한국 가요, 온라인 도움으로 세계로 간다(Korean Pop, with Online Help, Goes Global)’라는 제목의 장문 기사를 싣고, 관련 배경을 상세히 분석했다. 타임은 우선 빅뱅 멤버 태양의 사례를 거론했다. 매체는 “소위 한국의 모든 것이 ‘쿨’하다는 트렌드가 아시아 전역에 확산되고 있다”면서 “빅뱅의 태양은 최근 계속해서 이같은 한류와 더욱 글로벌화되는 미디어 환경변화로 인해 서방세계로 더욱 빨리 다가가고 있는 중”이라고 적었다.

타임은 지난달 아이튠즈에 올린 태양의 ‘솔라’가 아이튠즈 R&B세일차트에서 미국의 경우 2위, 캐나다의 경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히면서 “한국과 일본 음악팬을 겨냥한 이 음원은 특히 북미 프로모션이 전혀 없는 가운데 성과를 냈다”고 놀라워했다.

타임은 이같은 배경으로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 다양한 소셜 미디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예전 같으면 미국이나 유럽까지 도달할 수 없는 일이 인터넷과 다양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가능하게 됐다”면서 “현재 한국 가수들도 전통적인 TV나 라디오 프로모션에서 벗어나 트위터를 직접 하거나 유튜브를 적극 활용하면서 아시아 이외의 해외 차트 순위도 계속 올리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한류’는 아시아를 넘어, 아줌마 세대를 넘어 전 세계, 전 세대로 확산되고 있다. 더 이상 한국의 한류는 서양이나 일본문화의 아류가 아니라 실력과 스타일에서 독특한 매력과 차별성을 지닌 매력 있는 문화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한류의 글로벌 확산

**네팔** | 네팔의 한국드라마 팬들은 인터넷과 중국산 DVD로 한국드라마를 접하고 있는데,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곳 역시 「겨울연가」로 인해 붐이 일기 시작했으며 「폴하우스」, 「커피프린스 1호점」, 「마이걸」, 「미남이시네요」까지 그 관심이 확장되고 있다. 이런 열풍의 중심에는 젊은 여성들이 있으며 그들은 배용준과 같은 남자 배우들에 호응이 높다.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는 한국의 패션 트렌드를 따라하는 젊은이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어 공부 열풍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카트만두의 영자지 리퍼블리카는 지난 2010년 3월 ‘우리 주변을 뒤덮은 한류’라는 제목으로 한국드라마와 영화에서 음식과 패션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한국 제품들에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는 한국의 패션 트렌드를 따라하는 젊은이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한국어 공부 열풍도 뜨겁다. 네팔에서 특히 인기가 높았던 「미남이시네요」와 「커피프린스 1호점」(오른쪽).

대한 기사를 내기도 했다. 기사에서는 “오늘날 도시의 젊은이들은 한국에서 온 모든 것들을 선호한다”라고 보도했다. 이런 급증하는 한국드라마에 대한 관심은 인스턴트 라면이나 소주 같은 다른 한국 제품들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필리핀** | 필리핀에서도 한국드라마는 인기가 대단하다. 이곳에서 한국드라마는 필리핀에서 드라마를 지칭하는 단어인 텔레노벨라를 활용한 신조어인 ‘코리아노벨라’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으며, 대형 방송사인 GMA네트워크와 ABS-CBN이 한국드라마들을 수입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수입된 한국드라마들은 현지 필리핀어로 더빙되어 시청자 층이 가장 몰리는 황금 시간대에 방송하고 있다.

GMA가 2011년 7월에 방송한 ‘코리아노벨라’들은 「폴하우스」, 「이브의 모든 것」, 「내 이름은 김삼순」, 「천국의 계단」 등이다. ABS-CBN은 「꽃보다 남자」, 「백만장자와

결혼하기」, 「101번째 프로포즈」, 「발리에서 생긴 일」 등을 방영했다. 이 중 「천국의 계단」, 「내 이름은 김삼순」, 「과리의 연인」 같은 드라마들은 필리핀에서 가장 유명한 배우들에 의해 리메이크되기도 했다.

**베트남** | 한국드라마는 베트남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다. 인터넷 뉴스 Vnexpress는 2008년 실시한 자사의 투표 조사에서 베트남의 많은 한국드라마 가운데 39%를 득표한 「대장금」을 가장 인기 있는 드라마로 선정했다. 2위는 「폴하우스」(29.2%)가 차지했으며, 「이브의 모든 것」(19.3%), 「과리의 연인」(7.2%), 「낙랑 18세」(5.7%) 등이 그 뒤를 이어 5위 안에 들었다.

그 동안 중국산 사극이 주를 이루었던 베트남 TV 산업은 「대장금」을 필두로 「주몽」, 「허준」 등으로 그 선호가 바뀌었다. 베트남 젊은이들은 「폴하우스」에서 연인을 연기했던 송혜교, 비와 같은 한류 스타들을 좋아한다. 「궁」을 통해 많은 인기를 모은 윤은혜나 「마이걸」에서 주연을 맡았던 이다혜 역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태국** | 태국의 한국드라마 열풍은 전 태국 총리인 아피시트 왜차지와의 인터뷰로 요약된다. 2009년에 한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피시트 총리는 자신의 딸이 한류 팬이고 자신 역시 열렬한 팬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또 한국드라마 DVD를 소장하고 있으며, 종종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방콕의 한국 식당에서 외식을 한다고 말했다.

태국의 한국드라마 열풍은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빨리 시작된 편이었지만, 이후 2000년대 중반에 「상도」나 「이웃집 여자」가 방영되었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2007년 「마이걸」의 방영 이후, 이듬해에 방영된





전 태국 총리인 아피싯 왜차지와의 딸(위 사진)은 열혈 한류 팬이다. 싱가포르에서 현지인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K-Pop 경연대회(아래).



life! THE STRAITS TIMES THURSDAY, APRIL 26 2012 PAGE 02

Japanese pop culture gained a foothold in Singapore first but Korean pop culture has now overtaken it.

**The reign of K-pop**

K-pop groups such as Girls' Generation spared no effort when it came to promoting themselves in Singapore. PHOTO: ASSOCIATED PRESS

When Hello, or the Korean Wave, washed over Singapore, there was Japanese music. It hit Singapore hard in the 1980s and 1990s. First with singers and actors such as Yoko Matsuda and Akino Arino, followed by the likes of SMAP, X-Japan, Spandau and Namie Amuro. Their posters and laminated photos sold briskly at retail outlets catering to late-teens and young adults.

Then, about the transit and triumphs of a Japanese woman from childhood through adolescence, was among the first large Japanese drama series to Singapore when it aired here in the 1990s, long before Korean dramas. The first Yoko Matsuda, followed by the likes of SMAP, X-Japan, Spandau and Namie Amuro. Their posters and laminated photos sold briskly at retail outlets catering to late-teens and young adults.

Then came, from Girls' Generation to Lee Min Ho and Kim Hyun Joong, it is almost all about Korean pop culture with Singaporeans - and it has taken only a decade for K-pop to not only erase Japanese pop culture's 20-year lead, but surpass it considerably.

What happened?

Part of the answer lies in the example of Japanese rock band U'Nee (Uchi-Chan) holding their first-ever concert in Singapore on Saturday night after 20 years and selling 40 million records.

The quartet - among Japan's biggest bands - told Life! they never came to Singapore before simply because they had no idea they had a following here. And it is quite a sizeable following too - a few categories of tickets to the concert at the Singapore Indoor Stadium are already sold out.

Although local supporters say there is no official fan club established here, some of them are passionate enough about U'Nee-Chan that they have flown all over the world to watch them perform at concerts.

According to Warner Music marketing director James Kang, the fact that J-pop stars have always been more "charismatic" and "charismatic" to K-pop stars played a part in the Korean takeover.

The same goes for the biggest of their popularity, girl group 2NE1, husband G-Dragon, pop queen Namie Amuro, Visual rock group Clay and current top group Arashi gave Singaporeans a whole new set of music, no concerts, no shows.

Japanese rock music fan Fabian Koh, 22, has also noticed that his name Japanese singers and groups do not hold him as often as their Korean counterparts - a possible reason why they are not as popular.

The Disney office representative says: "This can definitely find people in Singapore who are crazy about J-pop now, but it's not easy as finding people who are very vocal about K-pop."

A fan of underground J-rock bands such as Tokyo Pussycats and Sublimation, Mr Koh says he would probably have to travel to Japan if he ever wanted to see them live because there is "pretty much no chance of them ever coming here."

In contrast, K-pop stars are less shy about stepping out of their country. To be frank, they are all too eager to promote themselves. In fact, it seems they are willing to go anywhere in the world for even the opening of an envelope, as long as it is an opportunity for more publicity and the price is right.

Indeed, K-pop acts four Singapore more often than the Japanese, with popular groups such as Girls' Generation, ITZY and B2U having recently performed here.

Not enough material for a full-length concert? No worry, there is always this thing called a "ticketed fan meet". Last December, K-pop band 2NE1 were in town for a two-hour fan party at the Singapore Indoor Stadium, where they sang a few songs, autographed merchandise and took photos with fans.

Last year month, Korean idol Min Hyun Bin, who played the princely Yoon Ji-ho in the hit drama Boys Over Flowers (2009), will also be in town for a fan meet at the Indoor Stadium.

More recently, the "Miss Asia World" awards, one of the biggest star-studded annual K-pop awards events, was held here last November. It is still the clearest sign that the K-pop market has a strong foothold in Singapore.

Assistant Professor Lee Kai Kien of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whose research areas include television dramas and music events in K-drama. Perle shows would each attract a view.

Miner Soeata was one of the first Korean dramas to be shown in Singapore. PHOTO: GFI MEDIAWORKS

한국문화 전체를 포함하는 한류의 현상을 소개하고 있는 싱가포르 매체들.





윤은혜와 공유가 출연한 「커피프린스 1호점」, 배용준이 출연한 「태왕사신기」 등은 다시 한 번 엄청난 인기를 불러 일으켰다. 「커피프린스 1호점」, 「궁」의 연이은 히트로 인해 윤은혜는 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류스타가 되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한 한국드라마에 대한 사랑은 지역 방송에서 2006년 방영되었던 「내 이름은 김삼순」의 재방송을 이끌었고,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많은 DVD와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판매로 이어졌다.



한류 확산은 '재스민혁명'의 이집트에서도 예외없이 뜨거웠다.

**말레이시아** | 다문화 국가인 말레이시아 안에서 한류는 각기 다른 문화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말레이시아 내 문화의 간극을 좁히고 있다. 대부분의 DVD 판매점에는 별도의 한국드라마 코너가 마련되어 있으며, 「겨울연가」, 「대장금」을 위시한 각종 드라마들의 DVD가 인기 대역 타이틀의 순위에 그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지역 유선방송사에서 이미 방영을 끝냈음에도 그 여세를 이어가고 있는 드라마들이다.

말레이시아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드라마로 꼽는 「대장금」의 경우 북경어와 광둥어를 포함해 말레이시아 고유어를 비롯한 다양한 언어로 더빙되어 각각 세 번이나 방영되었다. 드라마의 인기는 이후 현지의 한국식 대중음식점 '대장금'에 대한 수요로 이어졌다.

**중앙아시아 지역** | 한국드라마들의 새로운 시장으로 중앙아시아와 옛 소련의 독립 국가연합 소속 국가들이 부상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국영 방송사는 「겨울연가」와 「대장금」을 비롯한 일련의 한국드라마들을 방영하고 있으며 「다모」나 「주몽」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드라마 「주몽」은 우즈베키스탄 시청자들로부터 특히 사랑받고 있



팬들에게 둘러싸여 「주몽」의 브로마이드에 친필사인을 하고 있는 탤런트 송일국 씨.



으며 아이들로부터 주몽 티셔츠와 인형 장난감들은 매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다른 방송국들은 「러브스토리 인 하버드」나 「불멸의 이순신」, 「해신」, 「연애시대」, 「장길산」, 「안녕, 프란체스카」, 「불량주부」, 「잃어버린 제국」, 「그린 로즈」 등을 지역 유선방송이나 위성방송으로 방영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주몽」과 같은 사극인 「홍길동」, 「이산」, 「허준」 등이 고른 인기를 얻으며 방영되고,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들은 「가을동화」, 「첫사랑」 같은 로맨틱 드라마들을 더 선호한다. 한국 TV드라마들의 인기에 힘입어 많은 한국회사들이 카자흐스탄에서 한국문화 수입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상품들은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으며 특히 휴대전화기, TV, 에어컨과 같은 가전제품 시장에서 삼성과 LG가 60~70%에 달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카자흐스탄 시청자들은 한국산 텔레비전으로 한국드라마를 보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중동 지역** |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일어난 한국드라마 열풍이 문화적으로 어느 정도 동질성을 유지한 조건하에서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중동 지역과 같은 곳으로 확장된 지금의 상황은 보다 더 놀라운 발전이라 할 수 있다.

2006년, 이란 국영 방송국에서 방영된 「대장금」은 57%에 달하는 놀라운 시청률을 얻었다. 이는 이란의 TV 시청 여건 하에서 여간해서는 나올 수 없는 높은 수치였다. 이러한 「대장금」의 엄청난 인기는 일종의 '신드롬'이 되어 이를 설명하기 위한 여러 다양한 시각들이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예컨대, 20여 년 전에 이란에서 방영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일본 드라마 '오싱'에 빗대어 「대장금」의 인기를 설명하기도 하고, 어

린 소녀가 낮은 위치에서 시작해 어의의 자리에까지 오르는 스토리라인이 호응을 얻었다고 보는 측도 있다. 잡지 The Diplomat의 올라 나카가와는 사회 체제를 유지하는 한국의 고유한 문화 자체가 공감을 얻었다고 진단했다.

이란 사회에 「대장금」이 던진 충격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열성팬들이 만든 수만 개의 웹사이트와 블로그가 생겨났고, 이란 내의 한국어 열풍이 촉발되기도 했다. 심지어 한국에 거주하는 이란인들은 자국민들에게 한국어를 말하고 쓰는 법을 가르치는 블로그를 개설하기까지 한다.

이러한 「대장금」의 큰 성공은 「주몽」으로 이어졌고, 한국 배우들이 특급 모델 대우를 받으며 이란 광고에 등장하기도 했다. 특히 2008년 말부터 이란 국영방송(IRIB)에서 방영된 「주몽」은 85%의 경이적인 시청률을 기록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그리고 그 인기는 한국상품에 대한 선호로 이어져, 이란 수출은 이전 대비 46.3% 증가한 연 1백억 달러에 달했다. 다른 중동 국가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아 「대장금」은 터키·요르단·이집트·이스라엘 등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북미 지역** | 한국드라마가 두 말할 나위없는 쇼비즈니스의 중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그 어떤 호응도 얻지 못한 채 국제적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의 한국드라마는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다. TV 산업 영역에서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평양의 주민 투표처럼 한쪽으로 치우친 극단적 형태였다. 한국의 시청자들은 수십년간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CSI', '프리즌 브레이크' 같은 인기 미드(미국 드라마)의 열렬한 팬이었다. 반면 한국 TV 드라마의 존재는 미국인 시청자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와의 같은 존재였다.



현빈·하지원 주연의 「시크릿 가든」. 지구 반대편인 남미에서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한국드라마들이 미국 시청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서고 있다. '홀루닷컴(hulu.com)' 같은 동영상 사이트에는 충혈된 눈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드라마의 다음 에피소드를 시청하는 미국인 팬들이 서서히 늘고 있다. 최근에 이들 사이에 큰 반향을 일으킨 드라마로는 「커피프린스 1호점」이 있다. SBS의 「시크릿 가든」 역시 현빈과 하지원의 로맨틱 코미디 열연에 힘입어 의미 있는 반응을 얻고 있다.

「커피프린스 1호점」은 2011년 2월 기준으로 홀루에서 선정한 '반드시 봐야 하는 드라마 200'에 들어간 몇 안 되는 한국드라마들 중 하나이다. 홀루닷컴 외에도, 'Drama Fever'나 'Drama Crazy' 같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한국드라마 팬인 미국인들은 그 수를 늘려가고 있다. 이러한 한국드라마에 대한 증가하는 관심은 심지어 할리우드 로맨틱 영화에도 등장하고 있다. 2011년 초에 극장에 걸린 'Beastly'의 두 남녀 주인공

은 두 사람 모두 한국드라마 팬으로, 서로의 드라마 감상을 공유하는 장면이 등장한다는 면에서 흥미롭다.

한국드라마들을 영어로 더빙해서 방영하고 있는 미국 내 한국 전문 방송채널은 갑작스레 증가하는 시청률 증가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으며, 해당 드라마들은 다른 채널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많은 웹사이트들이 한국드라마의 팬으로 동참하고 있으며 「대장금」은 미국 내 많은 아시아 레스토랑들이 사용하는 이름이 되었다.

**남미 지역** | 브라질에서의 한국드라마는 주로 한국 이민자들 사이에서 그 소비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현재의 한국드라마는 보다 많은 층의 시청자를 확보하고 있고, 그 중에는 열성 일본인 이민자들도 포함된다. 한국드라마와 영화, 뮤직 비디오는 일본어로 더빙되거나 자막 처리가 되어 브라질의 DVD 대여점의 전체 순위에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브라질 내 일본인 이민자의 층이 매우 넓기 때문에 이들의 수요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겨울연가」를 비롯, 「내 이름은 김삼순」, 「이브의 모든 것」 등이 공영 방송사에서 방영된 멕시코에서는 「내 이름은 김삼순」이 특히 큰 반향을 일으켜 이러한 붐이 이웃인 코스타리카나 베네수엘라·페루·푸에르토리코 등으로 퍼지고 있다. 페루에서는 특히 2007년에 방영된 「가을동화」가 최근까지도 지역 유선방송에서 인기리에 재방송되고 있다. 이에 힘입은 TV 페루는 2008년 후반에 「대장금」을 방송하기도 했다.

## 한류의 매력에 빠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유력 영자 일간지 자카르타 포스트(The Jakarta Post)는 지난 2010년 10월 11일~16일 열렸던 ‘한-인니(印尼) 주간(Indonesia-Korea Week)’ 행사와 관련, 26일 ‘한국: 태동하는 문화적 불가항력’ 제하로 문화면 전면을 할애, 한류에 대해 심도 있게 보도했다. 이 신문의 Gillian 기자는 “K-Pop 등 한국문화에 가장 심취하기 쉬운 사람들은 젊은 인도네시아인들일 것”이라며 젊은층들이 이번 인도네시아-한국 주간을 충분히 즐겼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한국 걸그룹 소녀시대의 치명적인 매력과 섬세하고도 가냘픈 멜로디로 이뤄진 중독성 강한 음악을 아름다운 가성으로 선원들을 유혹하던 그리스 신화의 사이렌의 노래에 비유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 전역이 카라와 애프터스쿨을 비롯한 한국 걸그룹의 매력에 푹 빠져버림은 물론이다. 이날 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 힙합 음악 역시 젊은이들 사이에서 매우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더불어 음악은 물론 빅뱅이 입는 개성 있는 색채의 의상을 비롯한 스타일 또한 젊은 층 사이에서 연일 화제가 되고 있어 그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렇듯 한국문화의 매력에 흠뻑 빠진 인도네시아인들, 특히 젊은 층은 인도네시아-한국 주간 행사의 개최를 크게 반겼다. 수도 자카르타에서 열린

이 행사 주간에는 다채로운 문화교류행사로 꾸며졌다. 앞서 소개한 우정 페스티벌 콘서트를 비롯해 개막 행사로 열린 바틱과 한복 패션쇼에서는 작년에 유네스코가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한 바틱과 우리 드라마에 등장했던 화려한 한복 그리고 바틱천으로 만든 한복 작품이 등장했다.

패션쇼 이후, 현지언론에서는 한복을 가리켜 한류 드라마 열풍의 주역인 「겨울연가」를 연상시키는 서정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했다. 「식객: 김치 전쟁」(2010) 등 최신 한국영화 6편을 상영한 한국영화 페스티벌도 주목을 받았으며 인도네시아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배드민턴과 한국의 국기인 태권도가 친선경기로 펼쳐지는 등 스포츠 교류도 활발했다. 이외에도 농식품 홍보전, 한식을 소개하는 코너가 마련되어 식도락가들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무엇보다도 행사기간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행사에 참여한 인도네시아 관중의 폭발적인 반응. 문화포럼에는 많은 인도네시아 젊은이들이 참여했는데, 이를 두고 현지 언론에서는 한때 소수만이 심취해 있던 한국의 문화가 본격적으로 알려진 1990년대 말 시작된 한류의 시초와 인도네시아에서의 돌풍을 대서특필하며, 특히 드라마의 인기 요인, 한류를 홍보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행보, 한국 기업들의 한류를 이용한 시장성 향상 전략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심층 분석했다.

### 싱가포르 언론이 전하는 ‘한일관계 역전’<sup>1)</sup>(「Turning the tables on a former master」)

100년 전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이 현재 전 식민지배국 일본을 앞설 만한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 한때 일본이 주도하였던 산업에서 이미 일본기업을 앞서고 있다. 한국의 대중문화 또한 일본의 대중문화 전파를 능가하여 아시아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는데, 이러한 성공의 잠재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아직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있다.

10년 전 한국 정부가 드라마와 가수그룹의 대외수출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이래, 한국정부의 전략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으며, 현재 아시아 전반에 걸쳐 수백만이 한류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다. 한국에 대한 싱가포르의 사랑은 7년 전 「겨울연가」가 방영되면서 시작되었다.

현재 싱가포르인들이 즐기는 음식 중에 김치와 비빔밥이 꼽히고 있고, 지난달 청소년올림픽 개막 당시 정작 젊은이들은 같은날 개최된 한국가요 콘서트에 더 열광하였으며, 지난주 금요일에는 한국가요 콘서트 표를 구입하기 위해 3천 명이 몰려 경찰이 질서유지에 나섰다.

망가(만화) 등 일본문화도 여전히 인기 있으나, 한국과 일본의 문화수출 전략에는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다. 일본 가요는 일본적인 것으로 남아 있는 데 반해 한국은 다른 아시아 예술인들을 포함하면서 그 매력을 확산



하고 있다.

한국 연예기획사는 국적을 불문하고 가수 선발을 위해 국제오디션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슈퍼주니어와 2PM이 아시아에서 인기를 얻는 것도 중국인과 미국 태생 태국인(닉쿤)이 그룹 멤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한국기업들은 일본기업과는 다르게 한류 현상을 이용하기 위해 재빠르게 움직여 왔다. 한국 의류회사와 휴대폰 업체들은 신상품 진수식에 한국가수와 배우들을 이용하고 있다.

최근 일본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이 대중문화의 인기를 이용하는 데 실패한 것은 홍보노력이 3개 부서 이상으로 나눠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는데, 아마 일본은 한국의 문화수출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행정 재정비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과거 식민지 한국은 현재 아시아 전 지역에 걸쳐 현대적인 아시아의 매력에 대한 하나의 모범을 제공하는 데 일본보다 앞서나가고 있다.

한국의 영리한 마케팅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 중 하나인 지역경제학자 송선운(Soong Sun Wun)은 “일본보다는 한국경제가 아시아의 경제성장을 타고 상승할 것이라는 데 좀 더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정말 그렇다. 일본의 과거 식민지 한국은 아시아 전 지역에 걸쳐 현대적인 아시아의 매력에 대한 하나의 모범을 제공하는 데 앞서나가고 있다.

싱가포르 The Straits Times, 2010년 9월 8일

## 한류 드라마의 성공 요인

한국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것은 드라마가 달콤한 사랑 이야기와 정직과 노력으로 자수성가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잘 결합하여 시청자들의 감성을 사로잡는다는 지적들이 많다. 많은 열혈 팬들은 그네들이 모이는 온라인 게시판에서 배우가 아니라 ‘한국드라마 스타일’의 복잡하게 얽힌 사랑과 매력적인 줄거리들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구동성으로 많은 한국드라마들은 가족 간의 전통적 가치를 역설하고 있는데, 이 점이 아시아 시청자들에게는 문화적 동질감을 공유하게 하고 다른 국가의 시청자들에게는 편안한 가족 오락의 기능을 제공한다는 의견 또한 높다.

**가족 중심의 가치관** | 중국 칭화대의 홍반 교수(언론학)는 한국드라마 특유의 ‘정(情)’이 전 세계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2005년의 세미나에서 지적했다.

“한국드라마들은 일상의 삶과 가족 간의 문제에 대해 집중한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드라마들에 코드가 잘 맞는다고 느끼는 이유이다. 특히 우정이나 가족의 가치, 사랑과 같은 주된 테마들은 보다 넓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요소들이다. 그 점이 중국이나 다른 세계 곳곳의 나라에서 한국드라마가 호응을 얻는 중요한 이유이다.”

한국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것은 달콤한 사랑 이야기와 정직과 노력으로 자수성가하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잘 결합하여 시청자들의 감성을 사로잡기 때문이다.

홍반 교수는 그 밖에도 한국드라마들이 유교적인 전통 가치와 서양식 물질주의와 개인주의를 독특하게 결합한 스토리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나이 많은 세대의 시청자들에게는 한국드라마가 가족관계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기 핏줄을 존중하는 전통적 가치를 강조하는 부분이 어필하고 있다. 이는 급속한 사회 변화와 서구식 개인주의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시아 문화에 전통적인 가치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자극적이지 않은 스토리 전개** | 사랑과 가족, 우정과 같은 중심 테마 이외에 한국드라마들은 할리우드 드라마들에 비해 덜 자극적이라는 점이 꼽힌다. 이것은 보다 많은 연령대가 시청하고, 보다 더 많은 지역에서 - 심지어 중동 같이 보수적인 지역에서도 -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흥미롭게도 섹스에 관한 묘사 없이도 사랑을 표현하는 스토리는 한국드라마가 더 많은 미국 시청자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겨울연가」와 「가을동화」, 「천국의 계단」이 지역에 관계없이 보여준 인기에서 볼 수 있듯, 연애물은 여전히 그 중심에 존재한다. 이러한 연애물의 목적은 한국이나 다른 지역 상관없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따뜻함과 행복함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흥행에 성공했던 한국드라마들은 각본에 있어서 진부하거나 평범한 전개를 피하고 흥미로운 캐릭터들과 적절한 반전의 구조를 통해 시청자들의 흥미를 잡아 두었다.

**보다 단순한 스토리라인에서 오는 몰입과 감성의 힘** | 한국드라마들은 여간해서 미국의 드라마들과 같은 '시즌제' 형식을 따르지 않는다. 시즌제는 방송국들이 해당 드



성공한 한류 드라마는 외국 관광객 유치에도 큰 몫을 하고 있다. 「가을동화」 촬영지인 속초시 청호동을 찾은 동남아 관광객들이 '갯배'를 직접 끌어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라마들을 이듬해에도 계속 방송할지 여부에 대해 결정하고 시청률과 수익에 따라 종영 시기를 결정하는 구조이다.

일반적으로 한국드라마들은 특정 편수가 지정되는 형태를 띤다. 이 점은 스토리의 내러티브를 좀 더 간결하게 하고 중심 주제에 몰입시킨다. 미국 드라마는 작가의 집필 자유가 좀 더 보장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시리즈의 유연한 길이에 따라 전반적인 스토리 라인이 좀 더 자유롭고 실험적인 경향을 띤다. 이것이 바로 한국식 줄거리가 서

양이나 일본과 같은 아시아의 다른 드라마보다 더 감성적인 근거가 된다. 단지 사건 하나하나를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민감한 개인들 간의 변화하는 관계와 갈등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때문에 중국·홍콩·대만과 같이 한류 열풍의 직격탄을 맞은 지역의 시청자들은 종종 자국의 드라마가 한국드라마처럼 극적이고 감성적이지 않다고 말하곤 한다.

이러한 한국식 스타일의 정점에는 일본의 방송국 NHK에서 2004년 첫 방송을 한 이래, 드라마의 모든 것이 신드롬이 되어 버린 「겨울연가」가 있다. 「겨울연가」 효과는 2011년 7월 아사히신문의 한 기사에 잘 반영되어 있다.

“일본 여성들은 이제 부드럽고 덜 공격적인, ‘육식남’이 아닌 ‘초식남’과의 관계를 열망하고 있다.”

일본의 많은 DVD 대여점은 공간의 3분의 1을 한국산으로 채워놓거나, 아예 미국 드라마와 동등한 수준의 양으로 맞춰 놓는다. 혹자는 감정적으로 억제된 삶을 강요받는 일본 시청자들이 한국드라마들을 통해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특히 아시아와 중동의 시청자들에게 한국드라마를 통해 보이는 한국의 문화와 감성은 그 동안 그들이 보아온 할리우드의 그것보다 더 잘 전달이 되었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온 가족이 함께 드라마를 보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되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한국드라마에서 그럴 듯하게 묘사한 삶의 모습들은 미국 드라마 ‘가십 걸’ 같은 종류에서는 결코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드라마들은 밑바닥에서부터 열심히 노력하는 캐릭터를 보여주는데, 이 또한 드라마가 국제적 공감을 얻는 데 기여했다. 자수성가 스토리는 시대와 지역에 관계없이 감동 자체이기 때문이다.

**작품의 깊이를 더하는 한국의 ‘한’** | 한국드라마의 또 다른 특성으로, 한국인만의 ‘한(恨)’ 문화를 들 수 있다. 한은 한 개인이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서 슬픔과 후회, 분노, 복수심이 결합되어 자연스레 드러내는 것으로서, 한국인 이외에는 형언하기 어려운 강렬한 감정이다.

일부 학자들은 일제 치하의 식민통치나 한국전쟁 등 역사적으로 겪어온 고통을 고려할 때, 한이 한국인의 삶 곳곳에 있다고 지적한다. 물론 한이라는 개념은 「겨울연가」, 「대장금」, 「가을동화」 같은 국제적 인기를 누린 작품들에서 감정 요소가 작품의 깊이를 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면만 놓고 봐도 알 수 있듯 그 자체가 한국드라마의 감상을 방해하는 측면은 없다고 볼 수 있다.

## 전 세계 신한류와 소통하다

### K-Pop의 성공을 예견한 사람들

가수 싸이가 유튜브역사에 신화를 남겼다. ‘강남스타일’은 2012년 11월 24일(이하 한국시각) 오후 8억3백76만 뷰를 기록, 기존 1위였던 저스틴 비버의 ‘베이비(Baby)’ 뮤직비디오가 기록한 8억3백65만 뷰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 7월 15일 유튜브에 올린 지 1백33일 만에 거둔 대성과다. 저스틴 비버는 유튜브 1위를 기록하기까지 33개월이 걸린 반면 싸이는 4개월여 밖에 걸리지 않아 더욱 눈길을 끈다.

유튜브에서 최단 시간, 최다 조회수를 기록한 것이다. 이와함께 ‘가장 좋아하는 동영상’과 ‘최다 즐겨찾기 동영상’ 등에서도 1위를 기록, 명실상부한 유튜브 왕좌에 올랐다. ‘강남스타일’을 패러디한 패러디 영상도 1천만 건 이상 기록하며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이어오고 있다. 국내 가요 전문가들은 “싸이의 기록을 깰 가수는 당분간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싸이가) 현지화 전략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2011년 12월 7일 저스틴 팀버레이크, 레이디 가가, 브리트니 스피어스, 에이콘 등 세계적 팝 스타들을 배출한 뮤직 프로듀서들이 서울 강남에서 열린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 ‘월드 뮤직 아이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K-Pop을 극찬하며 글로벌 성공 가능성을 언급했다. 자니 화이트(화이트 엔터테인먼트 회장), 멜빈 브라운(론빅 뮤직 대표), 마틴 다드(소니뮤직 대표), 엔리케 플리도(캐피탈 레코드 부사장), 에드워드 스윈번(소스타 대표)이 이날 모인 프로듀서들의 면면이었다.

자니 화이트는 “원더걸스, 빅뱅 등과 같은 K-Pop 스타들의 공연도 관심있게 지켜봤다. K-Pop의 사운드와 스타일을 글로벌인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큰 가능성이 있다”

고 말했다.

레이디 가가 제작자인 멜빈 브라운은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은 미국을 통해야 글로벌 스타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K-Pop

에서 본 강렬한 에너지와

패션, 그리고 재미있는 요소들이 큰 가능성을 봤다. 이제 성숙한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한다”며 K-Pop의 성공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낙관했다.

2012년 4월 8일 살아 있는 팝의 전설 퀸시 존스가 방한했다. 그는 마이클 잭슨의 대표작 ‘Thriller’(1982년)와 자선 앨범 ‘We Are The World’(1985년)의 프로듀서를 맡았으며 그래미상 후보 79차례 지명, 수상 27차례를 기록했다. 자신에 대해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라고 전제한 후 한국에서 재즈·팝·힙합 아티스트 등 훌륭한 음악가를 많이 만났고 중국과 일본 등을 다녀왔는데 가히 한국 아티스트들이 ‘베스트’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K-Pop에 대해 그는 “안무, 표현 능력, 열정 등의 면에서 성공할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 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고 예견했다. 덧붙여 K-Pop이 성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서구 음악 팬과의 다양한 소통을 꼽았다. 그는 “인터넷, 유튜브, 다양한 매체에서 더 많은 관심을 끌어야 한다”면서 “1962년 비틀스가 미국에서 인기를 얻기 전에 만난 적이 있으며, 그들 역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대중과 커뮤니케이션



싸이가 미국 유명 토크쇼 ‘엘렌 드 제너러스 쇼’에서 팝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가운데)와 함께 말춤을 선보이고 있다.



을 하면서 크게 성공했다”고 밝혔다. 내로라하는 팝 전문가들의 K-Pop에 대한 예상이 현실로 나타나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았다.

2012년 7월 싸이가 6집 음반 ‘싸이6甲’을 냈을 때만해도 국내언론의 관심사는 타이틀곡 ‘강남스타일’이 국내음원 차트에서 정상을 차지한 데 집중됐다. 싸이 자신도 여세를 몰아 9월엔 일본시장에 진출하여 일본 버전 ‘롯분기(六本木) 스타일’의 미니음반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소박한(?) 희망사항을 밝혔을 뿐이었다. 어느 누구도 ‘강남스타일’이 ‘글로벌 스타일’이 되리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7월 15일 유튜브에 게재되면서 전 세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시작했다. 유튜브 조회수는 하늘 높을 줄 모르고 치솟았으며 유명인들도 잇따라 SNS를 통해 감상을 전했다. 영국가수 로비 윌리엄스는 7월 28일(현지시각) 자신의 공식 사이트에서 “이걸 보고 웃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스틴 비버의 매니저 스쿠터 브라운은 트위터에 “내가 왜 그(싸이)와 계약하지 않았을까”라는 내용의 뮤직비디오 후기를 올려 관심을 모았다. 심지어 ‘You Raise Me Up’을 부른 조시 그로번도 트위터에서 “우린 강남스타일 세상에 살고 있다. 놀라운 비디오”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전무후무할 파격에 힘입어 8월 3일에는 일찌감치 유튜브 조회수 1천만 건을 간단히 넘겼으며 해외 매체들의 보도도 잇따랐다.



지구촌의 '강남스타일' 열풍을 다룬 각국의 매체들.



# MAXIMUM EXPOSURE

## STARRING PSY

For the cover of our 19th annual Maximum Exposure list we chose K-pop behemoth PSY, because of turning a party dance (and a half billion YouTube views) into a worldwide craze that resonates globally to the maximum. What is? The goal of our annual survey of labels and music publishing executives, as well as top KOs for K-pop, is to uncover the most effective ways of building buzz and generating sales. We turned to regional experts to rank the most powerful platforms to take music,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as well as top KOs for K-pop, hip-hop, country, dance, Christian/gospel and hard rock. We'll get to the items in just a moment, but PSY is the first to learn from the master of exposure himself.



# K-POP'S WILD STALLION

MORE THAN 500 MILLION YOUTUBE VIEWS LATER, PSY IS A GLOBAL POP PHENOMENON AND THE UNEXPECTED FACE OF A KOREAN MUSIC INDUSTRY THAT'S BEEN LOOKING FOR AN INTERNATIONAL VOICE FOR YEARS. BUT NOW THAT PSY'S A STAR, WHERE DOES K-POP GO FROM HERE?

BY SONNIE KWAN

**O**n the afternoon of Aug. 15, the message PSY and his entourage had sent was clear: PSY is not just a Korean pop star; he is a global phenomenon. The 35-year-old singer, who has sold more than 1 million copies of his debut album, "Gangnam Style," is now the most popular Korean artist in the U.S. and the most popular Korean artist in the world. PSY's success is a testament to the power of social media and the internet. His music, which is a mix of hip-hop, funk, and pop, has resonated with a wide audience of young people around the world. PSY's success is a testament to the power of social media and the internet. His music, which is a mix of hip-hop, funk, and pop, has resonated with a wide audience of young people around the world.

## MAXIMUM EXPOSURE

### OFF THE HOOK!

**SOUTH KOREA'S EXPLOSIVE MOBILE MARKET PROVIDES A GREAT PLATFORM FOR MUSIC SALES. BUT WHAT NEXT?**

South Korea is the most advanced mobile market in the world. With a penetration rate of 100 percent, the country is a leader in mobile phone usage. This has led to a boom in mobile music sales, with many artists releasing new tracks exclusively for mobile devices. The Korean music industry is looking for ways to leverage this market to reach a global audience. PSY's success is a testament to the power of social media and the internet. His music, which is a mix of hip-hop, funk, and pop, has resonated with a wide audience of young people around the world.

South Korea's mobile market is a key factor in PSY's success. The country's high mobile phone usage has allowed artists to reach a large audience of young people. PSY's music, which is a mix of hip-hop, funk, and pop, has resonated with a wide audience of young people around the world. The Korean music industry is looking for ways to leverage this market to reach a global audience. PSY's success is a testament to the power of social media and the internet. His music, which is a mix of hip-hop, funk, and pop, has resonated with a wide audience of young people around the world.



PSY's success is a testament to the power of social media and the internet. His music, which is a mix of hip-hop, funk, and pop, has resonated with a wide audience of young people around the world. The Korean music industry is looking for ways to leverage this market to reach a global audience. PSY's success is a testament to the power of social media and the internet. His music, which is a mix of hip-hop, funk, and pop, has resonated with a wide audience of young people around the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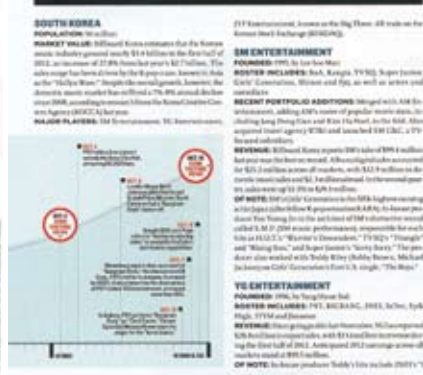
PSY's success is a testament to the power of social media and the internet. His music, which is a mix of hip-hop, funk, and pop, has resonated with a wide audience of young people around the world. The Korean music industry is looking for ways to leverage this market to reach a global audience. PSY's success is a testament to the power of social media and the internet. His music, which is a mix of hip-hop, funk, and pop, has resonated with a wide audience of young people around the world.



# K-POP PRIMER

ASIA'S HOTTEST MUSIC MARKET AT A GLANCE

BY KIM EUN-JO AND JESSICA DAN



## FAR EAST MOVEMENT

**U.S. ACTS UNCLE SAMMY MAKE SOUTH KOREA A HOT SPOT FOR ANY ASIAN SINGER**

As the K-pop industry continues to grow, it is attracting more attention from the U.S. market. Many K-pop artists are now performing in the U.S., and their music is being sold in large quantities. This is a testament to the power of social media and the internet. PSY's success is a testament to the power of social media and the internet. His music, which is a mix of hip-hop, funk, and pop, has resonated with a wide audience of young people around the world.

The K-pop industry is looking for ways to reach a global audience. PSY's success is a testament to the power of social media and the internet. His music, which is a mix of hip-hop, funk, and pop, has resonated with a wide audience of young people around the world. The Korean music industry is looking for ways to leverage this market to reach a global audience. PSY's success is a testament to the power of social media and the internet. His music, which is a mix of hip-hop, funk, and pop, has resonated with a wide audience of young people around the world.

빌보드의 'K-Pop' 특집. 한국문화의 달라진 위상을 확실히 보여줬다.

## 세계를 강타한 '강남스타일'

미국의 온라인 매체 허핑턴 포스트(Huffington post)는 2012년 8월 2일 “싸이의 강남스타일: 거부할 수 없는 중독성 강한 케이팝 스타의 귀환(PSY's 'Gangnam Style: K-Pop Star's Viral Comeback Is Impossible To Resist)”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다. CNN도 3일 “강남스타일은 유튜브 베스트 뮤직비디오로 인기를 얻고 있다. 이제 아시아를 넘어 미국에서도 큰 관심을 얻고 있다”며 급속한 확산을 전했다. 티제인, 로비 윌리엄스 등 세계적 스타들 또한 트위터에 강남스타일 뮤직 비디오를 공개했다. ‘롯본기스타일’로 일본 버전을 내놓으려던 계획은 없던 일이 됐다. 지역을 불문하고 강남스타일로 나가기로 결정했다.

시사주간지 타임 인터넷판은 8월 15일 ‘보세요: 최고의 투명한 말타기 랩 비디오, 싸이의 강남스타일(WATCH: PSY's 'Gangnam Style' Is the Best Invisible Horse-Riding Rap Video You'll

See All Week)’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강남스타일과 괴상하면서도(weird), 정말 볼만한(wonderfully watchable) 뮤직비디오는 싸이의 공인된 히트작이 됐다”며 “싸이가 인터넷에서 일약 슈퍼스타로 발돋움하면서 유명 스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력 언론과 유명스타들의 극찬은 광고를 능가하는 폭발적인 확산으로 이어졌다.

‘질풍노도(Sturm und Drang)’의 기세는 계속 진행형이다. 9월 10일에는 유튜브 조회수 1억3천만 회를 기록했다. 같은 조회수에 이르기까지 레이디 가가의 ‘Poker Face’는 약 3년이 걸렸으며 저스틴 비버의 ‘보이 프렌드’는 약 3개월이 걸렸다. 싸이는 58일 만에 해치웠다. 9월 18일 싸이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Got 200 million views! Thanks everybody! 2억 뷰 달성!”이라는 글로 국내외의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공개 66일, 조회수 1억을 달성한 지 14일 만에 조회수 2억6백만여 건을 달성하는 기염을 토했다.

강남스타일 단 한곡으로 7주 연속 빌보드차트 2위를 차지한 것도 놀라운 일이다.





'강남스타일'은 MTV 유럽뮤직 어워드에서도 한국 가수로는 처음으로 '베스트 비디오' 부문상을 수상했다.  
 <사진 전한 코리아넷 기자>

해체된 지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랑을 받고 있는 스웨덴 그룹 아바(ABBA)의 수많은 히트곡 중 빌보드 싱글차트에서 1위를 한 것은 '댄싱퀸' 단 한 곡 뿐인 사실을 감안하면 믿어지지 않는 기록이다.

아시아 출신 뮤지션으로서 싸이는 50년 전인 1963년 사카모토 규(坂本九, 1941~1985)가 부른 'Sukiyaki(스키야키)'는 빌보드 핫 100에서 3주 연속 1위를 기록한 이래 새로운 경지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스키야키'는 아시아권에서 빌보드 싱글차트 1위에 오른 최초이자 마지막 곡으로 1961년에 출시된 '위를 보며 걷자(上を向いて歩こう)'를 1963년 미국에서 '스키야키'라는 제목으로 바꿔 부른 노래다. '스키야키' 또한 일본어로 불려져 '전설'로 불려 왔다.

한국 가수 중 단일 콘텐츠로 유튜브 조회수 2억 회를 기록한 아티스트는 싸이가 최초다. 비서구권인데다 한국어 노래로서는 새로운 역사를 연 것이다. 강남스타일은 유튜브 유저들의 '가장 좋아하는 동영상 차트'에서도 팝가수 저스틴 비버를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지난 9월 15일 현재 미국 아이튠즈 'TOP SONGS 차트' 1위에 등극했으며, 이어 캐나다·아르헨티나·체코·네덜란드·뉴질랜드·노르웨이·리투아니아·파라과이·페루·슬로바키아·홍콩·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대만·태국 등 18개 국가의 아이튠즈 차트에서도 1위를 휩쓸었다. 빌보드 싱글차트 2위까지 오르며 한국 대중가요의 역사를 날마다 새롭게 쓰고 있다.

한국 가수로서 빌보드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던 가수는 김범수. 그의 히트곡 '하루'의 리메이크 버전 '헬로 굿바이 헬로'로 2001년, '핫 싱글즈 세일즈' 차트 51위에 올랐으나 메인 차트는 아니었다.

영국차트는 빌보드에 비해 지역색이 강하다. 역설적으로 비영어권 출신의 영국차

트 1위가 지니는 무게는 엄청난 성과임을 보여주는 것. 싸이 이전 영국차트에서 1위를 한 아시아 가수는 1963년 사카모토 규, 2010년 필리핀의 체리스 웹핀코 등 손에 꼽을 정도였다. 강남스타일은 2012년 10월 5일에는 유튜브 조회수 3억6천9백만 회를 넘어서며 뮤직비디오 공개 83일 만에 ‘가장 많이 본 동영상’ 톱10에 진입했다. 앞서 ‘가장 좋아하는 동영상’ 부문에서 세계 최대의 ‘좋아요’(10월 5일 현재 3백47만 개)를 기록하며 기네스북에 올랐다. 76일 만에 3억 뷰에 도달하는 세계 최단 기록도 수립했다.

이에 대해 한류연구소 이선아 연구원은 “3억 뷰를 돌파한 동영상이 강남스타일처럼 매일 1천만 뷰라는 조회수를 기록한 동영상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 깨지기 힘든 기록”이라며 “더욱이 오리지널 뮤직비디오와 패러디, 공연, 네티즌 반응 등 강남스타일 관련 동영상들의 실질 총 조회수(True Reach)가 하루 3천만 뷰라는 것은 기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싸이 열풍은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2012년 10월 16일 호주 시드니를 방문한 이후 현지의 유력 일간지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2012년 10월 21일 ‘한식 매출에 미친 강남스타일의 영향(Gangnam Style now moves to the stove)’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강남스타일의 호주 내 빅히트와 싸이의 방문으로 호주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한식의 인기도 올라가는 추세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호주 방송 SBS의 유명 요리 프로그램 진행자 메이브 오페라가 “강남스타일 열풍으로 한식에 대한 호주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식은 맛 좋고 건강에도 좋은 음식”이라고 언급했고, 호주 양대 슈퍼마켓 체인인 콜스(Coles)의 애나 켈리 대변인은 “최근 한식 재료를 찾는 고객들이 크게 늘었다”며 “강남스타일 열풍이 호주의 슈퍼마켓에까지 불어 닥치고 있다”고 전했다. 그동안 한식은 호주에서 일식이

나 중식, 태국식, 베트남식, 레바논식 등 다른 음식에 비해 그다지 대중적인 인기를 끌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레스토랑 예약 온라인 사이트 ‘디미’ 최고경영자인 스티븐 프레뮤티코는 “한국 식당 예약률이 전년보다 50%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렇듯 강남스타일은 한국가요사는 물론 팝의 역사를 통틀어 이례적으로 기억될 만한 ‘미지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한류, 신한류를 넘어 K-Pop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줄 강남스타일이 시사하는 의미는 지대하다.

첫째, 강남스타일은 해외 프로모션을 통해 소개된 가수가 아님에도 전 세계에 알려졌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프로모션 없이 유튜브와 SNS로 성공한 사례로 인위적인 마케팅이나 홍보 없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기존의 K-Pop 뿐만 아니라 서구에서도 찾아보기 드문 사례이며 K-Pop의 영역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둘째, 메이저 언론매체, 거대 매니지먼트사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접 소통에 성공했다는 점이다.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의 복합적 위력을 보여준 사례였다. 오늘날 소비자는 생산자도 겸한 적극적 소비자다. 팬 라이팅(Fan Writing)으로 불리는 리액션이나 패러디 영상이 강남스타일의 변형버전을 무수히 확대재생산하면서 전 세계를 덮쳤다.

셋째, 한국어로 불려진 노래가 전 세계에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물론 아시아, 동남아를 경유하여 확산하는 기존 K-Pop의 유통경로와는 확연한 차별을 그었다.







## ‘놀자판’과 싸이

1천8백 년 전의 중국 역사가 진수는 우리의 선조들이 “밤낮 길에서 노인과 아이 없이 모두 노래를 부르다 보니, 종일 소리가 끊이질 않았다”고 기록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모여 노래와 춤을 즐기며, 손과 발을 조화롭게 놀리며 제자리에서 발을 구르며 뛰며 논다고 덧붙였다.

진정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하! 모두의 축제  
서로 편가르지 않는 것이 축제  
소리 못 지르는 사람 오늘 술래  
다같이 빙글 빙글 강강수월래……

‘강남스타일’로 세계를 열광케 하고 있는 싸이가 10년 전 작사작곡을 하고 부른 노래 ‘Champion’의 일부분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강강수월래’는 남녀노소가 모두 모여 빙글빙글 돌며 흥겹게 노는 한국의 전통군무다.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챔피언’이란 그의 말대로 전 세계가 강남스타일에 흥겨워하고 있다.

2012년 10월 4일 밤 10시 서울광장. 가수 싸이가 등장했다. 싸이가 오기 훨씬 전 남녀노소들은 무대 주위에 자리를 잡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10만 명의 관중이 구름 떼처럼 몰렸다. 그는 한국사람이 얼마나 잘 노는지 세계에 보여주자며 관객과 함께 ‘놀자판’을 시작했다. 관중과 그는 환희의 절정에 올랐고 세계는 그들의 모습에 열광했다. 앙코르를 주문하는 관중에게 오히려 관중의 노래를 감상하고 싶다고 부탁했다.



싸이의 서울광장 공연 동영상 전 세계 조회건수. 재외공관 수보다 훨씬 많은 220개국에서 동영상을 감상했다.

본명이 박재상인 싸이는 1977년 12월 31일 서울 강남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초중고교 모두를 강남에서 마쳤다. 전형적인 ‘강남 키드’다. 고교 시절 오락부장, 응원 단장, 학교축제 MC, 방송반 아나운서 등을 도맡으며 남 앞에 나서는 걸 좋아했다. 야구장이나 유세장에 모인 군중을 보면 피가 끓었다. 나이트클럽을 안방처럼 드나들었다. 반도체사업을 하는 부친은 그가 사업체를 물려받길 원해 미국 보스턴대 상경대에 진학시켰다. 그러나 미국 가서 보따리를 풀자마자 자퇴했다. 학비를 받아서 악기를 샀다. 1년을 준비해서 버클리음대에 입학했으나 이내 그만두고 가수생활을 시작했다.

2001년 1월 첫 음반 ‘PSY... From the Psycho World’를 내면서 데뷔했다. ‘나 완전히 새됐어’라는 도발적이고 과격적인 노래 ‘새’를 앞세운 싸이의 등장은 사건이었다. 당시

대중문화의 주요 소통창구였던 PC통신, 그리고 문화계를 휩쓸던 ‘엽기코드’와 맞물리며 그는 ‘엽기가수’라는 이름으로 대중을 사로잡았다. 거침 없고 솔직한 노랫말은 기성사회의 권위주의와 엄숙함, 이중적 모습을 통렬히 꼬집고 난도질했다.

근사한 외모와는 거리가 먼 그는 토속적이면서도 진지한 얼굴, 아저씨 똥배, 두부살 같은 팔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동네 나이트클럽을 연상시키는 반짝이 의상에 쇠사슬 같은 목걸이를 한 채 바지가 터지도록 몸을 흔들며 포복절도할 춤을 추고 펼쩍 펼쩍 뛰어다니는 그를 표현할 단어는 ‘엽기’ 말고는 딱히 없었다. 그럼에도 라이브공연에서 가장 사랑을 받았다. 객석으로 뛰어들어 강렬한 퍼포먼스와 함께 하는 열창은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다. 그는 “잘 만들어진 완벽한 영상보다는 현장의 라이브를 제대로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2002년 3집 ‘3마이(싸구려라는 뜻의 속어)’의 타이틀 곡 ‘챔피언’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고 그를 성공의 길로 이끌었다. 싸이는 ‘챔피언’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했다.

“월드컵 공연을 하며 꽉 막혀 있던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는 것을 보았다. 축구 없더라도 신나게 한번 놀아 보자는 내용이다.”

일각에선 그의 성공이 모처럼 만난 행운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싸이는 “노력이 기회를 만나면 운이 된다”고 설명한다. 분명 그의 성공은 이전의 K-Pop 스타들과는 차별적이다. 유튜브를 통해 전해진 뮤직비디오 한 편이 그를 전 세계에서 부르고 있는 것이다. 줌처럼 만나기 어려운 이변을 우리는 현실에서 목격하고 있다.

### 시각적 음악: K-Pop의 숨은 힘 발굴, 최대 약점 극복한 ‘강남스타일’(Visual music: How ‘Gangnam Style’ exploited K-Pop’s secret strength and overcame its biggest weakness)

미국인들은 특히 글로벌시장에서 자국 음악과 경쟁하는 외국 음악에 익숙해 있지 않다. 때문에 미국 음악차트에 돌출한 한국의 ‘강남스타일’은 그들에게는 경종과도 같은 것이었다. 한국의 팝 뮤직은 여러 해 동안 동아시아에서는 호황을 누려왔고, 그것은 성공적 한국 뮤지션들의 규모와 부가이웃 일본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주목할 만한 일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음악 회사들은 어떻게 그것을 달성하고 있을까? 한국 음악산업 성공의 일부는 바로 ‘산업’이라는 데서 기인한다. 뮤지션들은 꼼꼼하게 다듬어지며, 가요는 세심한 공식으로 구성된다. 모든 것이 양산체제로 가공된다.

뉴욕커지 존 시브루크 전문기자는 작곡가의 국적에서 아이새도 색깔과 손짓에 이르는 모든 것이 공식과 프로토콜에 의해 사전 결정되는 공장식 시스템을 일컫는 ‘문화공학’(cultural technology) 개념을 설명했다. 시브루크는 예의 문화공학은 “서구사회 관점에서는 너무나도 로봇적인” 음악을 생산하며 - 미국인들에게는 음악의 고통스러운 정도의 진지함을 전달하



지도 못하며 - 따라서 K-Pop이 서구시장에서 히트하기까지는 실로 오랜 고투를 겪어 온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면 문화공학 시스템의 소산인 K-Pop 가수가 작사·작곡·공연한 강남스타일이 미국에서 깜짝 성공을 거둔 점과 강남스타일이 상권을 벗어난 측면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주인공은 전형적인 동포 K-Pop 스타들보다 나이는 더 많고 외모는 덜 매력적이며 태도는 더 냉소적이다.

싸이는 어떻게 문화공학의 성공을 유리하게 활용함과 아울러 - 그는 미국인들이 진짜 K-Pop 방식으로 그의 말춤을 따라하고 그의 동영상에 반하게 만들었다 - 서구시장 진출을 방해해 온 K-Pop의 '로봇적'인 측면을 극복했을까? 답은 주로 불과 몇십 년 만에 농경독재를 선진 민주체제로 전환시킨 한국 '경제기적'의 타이밍과 관련된다. 한국은 국민의 음악소비 양상에 변화가 일고 있던 시기에 대형 국내 음악산업을 충분히 뒷받침할 정도로 부유해졌다.

NPR의 조 찬스는 흥미 있는 '플래닛 머니' 팟캐스트 블로그에서, 이것은 한국의 팝 뮤직이 MTV 시대와 그보다 조금 늦은 유튜브 시대에 성년을 맞았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음악 산업은 라디오와 축음기 시대에 태동해 그들 기술(아직도 유효한)을 우선해 발전과정을 밟아 나간 반면 한국의 그것은 동영상 위주로 성장했다.

“처음부터 한국의 신곡은 라디오가 아니라 전국 TV를 타고 데뷔했다. 한

국민들은 국내 팝 뮤직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순간, 스크린을 통해 그것을 시청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들은 음악을 (듣기보다는)보는 것이다.” 찬스는 플래닛 머니 블로그에서 그렇게 분석했다. 이런 관점은 시브루크 설명과 일맥상통한다. 그는 '한국의 음악사가들'이 전국적 TV 스크린을 탄 보컬그룹 '서태지와 아이들'의 1992년 공연을 폭넓게 지적한다.

이 같은 유산은 한국의 음악 회사들이 미국 회사들과는 달리 라디오와 CD보다는 TV에 치중하도록 만들었다고 찬스는 지적한다. 아티스트들은 TV용으로 다듬어졌으며, 가요들은 동영상으로 보기 좋게끔 선정됐다. 유튜브 시대가 오면서 한국 팝은 유례없이 글로벌시장을 점령할 유리한 입지를 갖추고 있었다.

“한국은 세계에서 초고속 통신망이 가장 발달한 나라에 속한다”고 찬스는 설명한다. “일찌감치 발전 초기단계에 레코드 라벨은 유튜브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했고 그들은 완벽하게 이를 해냈다. 한국 레코드 라벨의 유튜브 동영상은 매우 좋았기 때문에 수많은 관중을 끌었다.”

K-Pop이 유례없이 그리고 특출하게 동영상 지향적이라는 이론은 강남스타일이 업계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납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어쨌거나 강남스타일은 미국에서 처음엔 노래 그 자체 때문이 아니고 미국인들을 어리둥절하고 재미있게 만든 동영상 때문에 주목을 끌었다. 그 노래를 K-Pop 아웃라이어로 만든 요소들은 - 풍자적인 바보동작과 체

제전복에 가까운 자조적 행동 - 해당 장르의 전형적 진지함과 건전성과는 정반대이며, 따라서 그 점은 미국인들에게 그게 아니었다면 또 하나의 특이한 외국 팝송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할 이유와 아울러 그 캐치후크(catchy hook)를 즐겨도 좋다는 허기증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정확히 그것은 처음에는 히트작 팝송이라기보다는 바이러스성 동영상 취급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 노래가 차트의 사닥다리를 오르고 라디오 방송을 타며 아이튠즈에 다운로드 되는 등 전통적 미국 스타일로 성공하기 시작한 것은 뮤직비디오가 유튜브를 타고 바이러스처럼 대거 유포된 연후의 일이었다.

싸이의 팝송은 무엇인가 할 얘기를 갖고 있으며 바이러스성 비디오의 등장인물은 당초 K-Pop 초심자들이 특별히 피하고자 했던, 복잡하고 불안정한 인상을 풍긴다. 이들 특성은 한국의 뮤직산업 경영진이 그들의 문화공학 공단으로 접목시키기에는 쉽지 않은 것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시도할 것이라고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Washington Post 블로그, 2012년 10월 19일자, Max Fisher

## 한국어로 불리는 미래의 팝

한국의 상업적 리듬은 올해 가장 놀라운 뮤직트렌드로 장식되고 있다. K-Pop 열풍은 달콤한 'dance-Pop'으로 아시아를 정복하고 이제 미국에까지 확산되고 있다.

한 남자가 단호한 표정으로 마구간에 들어온다. 수십 마리의 말들은 이 불살이 많은 가수가 갑자기 역동적으로 발을 구르면서 '말춤'을 추는 것을 쳐다본다. 가수 사이의 모습은 여름에 어울리긴 하지만 뭔가 우스꽝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독성 있는 노래는 아시아와 미국에 널리 퍼져 어깨와 엉덩이를 흔들며 걷는 '말춤'을 추는 사람들을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소녀시대나 원더걸스, 슈퍼주니어, 동방신기와 같은 아이돌 그룹은 전 세계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사인하고, 미소로 인사한다. 그들이 벌어들이는 액수는 지난 10년간 침체기를 겪고 있는 음악산업에 동요를 일으킨다. 일례로, 최근 빅뱅은 유럽 MTV에서 최고의 그룹으로 선정되었으며, 2008년부터 연간 약 2천만 유로를 창출하면서, 1천만 장 판매를 기록한 음반이 여러 장이다.

공식은 단순하지만 효과적이다. 댄스풍 리듬에 유아틱한 작곡으로 귀에 익숙하고 쉽게 기억되도록 한다(Photoshop의 sugar Pop과 R&B 중간).

블랙코미디적 유머가 충분히 가미되어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에로티시즘 또한 빠지지 않는다.

눈에 떨 만큼 서구로 넘어 온 건 올해였지만, K-Pop 붐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한국은 20년간 지속적으로 국제 팝음악을 대체하고 있다. 아시아 주변국, 특히 경이적인 음반 판매량을 보이는 일본을 통해 처음으로 인기를 느꼈다. 마침내 이 끈질긴 산업은 그들의 꿈이었던 날씬하고 매력이 넘치는 가수들을 수출하게 되었다.

매일같이 관련 기사가 나온다. 전설적인 프로듀서 퀸시 존스가 K-Pop을 칭찬했고, 또 다른 유명인사인 패리스 힐튼이 김장훈의 뮤직비디오에 나오길 원한다. 케이티 페리, 넬리 퍼타도, 저스틴 비버 등이 강남스타일에 관심을 보였다.

오바마는 그의 세번째 한국 공식방문 시 “전 세계인들이 ‘Korean wave’에 매료된 것은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Korean wave는 작고 인구밀도가 높은 이 나라의 문화확산을 명명하는 것이다. K-Pop은 한국드라마와 함께 한류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며, 이에 한식과 영화 또는 애니메이션 시리즈가 더해지고 있다. 한국인들은 이를 ‘한류 Hallyu’라고 부르며, 다양한 연구들은 이 문화폭발이 브랜드 한국 수출에 있어, 특히 기획사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줬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략) 화려히 나타났다 사라지는 가수들의 경우 계약상 피해를 입거나, 과도

한 스케줄에 시달리는 등 비판이 있다. 이것이 젊은이들을 위한, 젊은이들에 의해 즐거움과 여흥, 사랑을 이용하는 행복산업의 어두운 면이다. 그럼에도 아주 잘 팔린다.

수백만!

거의 모든 K-Pop 노래들은 숫자 오른쪽에 0을 6개를 붙이며, 다양한 그룹들은 그들의 싱글앨범 판매량을 백만 장으로 추측한다. 동방신기의 팬클럽 가입자 수는 80만 명으로 가장 많다. 빅뱅의 멤버들은 각 개인별로는 한 편의 광고마다 백만 유로 정도를 받는다. K-Pop의 성공은 인터넷을 통한 전략으로 설명되는데, 특히 유튜브와 페이스북의 공이 크다. 최근의 놀라운 예로는 45일 만에 6천7백만 조회 수를 돌파한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있다.

스페인 일간 El Mundo, 2012년 8월 29일자

## 작지만 당찬 K-Movie의 힘

2012년 9월 5일 제69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 출품한 김기덕 감독의 「피에타」. 이탈리아 주요 언론매체들은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관심을 보였다.





영화 「피에타」로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하면서 세계적 거장의 반열에 오른 김기덕 감독과 이를 평가한 이탈리아 Corriere della Sera 지(오른쪽).



- 냉혹하게 (la Repubblica)
- 돈, 광기, 미켈란젤로: 구원의 길 (Corriere della Sera)
- 영화 「피에타」, 자본주의로부터 구원될 것이다 (la Stampa)
- 극한의 자본주의를 고발하는 김기덕의 잔혹함 (Il Tempo)
- 김기덕, 돈의 위력을 말하는 공포스런 비유 (Il Messaggero)

사흘 후인 9월 8일 「피에타」는 한국영화사상 최초로 제69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최고의 작품에 주는 황금사자상을 수상했다. 베니스영화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영화제로, 프랑스의 칸국제영화제, 독일의 베를린국제영화제와 함께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힌다. 정작 국내에선 순제작비 1억5천만 원을 들인 이 영화가 황금사자상을 수상하기 전까지 국내의 관심은 미미했다.

수상에 앞서 9월 5일 현지의 유력지 Corriere della Sera의 주세피나 마닌(Giuseppina Manin) 기자는 ‘돈, 광기, 미켈란젤로: 구원의 길(Denaro, follia, Michelangelo: la via della redenzione)’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피에타」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유력한 황금사자상 후보라고 예상하며 다음과 같은 기사를 썼다.

“하수구가 보이는 길가에 제일 먼저 철거될 듯한 마치 동굴 같은 어둡고 허스름한 낡은 판자촌이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다리가 잘려나가고 손이 으깨어지는 고통을 주면서 이자를 몇 배로 불러 돈을 빌려주는 사채업체 직원인 고집스런 인상의 ‘강도’라는 이름의 한 청년이 있다. 이는 한국 컬트영화 작가인 김기덕 감독의 18번째 영화 「피에타」의 끔찍한 장면이다.

어제 상영된 이 영화는 경쟁작품 중에서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았고 이어 곧바로 황금사자상 유력후보로 떠올랐다. 일반적인 그의 스타일처럼 폭력적이고 잔인한 줄거리이지만, 감동을 주며 냉혹한 영혼의 소유자조차도 예기치 않은 감정의 동요를 일으켜 놓는다.

세계 11대 경제대국이자, 급속한 성장을 꿈꾼 한국의 대수도, 서울의 고층건물 사이에 자리 잡아 가장 타락해 있는 인간지옥의 그곳조차도 관객들에게 감동을 던져준다. 감독은 ‘그 구역이 실제로 존재한다. 난 그곳을 잘 안다. 15세, 20세까지 그곳에서 살았고 그곳에서 노역자처럼 일했다. 그곳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의 명성을 떨치게 한 전력과 정보통신산업 발생지이자 우리나라 발전의 시초가 되는 곳이다. 역사가 가득한 아날로그적 도시공간에 비해 주인공 인물들은 뿌리도 추억도 없는 디지털적 존재이다. 조만간 그곳은 철거될 것이고 그 자리에는 어김없

이 대형 건물들이 들어설 것이다. 아직까지는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한 혼적과 성장을 위해서는 가장 힘없는 이들의 피를 빨아들여야 하는 극단적 자본주의 논리가 잔재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돈, 인생,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 같은 질문들은 김기덕 영화에서 끈질기게 되묻고 있다. 사회적, 도덕적 비참함을 확대시키는 경제금융 시스템의 변이를 강하게 고발하고 있다. 그는 ‘이 영화에서 돈은 제3의 인물이다. 돈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모든 것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명확히 말했다.

이 같은 모순을 폭발시킨 사람은 어느 날 주인공 청년의 어머니라고 주장하는 연약한 모습의 한 여인이 문을 두드리면서부터이다. 어린 아이였던 그를 버리고 이제 후회하는 어머니가 용서를 구하고 싶어서이다. 거부, 모욕 그리고 폭력까지도 받아 줄 준비가 되었다.

이 청년은 다리를 벌리면서 ‘만약 이 안에서 나왔다면 그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다’고 고함을 지르며 그녀와의 어떤 연결고리도 부정하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그녀는 요리를 준비하고 방을 정리하며 편히 잘 수 있도록 팔까지 뻗쳐 준다. 이리하여 그녀는 점점 그에게 본질적인 존재로 다가온다. 그러나 주인공 강도가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가족의 존재를 발견했을 때, 엄마가 사라져 버렸다.

어느 날 공포에 떠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들려오자 고함을 지르며 도움을 청하는 장면은 숨을 죽이게 만든다. 그는 그가 고통을 줬던 사람이 그에게 복수하려고 엄마를 납치했을 거라고 생각하며 정신없이 그녀를 찾아 헤맨다. 결국 그는 엄마를 구하기 위해 자신이 했던 그대로 고문을 당하기로 마음먹는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잔인한 고문은 피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이다.

감독은 '영화의 제목은 바티칸의 미켈란젤로 동상을 보고 느꼈던 감동을 떠올리며 정했다. 십자가 위에서 죽은 아들을 껴안은 어머니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동감할 수 있는 고통의 표징이다'고 설명했다. 가톨릭 전통의 상징적인 이미지라는 것에 대해 '그렇다. 내 영화는 희생, 동정, 구원의 개념을 대변하는 것으로 완전히 가톨릭적이지만 나는 다양한 종교 탐색을 좋아한다. 영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은 불교적이고 영화 「사마리아」는 기독교적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에 장애인 교회에서 설교를 한 적 있으며 아직도 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신앙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그는 '전 세계가 비정상적인 경제시스템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낳고 인간성 상실이라는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한 것을 마주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은 서로서로 비슷한 면을 갖고 있으며 이는 우리의 본성이다. 또한 「피에타」는 희망이다. 희망을 믿지 않았다면 이 영화를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Corriere della Sera, 9월 5일자, 42면

유수의 세계 영화제나 스크린에서 한국 영화인이 레드카펫에 서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닌 일상이 됐다. 이병헌(G. I. Joe, 2012), 비(Ninja Assassin, 2009), 김윤진(Lost, 2004~2010), 전지현(Blood: The Last Vampire, 2009) 등은 할리우드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최근에는 배두나까지 진출, 톰 행크스, 할리 베리 등과 「클라우드 아틀라스」에서 주요 배역을 맡았다. 「반칙왕」, 「조폭 마누라」, 「시월애」 등 한국영화를 리메이크 한 작품들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한국영화가 세계무대에서 평가를 얻기까진 지난한 시간이 걸렸다. 지난 1970년대는 권위주의 체제라는 시대적 상황으로 반공, 검열 등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

주요 국제영화제에서의 한국영화 수상 실적

영화제	연대	작품(감독)	수상 내역
베를린영화제	1961	마부(강대진)	은곰상(감독상)
베니스영화제	1987	씨밭이(임권택)	여우주연상(강수연)
몬트리올영화제	1988	아다다(임권택)	여우주연상(신혜수)
모스크바영화제	1989	아제아제 바라아제(임권택)	여우주연상(강수연)
로카르노영화제	1989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배용균)	최우수영화상
낭트영화제	1990	그들도 우리처럼(박광수)	여우주연상(심혜진) 심사위원특별상
몬트리올영화제	1991	은마는 오지 않는다(장길수)	감독상 여우주연상(이혜숙)
상하이영화제	1993	서편제(임권택)	감독상 여우주연상(오정해)
낭트영화제	1994	장밋빛 인생(김홍준)	여우주연상(최명길)
몬트리올영화제	1996	학생부군신위(박철수)	예술공헌상
밴쿠버영화제	1996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홍상수)	대상
밴쿠버영화제	1997	초록물고기(이창동)	대상
칸영화제	2002	취화선(임권택)	감독상
베니스영화제	2002	오아시스(이창동)	감독상 신인배우상(문소리)
베를린영화제	2004	사마리아(김기덕)	감독상
칸영화제	2004	월드보이(박찬욱)	심사위원대상
베니스영화제	2004	빈집(김기덕)	은곰상(감독상)
칸영화제	2007	밀양(이창동)	여우주연상(전도연)
낭트영화제	2007	천년학(임권택)	여우주연상(오정해)
칸영화제	2010	시(이창동)	각본상

가 제약됐던 시기였다. TV로 상징되는 '안방극장' 시대의 개막으로 영화산업은 급격히 위축됐다.

영화를 잘 만들어 흥행에 성공하려는 시도보다는 여러 편의 국산영화를 제작하여 외화수입 쿼터를 얻어 이익을 추구하는 게 차라리 쉬운 방법이란 관념이 팽배했다.

이를 위해 날림영화가 양산됐고 방화 상영관은 파리를 날리기 일쑤였다. '한국영화=재미 없는 영화'라는 고정관념이 오랫동안 자리잡기도 했다. 따라서 1970년대는 '한국영화의 암흑기'로 불렸으며 이러한 침체는 1990년대까지 이어졌다.

잃었던 관객을 사로잡기 위해 영화인들은 분발하기 시작했다. 제작 환경의 제약



외국영화의 끊임없는 공세 속에서 경쟁력을 키워나간 한국영화의 현주소는 '최우수'다. 2012년 관객영화 1천만 명을 돌파한 작품이 두 편이나 된다. 1천만 관객을 넘긴 한국영화는 이미 22편이나 되며 한국영화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57.8%에 이른다.

속에서도 관객에게 다가서기 위한 영화인들의 시도는 있었다. 하길중(바보들의 행진, 1975년), 이장호(별들의 고향, 1974년)를 비롯, 1980년대 배창호(깊고 푸른 밤, 1984년), 신승수(달빛 사냥꾼, 1987년), 박철수(에미, 1985년 등) 등 뉴웨이브로 불리는 사회의식을 지닌 영화감독들은 끊임없이 관객의 감성을 두드렸다. 1984년 하명중 감독의 「뽕별」이 베를린영화제 본선에 진출, 1989년 무명의 배용균 감독의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What is the Reason Why Bodhidharma Went to the East?)이 제42회 스위스 로카르노영화제에서 최우수작품상인 금표범상을 비롯해 감독상·촬영상·청년비평가상 등을 수상하면서 한국영화는 외국과 본격 소통하기 시작했다.

영화제나 전문가의 평가를 받는 것과 다른 나라 대중의 평가를 받는 것은 별개다. 베를린, 베니스, 칸 등 유수의 영화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일반 대중에게 확산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그런 면에서 2000년 한국영화 「쉬리」의 일본 진출은 일대사건이었다. 2000년 1월 일본에서 개봉된 이래 1백3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으며 홍콩, 북미 등 총 15개 지역에서 5백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할리우드 대작 영화와 마찬가지로 대형관에서 동시에 개봉되고 점점 상영관 수를 늘려가는 「쉬리」의 성공은 진정한 히트다. 「쉬리」는 일본에서 흥행에 성공하는 외국영화가 할리우드산만은 아니라는 이변을 낳았다. 일본의 영화평론가 사토 타다오(佐藤忠男)는 동아일보에 '日 강타한 「쉬리」의 작품성'이란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기고했다.

“최근 일본에서 개봉된 한국영화 「쉬리」의 히트는 이변이라 불릴 정도로 주목받는 현상이다. 지난달 22일 일본 전국 35개관에서 개봉된 「쉬리」는 29일 전국

91개관으로 확대 개봉됐고 이달 5일에는 1백20여개 관으로 늘어났다. 일본에서의 '영화의 히트'에는 몇 단계가 있다. 일본 영화관은 좌석 8백석 이상의 대형관과 4백석 이하의 중소관으로 나뉘어 있고 대형관들은 거의 할리우드 대작 영화에 점령당한다. 일본 영화도 메이저 영화사가 제작한 소수의 작품 외에는 대형관 상영이 어렵다. 할리우드 영화를 제외한 대개의 외국 영화들은 '단관 로드쇼'(중소규모 극장 한 곳에서 장기 상영)에만 성공해도 히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금까지 일본에서 홍콩 액션영화가 대형관에서 상영됐던 극소수 사례를 제외하고 아시아 영화 중에서는 중국·대만·인도·이란 영화 중 몇 편이 '단관 로드쇼'로 성공한 예가 있다. 한국영화로는 「서편제」가 지금까지 히트한 가장 유명한 작품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할리우드 대작 영화와 마찬가지로 대형관에서 동시에 개봉되고 점점 상영관 수를 늘려가는 「쉬리」의 성공은 진정한 히트다. 「쉬리」는 일본에서 흥행에 성공하는 외국영화가 할리우드산만은 아니라는 이변을 낳았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발빠른 NHK가 '주목해야 할 새로운 현상'으로 뉴스에서 다룰 정도였다.

할리우드의 액션 대작과 비슷한 수준에 이른 「쉬리」의 작품 완성도도 주목할 만하다. 할리우드 액션영화보다 못하다고 평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지만 적어도 대등한 비교가 가능한 작품이 한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다. 일본에서도 아직 이 정도의 현대적인 액션 대작은 만들어지지 않았다.(중략)

「쉬리」의 장점은 북한의 위협을 다루면서도 북한 스파이들을 이데올로기의 맹목적인 노예가 아니라 고뇌하면서 절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 그리고 있

다는 점이다. 「쉬리」의 등장인물들은 격렬하게 경계하고 대치하면서도 깊은 동정과 연민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본다. 바로 이 점이 「쉬리」를 단순한 오락 이상의 절절한 아픔을 담은 작품으로 만든다. 「쉬리」가 흔한 미국의 액션 대작을 뛰어넘어 일본인들로부터 공감을 얻는 이유다.” 동아일보, 2000년 2월 8일자 6면

외국영화의 끊임없는 공세 속에서 경쟁력을 키워나간 한국영화의 현주소는 ‘최우수’다. 2012년 이미 관객영화 1천만 명을 돌파한 작품이 두 편(도둑들, 광해: 왕이 된 남자)이나 된다. 국내서 흥행한 영화 상위 10편 중 7편이 한국영화였다. 1천만 관객을 넘긴 한국영화는 이미 22편이나 되며 한국영화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57.8%에 이른다. 자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국가는 우리나라와 미국·중국·인도·일본 5개국에 지나지 않는다. 건강한 체질을 갖게 된 것이다.

‘한국영화는 재미 없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됐다.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의 급속한 발달로 영화시장은 확장되고 있다. 풍부한 상상력과 재미있는 스토리텔링 등을 통해 멋진 매력을 확산시키는 게 향후 과제로 남아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11월 20일 오후 10시경 한국영화 누적관객 수가 1억 명에 도달했고, 자정까지 100,010,154명을 기록하면서 2012년 한국영화 총 관객 수 1억 명을 넘어섰다. 이는 2002년 전국 관객 수(한국영화 5,082만 명과 외국영화 5,431만 명 전체)가 1억 명을 돌파했던 기록을 뒤로 하고, 10년 만에 한국영화만의 관객 수가 2002년의 두 배인 1억 명을 돌파하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었다.

총 관객 수 1억 돌파는 1천만 관객을 유치한 영화 2편, 「도둑들」과 「광해: 왕이 된 남자」의 흥행으로 일찍이 예견됐다. 2012년 상반기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

대」, 「건축학 개론」, 「내 아내의 모든 것」, 「연가시」 등은 각각 4백만 이상이 관람했다. 이같은 성공의 원인을 영진위는 다음과 같이 진단하고 있다.

“첫째, 2012년은 한국영화 제작 시스템의 합리화가 빛을 본 한 해였다. 영화 제작사들은 정확한 관객 타깃을 목표로 하여 제작 시스템을 구성했고 그 아래에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구성할 수 있었다. 「내 아내의 모든 것」과 「건축학 개론」 등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피에타」의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 수상은 한국영화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될 수 있도록 해주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한국영화에 대한 이슈몰이는 관객들을 극장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

셋째, 성수기 시즌을 대비한 완벽한 개봉작들(도둑들, 광해: 왕이 된 남자)과 더불어 2012년 1월부터 11월까지 촘촘하게 짜인 한국영화의 라인업이 영화 관객들의 발길을 1년 내내 극장으로 이끄는 힘이 되었다.

넷째, 다양한 장르의 영화들이 지속적으로 제작된 것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로맨스, 액션 뿐 아니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이슈들이 영화화되면서 관객들의 영화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켰다. 이에 더해 탄탄한 줄거리를 바탕으로 한 원작 기반 영화제작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스토리텔링의 파워를 한층 끌어올렸다고 할 수 있다.”

관객 1억 명 돌파가 시사하는 의미는 크다. 한국영화 93년 역사상 신기록이다. 이는 5천만 명의 한국 인구 한 사람이 평균 2편씩의 한국영화를 본 셈이다. 200%에 이르

는 인구 대비 자국 영화 관람률은 영국(99%), 독일(35%), 프랑스(35%), 일본(49% 이상 2011년 기준) 등을 웃도는 수치다. 할리우드영화로 표상되는 대자본의 공세를 자극제로 삼아 한국영화는 체질을 강화시켰다. 외부로부터 도전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는 사실을 한국영화는 입증했다.

## “한국의 파워브랜드”

지난 2011년 2월 미국의 경제전문채널 블룸버그TV는 “한국의 파워브랜드는 삼성·현대·LG가 아닌 보아와 소녀시대·슈퍼주니어”라고 밝혔다. 블룸버그TV는 시사 종합 해설 프로그램 ‘모노클’에서 ‘K-Pop은 왜 한국 산업의 가장 잠재력 있는 무기가 됐나’라는 타이틀로 한국의 대중 음악을 집중조명했다.

2010년 8월 12일 도쿄 최대 번화가 시부야 109 백화점 앞을 갑자기 몰린 3천 명의 인파로 혼잡을 이뤘다. 한국의 5인조 걸그룹 카라가 일본 데뷔 싱글 앨범 출시를 기념하여 게릴라 콘서트(guerrilla gig)를 열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든 인파였다. 별다른 공지 없이 열린 콘서트에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인파가 몰리자 주최측은 안전을 이유로 원래 30분으로 예정됐던 공연을 3분 만에 중단시켰다.

일본 산케이스포츠를 비롯해 각종 언론, 방송매체는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같은 날 출시된 카라의 데뷔 싱글 ‘미스터’는 발매되자마자 오리콘 데일리차트 5위에 올라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고, 이후 출시된 3개의 싱글 앨범 모두가 오리콘 주간차트 톱5에 오르는 등 일본에서 가장 지명도 높은 음악 인기차트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된다.

이날의 해프닝은 이후 일본에서 불게 되는 새로운 한류열풍의 첫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카라의 뒤를 이어 9인조 걸그룹 소녀시대, 6인조 남성그룹 2PM, 5인조 남성 힙합그룹 빅뱅 등 다 른 많은 K-Pop 그룹들이 세계 2위의 음반 시장인 일본에 진출해 폭발적인 인기 열풍을 이어나간다. 일본 시사주간지 아에라(AERA)는 “1960년대 비틀즈가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둔 것처럼 K-Pop이 일본 시장을 석권하는 ‘코리아 인베이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1990년대 말 시작된 한류는 드라마, 음악, 영화, 음식 등 여러 가지였지만 그 주축은 드라마였다. 지역면에서도 대부분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 국가, 동남아 지역에 집중돼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상은 2010년을 전후해서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앞에서 언급한 파리 공연 모습과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에서 보듯이, 아이돌 그룹이 이끄는 K-Pop은 한류열풍을 아시아 지역을 넘어 유럽과 북미, 중남미 등 전 세계로 확대시키면서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발달은 한류의 전파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는데, 그 속도와 파장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 한국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연령과 계층도 훨씬 다양해졌다. 이제 한류는 ‘신한류(Neo-Korean Wave)’로 변신했다.







무명의 청년 임정현은 누군가에 의해 유튜브에 올려진 'Canon Rock' 한 곡으로 세계적인 일렉트릭 기타 뮤지션으로 인정받았다. 유튜브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 SNS와 신한류

임정현이란 청년은 취미로 일렉트릭 기타연주를 즐겼다. 지난 2005년 10월 독일의 작곡가이자 오르간 연주자인 요한 파헬벨(Johann Pachelbel, 1653~1706)의 '카논(Canon)'을 연주한 동영상은 뮤지션을 위한 인터넷 공간 '물(www.mule.co.kr)'에 올려 놓았다. 누군가 이 영상을 유튜브에도 올렸다. 며칠새 조회수 수백만 회를 기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뉴욕타임스, IHT 등 미국 언론들은 잇따라 한국인 무명 기타리스트의 연주를 대서특필했다. 그에게는 '인터넷 기타 마법사(Web Guitar Wizard)'라는 별명이 주어졌다.

지난 2008년 9월 비틀즈의 멤버 존 레논의 부인 오노 요코는 12세의 초등학교생 정성하 군의 기타 연주에 흠뻑 반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잘 봤어요.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어요. 당신이 이렇게 연주하는 것을 존 레논이 보았다라면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애정을 포함합니다. (Dear Sungha Jung, I just witnessed

your performance of ALL YOU NEED IS LOVE! Tankyou for your a beautiful performance. John Lennon would have been happy that you performed his song so well. Lots of love. Yoko Ono Lennon).”

정작 정성하 소년은 지나쳤다. 오노 요코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이다. 정성하의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jwcfree](http://www.youtube.com/jwcfree))을 방문하여 조회한 횟수(이하 2012년 9

월 18일 오후 9시 기준)는 무려 5억3천7백46만9천8백28회이다. 이미 지난 7월 중순 5억 건을 간단히 넘어섰다. 아티스트와 연예기획사를 통틀어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5억 건을 넘은 경우는 정성하가 처음이다. 이미 그는 세계적인 명사가 됐다. 정성하의 신화 같은 현실은 7년 전인 2006년 9월 시작됐다. 당시 10세의 초등학교 3학년 소년이었다. 그가 연주하는 '스플래시'에 네티즌들은 경악했다. 여러 나라에서 찬사의 댓글들이 폭주했다. 2008년 이래 정성하는 미셸 오몽, 트레이스 번디, 토미 임마누엘, 오시오 코타로, 밴드 미스터 빅 등 내로라하는 연주자들과 협연했다. 독일·태국·미국·핀란드 등 순회공연도 성공리에 치렀다. 정성하 군에게 비친 유튜브란 어떤 존재일까?

“제가 사는 작은 시골(충북 청원군 오창읍)에서 세상 사람들을 모두 만나고 있잖



유튜브 조회 수 5억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운 기타리스트 정성하.



# Concurso K-Pop Coreano 2012

En el marco de la celebración del 50 aniversario del establecimiento de las relaciones diplomáticas entre México y Corea y con objetivo de estrechar aún más los lazos de amistad entre ambas naciones, se realizó en nuestro país el Concurso K-Pop Coreano 2012.

El encuentro musical lo promovió la embajada de Corea a través de su Ministerio de Cultura. Deporte y Turismo que busca que este concurso contribuya al entendimiento cultural y a tender puentes de comunicación que trasciendan lenguajes y fronteras.

A esta convocatoria asistieron 10 grupos musicales del Distrito Federal, Estado de México, Mexico, La Piedad, Veracruz, Guadaluajara y Cancun, que fueron seleccionados tras las eliminatorias entre 69 secciones inscritas.

El encuentro musical de los grupos elegidos fue en el Teatro Ferrocarriños, que estuvo muy animado con las posturas de los grupos seleccionados. El ganador representará a México en el "Festival Mundial de K-Pop" que se celebrará en octubre en Seúl.

En diciembre del 2011, la embajada de Corea en México organizó el Festival Hallyu, que contó con la participación de 24 grupos y más de mil asistentes y fue un claro ejemplo de la popularidad de "la ola coreana" que interesa en el país.

En fechas recientes, la cultura popular coreana ha logrado despertar el interés de gran parte del público mexicano. Un ejemplo de ello es el creciente número de aficionados a las telenovelas coreanas, al estudio del idioma y a su cultura.



» LA CULTURA popular coreana ha logrado despertar el interés de gran parte del público mexicano.



# Concurso K-Pop Coreano 2012



지구 반대편의 나라 아르헨티나의 K-Pop 열풍은 중남미한국문화원이 주최한 K-Pop 경연대회와 함께 상륙했으며, 이는 한류열풍과 함께 곧 '한국 선망' 현상으로 번지고 있다. <사진제공 중남미한국문화원>

아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고맙기도 하고요. 유튜브가 없으면 제가 어떻게 몇억 명씩이나 되는 사람을 다 만나겠어요? 경향신문, 2012년 9월 1일자

유튜브를 비롯한 SNS는 개인이 프로덕션이나 기획사의 중개 없이 수용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최대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유통의 단계를 현격하게 단축시킬 수 있는 빠른 과급력을 지니고 있다. 아날로그 시대의 교류는 직접 대면을 하거나 대상을 갖고 와야 하는 제한이 있었다. 대중문화도 마찬가지였다. 예술인의 공연을 감상하

거나 라디오, TV 등의 매체를 통해 제한된 지역에서 일부 계층만이 체험할 수 있었다. 디지털시대의 교류에는 더 이상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

남아메리카의 아르헨티나는 국민의 97%가 백인이며 유럽적인 국민정서가 짙다. 지리적으로도 한국과 반대편(지구둘레가 4만km, 서울 부에노스아이레스 간 거리가 약 2만km)에 자리하고 있어 한국문화의 전파는 어렵다고 여겨졌던 지역이었다.

이종률 중남미한국문화원장에 따르면 "한국드라마가 단 한 번도 현지 방송에서 방영된 적 없지만 유튜브·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슈퍼주니어, 동

방신기, 소녀시대, 원더걸스, 샤이니 등 한류 스타에 열광하는 아르헨티나인들이 2008년부터 점차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한류 팬클럽도 확산돼 최근에는 1천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한국사랑 모임을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드라마나 인기배우 중심의 한류 1.0을 거치지 않고, 바로 아이돌 가수 중심의 한류 2.0으로 진입한 대표적인 사례다.

## 한국 한 번 가보는 게 소원

지난 8월 10일 아르헨티나 유력 일간지 끌라린(Clarín)은 ‘K-Pop 열풍, 모두를 위한 K-Pop(EL FENOMENO K-Pop Las coreas coreanas)’이란 제목으로 4개 면을 할애하여 아르헨티나에 부는 한류열풍을 전했다.

이 신문의 파블로 라이몬디(Pablo Raimondi) 기자는 “아이돌 가수 밴드를 앞세운 K-Pop을 시작으로 한류열풍이 아르헨티나에 불기 시작했다”며 “K-Pop은 높은 수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K-Pop에는 미국의 힙합과 제이팝의 요소 중 하나인 유럽 테크노를 비롯한 다양한 음악적 요소가 흥미롭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덧붙여 K-Pop은 뛰어난 예술적 감각을 지니고 있는데, 임팩트가 큰 비주얼적 요소, 안무, 그리고 쉽게 기억되는 멜로디가 그 특징이라고 분석했다.

아르헨티나의 K-Pop 열풍은 중남미한국문화원이 2010년에 주최한 ‘K-Pop 경연대회’와 함께 상륙했으며, 오늘날 약 1만 명 정도의 팬이 있다. 첫 대회에서는 비꼬가, 두 번째 대회에서는 플로르가 우승했다. 2012년 8월 18일 개최된 세 번째 대회에서는 아

르헨티나에서는 아구스티나 캔디와 천상의 소울이 참가하며 10개 국가에서 온 13팀과 실력을 겨뤘다. 심사위원 중에는 크리스티안 바소도 있다. 대회의 우승자는 한국으로의 여행과 ‘K-Pop월드 페스티벌’에 참가할 기회를 갖는다.

2010년 제1회 대회 우승자인 비꼬 양은 K-Pop은 두 나라를 연결하는 통로이고 자신도 그 통로 역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으며, 자신은 한류친구라는 그룹과 같이 한류를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대회 참가자 아우구스티나 캔디는 K-Pop의 비주얼, 음악, 색깔이 모두 좋다고 말하며, K-Pop 때문에 JYJ 공연을 보러 칠레에 가기도 했고, 한국어를 공부하기도 했다고 하였다. 다른 참가자 천상의 소울도 처음에는 일본 음악을 좋아하다가 후에 한국음악에 빠졌으며, 이 대회에서 우승하여 한국에 가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 전 세계 한류팬 3백30만 명, 한류 팬클럽 1백82개

2011년 11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재외 한국문화원 20개 지역의 한류 팬클럽은 1백82개이며, 회원수는 3백3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권역별로는 일본·중국·베트남 등 아시아 8개 지역 84개 2백31만 명, 워싱턴·뉴욕·아르헨티나·미주 4개 지역 25개 50만 명, 영국·프랑스·터키 등 유럽 7개 지역 70개 46만 명 순이다. 지역별로는 상하이 11개 1백5만



명, 베이징 14개 73만 명, 뉴욕 6개 50만 명, 러시아 23개 26만 명, 터키 17개 17만 명 순이다.

이 수치는 재외 한국문화원 지역에서 공식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팬클럽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며, 실제로는 이보다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의 경우, 공식적 팬클럽 사이트만 2백여 개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이트가 상업화를 목적으로 유료, 회원 비공개로 운영되고 있어 정확한 회원 수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이번 추산에서 이들 사이트는 제외됐다.

한류 팬클럽을 유형별로 보면, K-Pop 팬클럽이 1백15개로 가장 많고, 연기자별 24개, 영화·드라마 16개 순이며 모든 장르를 망라하는 종합적 성격의 팬클럽도 27개에 달한다. 대체로 일본, 중국 등 아시아 대부분 지역과 폴란드·터키·러시아·아르헨티나 등 한류가 활발하게 확산된 지역일수록 팬클럽이 가수별, 연기자별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와는 별도로 개인별 한류 팬클럽의 연합체적인 성격으로 그 지역의 한류 확산을 주도하는 팬클럽도 있다. 2011년 6월 SM타운 파리공연의 연장시위를 이끌었던 프랑스의 '코리안 커넥션'이나, 4만여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한류 관련 인터넷 잡지, 일간 신문, 라디오 운영 등을 하고 있는 터키의 '코리아 팬스' 등이다. 이러한 팬클럽은 정기적인 오프라인 모임을 가지면서 한국문화 축제를 기획하여 개최하는 등 단순한 한국문화의 소비

자가 아니라, 한국문화의 능동적 전파자로서 한류 붐 확산의 별동대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팬클럽의 주요 활동은 좋아하는 스타나 영화·드라마에 대한 자료 공유, K-Pop 콘서트 요구 플래시몹 개최, 스타 현지 방문 시 팬미팅 주선, 한국문화 축제 기획 개최, 정기 모임 및 오프라인 포럼 개최 등을 들 수 있다. 프랑스, 필리핀, 카자흐스탄 팬클럽 등은 현지 한국문화원의 한류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 지원하기도 한다.

## 유럽에 비친 한류

북구의 끝자락 스웨덴에도 한국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스웨덴에선 K-Pop이나 한국드라마를 직접 접할 기회가 없음에도 주로 유튜브를 통해 영어자막 TV 드라마와 K-Pop을 감상하며 입 소문(word of mouth)을 통해 전해진다는 것. 스웨덴의 한류팬들에게 비친 두 나라의 미묘한 뉘앙스는, 스웨덴 드라마의 유머감각이 관객이 등장인물의 언행을 보고 웃게 만드는 반면 한국드라마는 어떤 대상을 놓고 웃는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과 같이 웃을 수 있는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마음에 든다는 것(laughing with somebody rather than at somebody)이다.



한국의 K-Pop 가수들에 열광하는 터키의 한류팬들. <사진제공 주터키한국문화원>

또한 「대장금」이나 「꽃보다 남자」와 같은 인기 드라마에서 발견되는 공통분모가 아주 평범한 배경을 가진 주인공이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최고의 자리까지 도달하는(someone starting with humble background, making all the way to the top)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 스웨덴 시청자들로 하여금 주인공의 배경적 결함을 자신의 상황과 동일시하게 만드는 흡인력을 발휘하며, 또한 주인공이 속한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순수한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 또 다른 매력이라고 한다.

K-Pop에 대해서 스웨덴은 보통 가수가 혼자 노래를 부르는 반면 한국은 열정적인 댄스를 가미한 밴드 음악이 흥미롭고 주로 빅뱅·동방신기·샤이니·슈퍼주니어·애프터스쿨 등의 음악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인기 가수들이 TV 드라마에도 출연하는 것이 흥미롭다면서 이런 이유로 한국 가수들에 대한 관심이 TV 드라마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나름대로 인기비결을 진단하기도 했다.

유럽의 언론에 비친 한류는 어떤 모습을 띠고 있을까. 지난 3월 3일 독일 공영방송



폴란드 현지 매체에 크게 소개된 K-Pop 열풍. <사진제공 주폴란드한국문화원>

과 프랑스 공영방송이 공동설립한 Arte-TV는 K-Pop의 성공비결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고 있다.

“첫째 K-Pop은 단순한 멜로디와 쉬운 가사, 그리고 독창적이며 일사불란한 안무로 인기를 얻고 있다. 둘째 JYP 등 주요 기획사들은 춤과 노래에 대한 전문적 교육뿐만 아니라 외국어 교육, 예절 교육 등 전문적인 교육시스템과 평가시스템에 따라 가수들을 양성하고 있다. 셋째 일본시장 진출 전에 일본어 교육을 받는 등 철저한 사전 시장조사와 준비 역시 K-Pop이 세계시장에서 성공하는 비결이다.”

프랑스 일간지 르포앵(Le Point)은 한국이 K-Pop 등 한류를 통해 소프트파워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신문은 2012년 8월 2일자 ‘세계를 공격하는 한류, K-Pop(K-Pop: la vague coreenne a l'assaut du monde)’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은 K-Pop이라는 예능

무기로 아시아의 젊은이들을 불러들이고 있으며, K-Pop의 영향력은 일본의 넷케이 비즈니스에 집중 소개될 정도로 대규모 현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한류는 단순히 음악뿐 아니라 패션과 트렌드를 결합하고 있어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한국에는 연간 관광객이 1천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서울, 도시의 발명Scoul, l'invention d'une cite』을 집필한 Benjamin Joinau의 '한국이 일본을 이어받아 유행의 선도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 평가도 인용했다.

지난 1990년대 시작된 한류는 현재 K-Pop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맞았고, 한국에 예기치 않았던 소프트파워를 줬다며 한류는 유엔, G20 등과 같이 다자무대 역량강화를 꾀해 왔던 한국에 새로운 외교수단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명박 대통령의 터키 방문 시에는 K-Pop 스타와 동반한 경우인데 이는 외교적으로, 한류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서로 윈윈하는 전략으로 한국정부는 국가 대외 이미지가 늘 부족했는데 K-Pop을 통해 극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K-Pop은 아시아를 넘어 유럽 진출에도 성공했으며 프랑스의 Bercy 공연, K-Pop 팬들의 플래시몹 공연에서 보듯 프랑스는 유럽내 K-Pop 진출의 교두보로서 K-Pop 팬이 해마다 늘고 있고, K-Pop을 계기로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르포엥은 한류 성공의 비결은 글로벌 문화와 아시아 문화를 적절히 혼합한 데서 찾을 수 있으며, K-Pop 프로듀서들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잘 팔리는 음악 장르를 빌려와 한국적 터치를 가미하고, 이것이 예상치 못한 폭발적인 호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장 큰 성공의 비결은 가수들의 고난도 훈련과 K-Pop의 음악과 춤의 완성도에 있으며 가수들은 장시간 훈련을 통해 음악과 춤을 익히고, 성형수술도 마다않는 완벽

한 외모와 패션을 선보이고 있어 아시아의 다른 어떤 가수들보다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 한류 확산에 놀란 일본

2012년 5월 6일자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외무성은 올 여름 조직개편에서 해외홍보, 해외문화교류를 담당하는 조직을 일원화할 예정이라며 애니메이션, 패션 등 매력을 해외에 확산하는 'Cool Japan(멋진 일본, かつこい日本)' 전략의 사령탑으로서 홍보문화외교전략과(広報文化外交戦略課)(가칭)신설 방침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은 민관 협력으로 '한류 드라마'를 수출하고 중국은 '공자학당'을 세계 각지에 설치해 호감도를 높여가는 소프트파워 외교를 강화하는 현상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외무성은 올해 들어 네 차례(1월 23일, 2월 9일, 3월 21일, 4월 12일)의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한국의 국가브랜드 전략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 지난 2월 9일 외무성 홍보문화교류부는 '일본이 지향해야 할 국가브랜드 전략이란 무엇인가 - 한국의 사례를 참고로 삼아'란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의 국가브랜드 전략에서 일본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나눴다. 한국의 콘텐츠 해외발신 성공요인이 첫째 적극적이며 치밀한 해외 비즈니스 전개, 둘째 보조금, 인재육성을 포함한 정부의 지원, 셋째 대기업과 긴밀한 연대 제휴라고 분석했다.



## 🌀 일본이 보는 한류의 성공요인

1998년 이후 문화산업을 21세기 기간산업 육성 선언 후 지속 추진

- 민관 일체의 '쿨 코리아 전략' 추진, 콘텐츠 관련 예산을 1999년도 이후에 대폭적으로 늘리고, 98년도에 문화관련 전체 대비 2.2%였던 것을 99년도에는 11.7%, 2000년도에는 15.3%로 증가
- 디자인진흥원과 콘텐츠진흥원 설립, KOTRA를 통한 해외시장의 획득 지원책 강화 등 적극적 정책이 효과 거둠
- 2011년도 크리에이티브 관련 정책예산액을 비교하면 한국은 일본의 2배. 콘텐츠 관련예산 규모는 일본의 약 8배에 달하는 등 상당한 차이. 민관일체의 지원체제가 한류의 인기를 지원

일본 경제산업성, 2011

## 북한에 부는 '남조선풍(風)'

1848년 미국 캘리포니아 새크라멘토강 부근에서 금이 발견되면서 서부로의 대거 이동이 시작됐다. 이른바 '골드러시'다. 금광 주변에는 천막촌이 금세 형성됐다. 1850년

독일 남부 바바리아 지방에서 캘리포니아로 이민온 유대인 리바이 스트라우스(Levi Strauss, 1829~1902)는 질긴 천막용 천으로 바지를 만들었고, 이것이 청바지 블루진의 시초가 되었다.

청바지는 팝과 함께 자본주의의 매력을 상징하는 아이콘이기도 했다. 1960, 70년대 소련, 동유럽 등 공산권 젊은이들 사이에는 로큰롤, 청바지, 장발, 아메리칸 스타일의 셔츠가 크게 유행했다. 공산권 언론들은 문화적으로 서방에 예속되고 있는 징조라고 개탄하고 당국은 '자본주의 퇴폐문화'라고 해서 강력히 단속했지만 결국 공산권은 무너졌다.

문화의 힘은 놀랍다. 철저히 통제되고 외부와 차단된 지구촌 유일의 폐쇄사회 북한에도 한국문화는 확산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한국문화는 간간이 북한에 흘러들었다.

1968년 1·21 청와대 기습 사태의 장본인이었던 김신조 씨는 라디오를 통해 남한의 말씨 등 습관을 수없이 익혔다고 한다. 특별히 지급된 일제 트랜지스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가수 김상희 씨의 '대머리 총각'은 하루의 피로를 말끔히 씻겨주었다는 것. 김씨는 발랄한 음색의 김상희 씨가 어떤 모습인지 궁금했다고 한다.

'남조선풍'으로 불리는 북한의 한류는 19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로 북한 접경의 엔벨을 중심으로 조선족들이 북한을 왕래하는 과정 속에서 남한의 드라마, 가요 프로그램 비디오테이프 등이 유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예가 최진희 씨가 불렀던 '사랑의 미로'다. 이 노래는 평양에서 발간된 『외국민요집』에 수록돼 있을 정도로 명곡이 됐다. 음악대학의 졸업 실기시험에서도 성악곡으로 자주 불려지고 있다고 한다. 다만 가사가 북한 실정에 맞춰 바뀌었고, 어



북한에도 한국가요, 식품 등 다양한 한국문화가 파급되고 있다. 사진은 개성공단 전경.

느 나라의 노래라는 국가명은 밝혀져 있지 않다.

그토록 다짐을 했건만  
 사랑은 알 수 없어요  
 (자주 위해 평화를 위해)  
 (목숨 바친 그뎨 못잊어)  
 그대 작은 가슴에  
 (빛을 준 사랑이여)  
 상처를 주지마오. 영원히...

※ 괄호는 북한에서 바뀐 가사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간간이 한국 연예인들이 북한에서 공연하면서 점차

남한 가요들이 확산됐다. 북한 최고권력자 김정일 위원장 스스로 심수봉의 ‘그때 그 사람’, 조용필의 ‘그 겨울의 찻집’을 즐겨 들었고 조용필 씨의 평양공연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북한의 한국문화는 의식주, 말투 등 일상의 생활문화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북한의 시장인 장마당에서는 각종 전자제품(LG TV, 애니콜 핸드폰, 믹서기 등)과 생활용품(한국도자기, 식기, 장갑 등), 식료품(다시다 등), 기호식품(커피믹스 등), 과자류(초코파이 등), 의류(스키니 진 등)에 이르기까지 온갖 남한 제품이 팔리고 있다. 최근에는 세관 검색 시 ‘데이터 제로’를 뜻하는 ‘0 byte’로 표시됐다가 설정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콘텐츠가 활성화되도록 프로그램화한 USB를 탈북한 IT 전문가들이 2010년 2월 개발했는데, 현지 주민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USB 안에는 한국 드라마, 가요,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내장돼 퍼지고 있다고 한다.

2011년 11월 24일 영국의 일간지 텔레그래프는 북한 개성공단에서 초코파이가 비공식 통화로 자리잡으면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개성공단 노동자의 평균 월급이 67파운드(한화 약 12만4천 원) 정도지만 한국 기업이 당초 간식으로 나눠주기 시작한 초코파이로 더 큰 수입을 얻는다고 전했다. 북한의 암시장에서 초코파이는 개당 10달러(6.4파운드, 1만1천840원)까지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 기업의 관리자들이 생산량이 늘어나는 데 따른 보상으로 초코파이를 지급하면서 개성공단 직원들은 다른 북한 노동자들보다 상당히 부유해졌다고 텔레그래프는 소개했다. 이같은 보도는 개성공단 관계자의 발언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개성공단에서는 초코파이가 큰 역할을 했다. 처음에 북측 사람에게 잔업을 하라고 하니 이들은 안 하려고 했다. 그런데 초코파이를 더 주겠다고 하니 달라지더라. 잔업이나 야근을 할 때 라면을 끓여주는 것도 반응이 좋았다. 처음에는 간식으로, 체력보강용으로 초코파이를 주기 시작했다. 기업들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오전에 2개, 오후에 2개 주었다. 그런데 북측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다. 이제는 거의 정례화가 되었다. 초코파이도 주지만 밤빵이나 계란을 함께 주기도 한다.”

『개성공단에서 통일경제의 희망을 본다』, 69쪽

몇 년 전에는 SBS 인기드라마 「올인」에서의 송혜교 인기 때문에 북한 여성들에게 두발 단속이 가해졌다고 한다. 남한의 드라마를 밀수입해 「올인」이 유행했고 덩달아 송혜교의 머리가 북한 여성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는 것.

서울 말씨도 매력의 대상이다. 사단법인 좋은 벗들 북한연구소에 따르면 북한 여성들이 서울 말씨를 흉내 내는 것은 북한 남자들이 서울말을 쓰면 말씨가 예쁘고 애교스럽다며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여자 친구가 서울말을 쓰면 ‘서울에 전화하는 것 같네’라며 농담할 정도로 남녀 모두 남한 말투를 즐겨 쓰고 있다고 한다.

중학생들도 머리를 짧게 자르도록 돼 있지만, 머리를 기르는 학생들이 생겨나고 있다. 학교에서 아무리 통제를 해도 머리를 기르고 싶어하는 심리는 남북한 학생이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심지어는 한국TV 방송이 수신되는 지역의 주택 매매값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비싸다고 한다. 탈북자 학술단체 NK지식인연대에 따르면 함경남 북도와 강원도, 황해남북도의 해변 도시에서 한국TV를 수신할 수 있다. 북한 지역에

서 한국TV를 시청할 수 있다는 소문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 퍼지자 이 지역 주택 매매 값이 크게 뛰었다.

이에 북한 당국은 자본주의 문화 척결과 단속에 나선 상황이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인민반 강연에서 ‘썩어빠진 생활양식이 판치면 사회를 좀먹고 나라의 미래까지 망친다’는 강연과 함께 소위 ‘남조선 날날이풍’을 단속한다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단체나 대학생으로 조직된 규찰대가 붓짐 검사, 생활 풍속이나 이색적 옷차림들을 단속하고 있다. 규찰대 단속에 걸리면 물건이 압수되거나 학교나 직장에 단속 통보가 가게 된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문화확산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시장경제의 확산과 무관치 않다. 북한과 중국 민간 사이에 녹화기, 중고 PC, CD, DVD 등이 활발히 유입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의 한류 현상이 심화될수록 이질적이었던 남북 간의 공감대는 두터워질 것으로 보인다.





‘맛’과 ‘풍요’  
한류의  
확산과 미래

## K-Food, 세계가 반한 한국의 맛

### 원산지 입맛을 만족시키는 한국식품

“중국이 원조인 자장면을 어떻게 한국이 더 맛있게 만드느냐.”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주석은 1995년 11월 방한 때 호텔신라에서 먹어본 자장면에 감탄했다고 한다. 자장면은 한 세대 전만해도 외식의 대명사였다. 19세기말 경인선 철도 부설공사 당시 중국인 노동자들이 주변에서 구입한 야채와 중국식 춘장을 볶아서 면을 넣어 만들어 먹은 데서 유래했다는 설, 1890년대 인천항 부두에서 하역 일을 하던 중국 산둥(山東) 지방의 쿨리(苦力·하역 인부)들이 간단히 조리하여 끼니를 때웠다는 설 등 유래가 분분하나 중국에서 전래해온 사실만큼은 확실하다.

1백여 년간 한국인의 기호에 적응해 국민음식이 됐는데 이제는 원조국(元祖國)을 감동케 하고 있다. 마치 사막에 모래를 팔고, 알래스카에 얼음을 파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브라질은 과일의 천국이다. 열대 지역이라 듣도 보도 못한 과일이 지천이다. 멜론즙이 한 방울도 없으며 멜론향만 나는 메로나 아이스크림에 너도 나도 손길이 간다. 브라질 최대 도시 상파울루의 일본인 밀집지역인 리베르다지(Liberdade)의 동네 가게에는 빙그레 아이스크림 냉장고가 어김없이 자리 잡고 있다. 메로나 하나의 가격은 2천 원이 넘는 무려 3.5배알이다.

그걸 하나 사서 입에 물고 다니는 모습이 신기할 뿐이다. 그 모습을 보고 모 방송사의 기자가 “브라질판 베스킨 라빈스군요”라고 적절한 멘트를 했다. 국내에선 할인가격으로 1천 원을 밑도는 경우도 있는데 지구 반대편에서는 치솟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상파울루의 웅만한 가게에 있는 메로나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볼 때 기분이 참 좋

다. 맛있으면 어디서든지 통하는 법이다.

지난 2012년 2월 1일 국산 커피 브랜드 ‘카페베네’가 세계경제의 중심지인 뉴욕 맨해튼의 타임스퀘어에 1호점을 열었다. 이 매장은 6백60㎡(2백평) 규모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보다 4배나 크다. 서구 기호품의 상징이었던 커피를 본바닥에 역수출하게 된 셈이다. 미국인이 한방차 전문점을 서울 한복판에 개점하는 역설이 현실이 된 것이다.

근대화 이후 이 땅에는 세계 각국의 음식들이 들어왔다. 중국음식, 일본음식은 물론 아메리칸 패스트푸드는 일상에 서 접한다. 이탈리아 음식, 무슬림 음식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음식의 진열장이 된 지도 오래됐다. 중요한 사실은 원산지를 능가하는 요리 솜씨, 식품제조 기술을 갖게 됐다는 점이다.

뉴욕보다도 더 맛을 내는 피자 가게가 지천에 깔려 있다고 말할 정도다. 더 이상 외국에 나가지 않더라도 다른 나라의 음식을 쉽게 맛볼 수 있다. 게다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됐다.



브라질 거리에서 많이 팔리고 있는 한국의 빙과.





스위스 융프라우요흐 전망대에 버젓이 자리잡고 있는 한국의 라면 매장.

## 세계인의 입맛에 맞춘다

“어? 우리나라 신라면이네!!” 한국 여행객들이 외국에서 흔히 하는 말이다. 그만큼 여러 나라에 진출해서 한국의 맛을 전하고 있는 농심 신라면. 이 라면은 전 세계 80여 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가깝게는 일본과 중국에서부터 멀게는 사우디아라비아, 나이지리아 등 중동·아프리카 지역까지. 스위스 융프라우요흐(융프라우의 정상, 해발 3,454m)와 그 동안 수출실적이 없던 이슬람 국가에서까지도 이제 우리나라 라면을 맛볼 수 있다.

2011년까지 신라면의 누적 판매량은 총 2백10억 봉지다. 얼른 감이 오지 않는 개수다. 지구를 96바퀴 돌 수 있고 에베레스트 산을 217,564회 왕복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한다. 유럽의 지붕 스위스 융프라우요흐는 산악열차를 운행하는 곳이다. 산악열차는 지



뉴욕 브로드웨이로 진출한 국산 커피숍.

상에서 알프스 전망대 사이를 오가는 관광열차로서 신라면칩과 육개장 사발면이 판매되는 곳은 바로 이 전망대 상점이다. 대학생 배낭족에서부터 가족, 친구들끼리 융프라우요흐를 찾은 사람들은 동서양을 불문하고 신라면을 찾는다.

미국의 Wal-Mart, COSTCO, Sam's Club, 캐나다의 Safeway, Loblaws, Metro, 영국의 ASDA, 독일의 Real, 프랑스의 Paris Store, 일본의 7-Eleven, Family Mart, 호주의 Coles, Woolworth 등 현지의 주요 유통에 진입해 있는 신라면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2011년 기준, 세계 80여 개국에서 판매



한국식품들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데는 기업과 정부가 현지의 종교, 생활습관 등을 고려한 면밀한 전략도 한몫하고 있다. 수많은 민족이 존재하듯 지구상에는 음식문화나 습관 또한 다양하다.

되는 신라면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2천억 원에 이른다.

광고 또한 독특하다. '사나이 올리는 신라면'. 신라면의 핵심 속성인 매운맛을 감성적이면서도 해학적으로 표현했다. 짧고 강렬하다. 사나이조차 울릴 수 있는 매운 맛을 강조하는 마케팅 전략은 출시 이후 변한 적이 없다. 오랫동안 일관된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는 신라면 하면 자연스럽게 이 카피가 떠오르게 되었고, '신라면=매운 맛 라면'이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중국 현지에서도 이 같은 광고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 농심은 마오쩌둥(毛澤東)의 말 "만리장성에 오르지 못하면 사내 대장부가 아니다(不到長城非好漢)"를 패러디한 마케팅 카피를 만들었다. "매운 것을 못 먹으면 사내 대장부가 아니다(吃不了辣味非好漢)"라는 카피가 그것이다. 이처럼 현지화 광고 전략을 통해 현지인의 독특한 정서와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식품이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김치, 떡, 막걸리, 등의 전통식품만 한식한류의 대열에 서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 기업이 만든 서양식 식품류들이 세계 곳곳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시베리아의 오지에서 알프스 산맥, 베트남의 시장에서 아프간의 장터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한국식품들을 볼 수 있다.

초코파이도 세계적으로 확산된 한국식품이다. 초코파이의 효시는 1917년 미국 남부 테네시주의 채타누가 베이커리에서 판매한 문파이(Moon Pie). 오리온 초코파이의 탄생은 정말 우연한 기회로 이루어졌다. 1970년대 초 한국 식품공업협회 주관으로 식품기술자 3명과 함께 구미 선진국을 순회하던 기술개발연구소 소속 한 연구원은 친구와 들른 카페테리아에서 우유와 함께 초콜릿 코팅과자를 맛본 후 신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다. 2년여에 걸친 실험과 개발, 수많은 시제품을 만들어 실패에 실패

를 거듭한 끝에 1974년 4월 초코파이가 출시되었다.

무게 35g, 지름 7cm, 높이 2.3cm의 '작은 몸'은 지난 2011년 전 세계 60여 개국에 무려 20억 개가 팔렸다. 1년에 팔리는 양을 일렬로 세우면 지구를 세 바퀴 도는 셈. 출시 이후 지금까지 세계에서 팔린 초코파이는 지구를 28바퀴 돌 수 있는 양이다. 중국, 베트남 등에서 팔리는 가격도 한국에서의 가격과 같다. 우리나라보다 소득수준이 많이 뒤지는 나라에서 초코파이는 고급 먹을거리인 셈이다. 초코파이는 촉촉한 식감을 가진 초콜릿 케이크 스타일의 제품인데 촉촉함을 유지하기 위해 수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수분이 많아질수록 미생물에 의한 오염 및 변질·부패, 풍미의 변화 등의 현상이 발생하기 쉽다. 그래서 오랜 연구 끝에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신선도 및 미생물 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여 세계 어디에서도 똑같은 맛을 유지하게 됐다.



세계 60여 개국의 입맛을 사로잡은 초코파이.

커피 하면 약방감초격인 동서식품의 '프리마'도 각국에서 즐겨찾는 기호식품이다. 지난 1982년부터 홍콩 등에 17만 달러어치 수출한 이래 러시아 등 24개 국가로 늘어났다. 2011년에는 3천4백만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해외시장에 진출한 지 30년 만에 2백 배로 성장한 것. 가장 인기가 높은 나라는 러시아. 보따리상들이 블라디보스토크항을 통해 커피와 커피크리머를 교역한 것이 시장 진출의 계기가 됐다.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도 2001년 86만 달러에서 2010년에는 6백80만 달러로 수출이 8배가량 늘

어났다. 실크로드를 따라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것에 비유해 판매경로를 '프리마로드 (Frima Road)'로 부를 정도로 관심을 쏟고 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Trans-Siberian Railway, TSR)는 러시아 우랄산맥 동부 첼랴빈스크(Chelyabinsk)에서 블라디보스토크(Vladivostok)까지 약 7천4백km를 연결한 대륙횡단철도다. 유럽과 극동을 연결하는 모스크바-블라디보스토크까지의 거리는 무려 9천2백97km에 이르며 세계에서 가장 긴 직통열차다. 이 어마어마한 긴 여정에 단골로 등장하는 게 한국산 도시락라면이다. 지난 1990년대 부산항을 드나들던 러시아 보따리상들에 의해 처음으로 러시아에 전해졌다고 한다. 러시아 용기면 시장에서 60%가 넘는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5년 9월 모스크바 근교 라멘스코예에 최초로 도시락라면 공장이 세워졌다. 3만 평 부지에 총 4개 라인으로 10종의 라면을 연간 3억5천만 개 생산할 수 있다.

이렇게 한국식품들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데는 기업과 정부가 현지의 종교, 생활습관 등을 고려한 면밀한 전략도 한몫하고 있다. 수많은 민족이 존재하듯 지구상에는 음식문화나 습관 또한 다양하다. 이를테면 힌두교도에게 소고기를 권하거나 무슬림에게 돼지고기를 건넨다면 큰 실수다. 개신교도에게 술을 권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특히 이슬람의 율법은 까다롭다. 식재료 뿐만 아니라 정해진 율법에 따라 재료를 고르고 조리를 해야 한다. 이슬람권의 음식을 할랄(Halal) 음식이라고 부른다. 할랄이란 아랍어로 "허용된"이라는 뜻이다. 즉 이슬람법(샤리아)에 허용된 항목(주로 이슬람법 상 먹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채소류, 과일류, 해산물은 대부분 먹을 수 있지만 가축은 인도적인 도축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예를 들면 2011년 농심은 무슬림도 먹을 수 있는 할랄(Halal) 신라면을 출시했다. 농심은 총 8종의 Halal 인증을 취득했으며 그 중 신라면

은 그 동안 수출 실적이 없는 이슬람국가(파키스탄, 요르단, 카타르)를 개척하는 성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이는 무슬림 인구가 전 세계 약 25%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큰 기회가 된다.

유대교도들은 율법에 따라 제조된 코셔(Kosher) 식품을 먹어야 한다. 농식품부가 한식세계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슬람시장 개척(수출)을 위한 인증시스템 구축 및 상품개발' 사업도 상대 국가들을 배려한 차원에서 나온 맞춤 정책의 일환이다.

## 김치의 힘

2012년 9월 18일 워싱턴포스트(WP)는 김치를 세상에서 가장 값싼 건강보험이라고 극찬하며 한국의 전통 음식인 김치를 만드는 법과 그 효능을 자세히 소개해 화제다.

이 신문의 카툰 기사는 버지니아주 센터빌의 불런 공원에서 최근 열린 코러스 페스티벌(KORUS Festival)의 부대 행사인 '광주세계김치문화축제' 관련 취재기사에서 '김치는 한국의 저렴한 건강보험'이라고 평했다. 카툰 기사는 "김치의 젓산균은 소화를 돕고 비타민A·B·C도 풍부하다"면서 김치 명인으로부터 배운 김치 담그는 법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했다. 그는 특히 "김치 명인들은 식탁 옆에 앉은 배고픈 강아지에 하듯 연신 내게 김치를 먹여줬다"면서 "지난 며칠 간 미식축구를 보면서 김치를 날것으로 조금씩 먹거나, 토마토와 함께 샌드위치에 끼워 먹었는데 가장 좋아하는 주전부리가 됐다"고 소개했다.

몇 년 전 팀스피리트 훈련 때 특전사 병사들이 야식으로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





김치는 더 이상 한국만의 음식이 아니다. 사진은 김치 강습을 받고 있는 일본인들. <사진제공 동경한국문화원>

이 모습을 본 미군 병사들이 한번 맛을 보자며 다가왔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하며 맛을 보다가 나중에는 겁쟁이로 빼앗아 다 먹어버렸다고 한다. 배속을 따스하게 하는 칼칼한 김치 국물 맛에 반했다는 것. 미군 병사들에겐 그다지 육류를 섭취하지 않는 한국군 병사들이 밥과 김치, 컵라면만으로도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혹한을 견뎌 내는 모습이 경이 그 자체였다고 한다.



미 일간지 시카고트리뷴의 김치 특집.

김치가 추위를 이기게 하는 데 체격이란 사실은 이미 입증됐다. 지난 2006년 5월, 70세의 일본인 미우라 유이치로(三浦雄一郎)는 세계 최고령으로 에베레스트에 올랐다. 등정 후 미우라는 “김치 덕분에 히말라야의 극한을 이겨내고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에베레스트 등반을 위해 김치를 무려 30kg이나 준비해 스테미너를 돋웠다고 한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채소 보관법에 골몰하던 중 바닷물 즉 소금물에 담가두는 방법을 알아냈다. 이것이 침채(沈菜)로 오늘날 김치의 기원이다. 침채는 당시 ‘딤채’ 또는 ‘딤채’ 라고도 발음했는데 그 뒤 ‘김채’ 또는 ‘짐치’ 에서 ‘김치’ 가 된 것으로 짐작된다. 한국에서 생산하는 김치냉장고 중 하나인 ‘딤채’는 여기서 유래했다. 이 밖에도 소금을 이용해 채소를 절이는 방법이 개발됐는데 오늘날 장아찌의 원조다. 채소 저장식품은 한겨울에도 먹을 수 있어 그만이었다. 무·가지·마늘·죽순·오이·박 등을



지난 2001년 유엔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한국 김치를 중심으로 한 '김치 규격'을 만들었다. 한동안 한국의 김치와 일본 기무치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었는데 김치의 판정승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절여 다양한 맛의 식품이 제조됐다. 서기 6세기 중국에서 간행된 제민요술(齊民要術)에는 이같은 사실이 기록돼 있다.

김치는 삼국시대로 오면서 본격적으로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했다. 소금 절임에서 천초(川椒·후추)·생강·부추·마늘·젓갈 등의 향신료가 첨가되면서 발효식품으로 발전했다. 김치류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삼국지』 「위지동이전(魏志東夷傳)」 고구려조에 등장한다. “고구려인은 술빚기, 장담그기, 젓갈 등의 발효음식을 매우 잘한다(高句麗善藏釀)”고 기록하고 있어 이 시기에 이미 저장발효식품을 생활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배추김치가 등장한 것은 조선시대. 새우젓·멸치젓·육젓 등 젓갈류가 본격 사용돼 완전한 발효식품이 됐다. 임진왜란 이후 중국과 일본을 통해 전해진 고추가 천초를 대신했으며 이때부터 김치는 빨갱게 변했다.

오늘날의 김치는 식품으로서의 효능이 크게 인정돼 세계 각국에서 연구하고 있다. 다양한 양념에서 나오는 영양분뿐만 아니라 발효 과정에서 나오는 젖산균·유산균 등은 입맛을 돋우며 장 속의 유해균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효과가 크다.

김치는 과다한 육류섭취로 인한 혈액의 산성화로 일어날 수 있는 산(酸)중독증과 암 발생을 현저히 낮춰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단백질 분해효소 펩신(Pepsin)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를 돕는다.

지난 2001년 유엔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한국 김치를 중심으로 한 '김치 규격'을 만들었다. 한동안 한국의 김치와 일본 기무치가 치열한 경쟁을 벌였었는데 김치의 판정승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2003년 중국과 동남아를 근원지로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한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예방에 김치가 효능을 보인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사스 유행 국가에 김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물론 한류열풍도 김치 수출에 효



한국문화연수에 참가한 외국인들이 떡을 시식하고 있다. 영국의 애나벨 해리슨(가운데) 씨는 “영국에서 떡볶이를 맛본 이후 떡에 중독되었는데 한국의 진짜 떡을 맛보게 되어 너무 기쁘다”며 “색상이 화려함에도 불구하고 달지 않은 은은한 맛이 한국의 진짜 떡의 맛”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사진 전한 코리아넷 기자>

자 노릇을 툭툭히 했다.

얼마 전만해도 한국식 김치의 매운 맛에는 익숙치 않았던 일본인들도 매운 맛 강한 한국식 전통김치를 선호하는 추세라고 한다. 농수산물유통공사가 2008년 5월 23일~25일까지 3일간 일본 아사히신문과 닛케이신문을 구독하고 있는 도쿄와 오사카 거주 20~60대 소비자 3백 명을 대상으로 한국산 김치의 선호도와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 조사 대상자의 81.7%가 김치를 좋아한다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59.1%가 매운 맛이 강한 전통김치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단맛이 강한 김치를 선호하는 소비자는 32%에 그쳤으며, 김치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치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로는 '매워서'라는 응답이 응답자 전체의 11.2%로 가장 많았고, '냄새가 신경 쓰여서'라는 응답도 11.8%로 나타나 향후 대일 수출 시 일본 소비자 반응을 고려한 제품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치는 효자수출 품목이다. 2011년 1억4백57만7천 달러 수출을 기록하며 수출 이후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했다. 2009년(8천9백38만6천 달러)과 2010년(9천8백36만 달러)보다는 각각 17%와 6.3% 수출실적이 증가한 것이다.

대상FNF 증가집의 경우 김치 수출 최대국인 일본 시장에서 눈에 띄는 실적을 올리고 있다. 일본 코스트코에서 판매되고 있는 맛김치의 경우 두자리수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올해는 대용량의 제품을 새롭게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일본인들의 입맛에 맞춰 2010년 본격적으로 상품화한 오징어김치도 꾸준히 판매되고 있다. 최근에는 캐나다의 최대 대형 마트인 세이프웨이와 맛김치 공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백여 개에 달하는 현지 매장에서 김치를 선보이게 됐다.

## 🌀 한국 김치의 비밀 (De zuurkool van Korea Het geheim van Kimchi)

알자스지방에 신맛의 양배추 요리가 있다면 한국에는 김치가 있다. 김치는 한국요리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한다. 야채 뿐 아니라 야채로 만든 양념까지 발효시킨 것으로, 한국에서는 주로 반찬으로 이용하고 있다.

젖산에서 나오는 효모는 맛과 향을 강화해 '다섯 번째 맛'이라고 불리는 감칠 맛을 생산해 내는데, 김치의 감칠 맛은 천연의 맛을 강조하는 일본 음식과 견줄 만하다. 김치야말로 한국의 '다섯 번째 맛'이라고 할 수 있다. (중략)

김치에 많이 들어 있는 유산균은 야채의 맛을 더욱 좋게 하고 소화를 돕는다. 뿐만 아니라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야채의 아삭한 맛을 유지시키는 것도 유산균의 작용이다.

벨기에 일간지 De Standaard, 2012년 6월 16일자

## 🌀 한국에서 느낀 음식문화

한국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무엇일까? 불고기, 김치, 삼계탕... 그날 나는 대원호텔 인근에서 한가롭게 돌아다니다가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불고기 파는 식당을 발견했다. 한참을 고민 끝에 식당으로 들어섰는데 여주인이 나 혼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마를 찌푸렸다. 훗날 알게 된 사실이지만, 한국의 많은 식당들은 '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 불판, 자리 등을 차지하고 발생하는 경제 가치도 크지 않아 무형의 낭비기 때문이다. 고로, '한 사람'은 한국 식당업계에 있어서는 공해와 같다.

이 식당 여주인은 그래도 매우 인자해서, 잠시 찌푸렸던 이마를 풀고 나를 맞이했을 뿐 아니라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종업원을 불러주었다. 나 한 사람이 방 한 칸과 불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사치였다. 사진을 보며 1만원짜리 불고기 세트를 주문했다. 잔뜩 기대하고 있는 순간 가장 유명한 밑반찬이 나왔다. 큰 쟁반에 7, 8가지 밑반찬을 가져왔는데, 대부분 김치류로 모두 나를 위한 것이었다.

그때서야 나는 무와 배추 외에도 온갖 야채나 게, 장어 등으로도 김치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한국인들의 눈에 모든 음식은 고추와 사랑에 빠져 혀를 놀래키는 멋진 맛을 연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다. 밑반찬으로 나온 부들김치와 양념계장은 정말 맛있었다. 그 맛을 잊

을 수가 없다.

20여 년 전 베이징 한 호텔에서 근무할 때가 생각났다. 당시 한국 관광객이 매우 많았는데 유럽식 조식을 먹을 때 한국사람들은 종종 조심스럽게 짙은 붉은색 병을 꺼냈다. 병을 여는 순간 그 향긋하고 강렬한 냄새가 식당 전체에 가득했다. 당시 나는 그 강렬한 냄새에 적응이 안됐는데, 지금은 한국 김치가 중국 각 마트를 석권하고, 한국드라마처럼 많은 중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는 20여 년 전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당시 한국드라마와 영화는 전혀 동경의 대상이 아니었지만, 지금 한국드라마와 영화는 아시아를 석권하고 있으며 엄지손가락이 절로 치켜 올라온다. 드라마와 영화는 그야말로 가장 좋은 판매 방식으로, 한국인들은 그것을 이용해 성공적으로 한국음식을 수출했다.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대장금」으로, 미식, 의학, 역사를 한자리에 모아 문화로 아시아 각지를 흥분시켰다.

현재 나도 김치 신봉자가 되었고, 김치는 겨울과 여름 두 계절 모두 좋은 것 같다. 내 기억에 한국의 또 다른 한 가지 음식도 매우 독특했다. 추운 것을 싫어하는 나는 매년 겨울이면 뜨거운 국물에 의지한다. 당일 서울거리를 거닐 당시 춥고 배고팠던 나는 한 식당 사진에 끌려 식당 안으로 들어가 소갈비 정식을 주문했는데, 국이 따라 나왔다. 몸이나 녹일 생각으



로 마신 그 국은 뜻밖에도 차가운 것이었고, 위에 떠 있던 두부처럼 보이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얼음이었다. 마시고 나니 위에 경련이 오는 것 같아 무정하게 국을 한 쪽으로 밀어버렸다.

따라 나온 밀반찬 세 가지도 차가운 것이어서 마음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다행히도 주문한 주식은 뜨거운 것이어서 절망하지 않아도 됐다. 사실 냉국은 한국 특색음식으로, 스페인에도 냉국이 있지만, 스페인의 냉국은 더운 여름에나 있다. 한국같이 추운 날씨에 냉국을 맛보게 하는 것은 일종의 차별이나 다름없다.

냉국 외에 한국에는 냉면도 있는데, 국민음식 가운데 하나로 중국의 량면(涼麵)과 유사하다. 그러나 한국 냉면은 오이채와 달걀 외에도 많은 양의 고추장과 얼음을 넣는다. 한국의 5월에 이런 음식을 맛본다는 것은 노래가 절로 나온다. 그런데도, 한국인들이 너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절로 질투가 났다. 보아하니 한국인들의 위는 단련이 된 것 같다.

김치, 냉면, 불고기 외에도 나는 시장에서 신선한 인삼즙을 파는 것을 보았다. 그 자리에서 주문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갈아주는 것으로 바나나우유처럼 생겼다. 그러나 나는 맛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첫째는 인삼도 약인데 그렇게 큰 잔에 한 잔 가득 마시면 후유증이 있을까봐 겁이 났고, 둘째는 그 인삼즙도 차가운 것이어서 위가 약한 나는 인삼즙을 마시고 나서 위가 불편할까 걱정이 됐다.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언급해야 하는 요리가 바로 해물파전이다. 해물파전도 한국 대표 음식 중 하나인데, 광화문 부근에는 전문점도 있으며, 노랗게 익어가는 소리만 들어도 흥분을 감출 수 없고 군침이 돈다. 해물파전 하나에 6천 원 정도 하는데 싸진 않지만 가치 있다.

상술한 음식들 외에도 한국의 포장마차 먹을거리들도 생각한다. 한국드라마들을 보면 소주를 파는 포장마차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고층빌딩 숲으로 둘러싸인 서울시 중심에 이런 먹을거리들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 포장마차에서는 순대, 떡볶이, 튀김 등을 파는데, 퇴근 시간이 되면 직장인들이 몰려와 맘껏 먹고 간다.

엄격히 말해 한국음식의 종류는 중국만큼 많지 않지만, 한국음식은 매우 특색 있고 개성이 강하다. 마치 한국국민들처럼 정직하고, 솔직하고, 대범해서 자신의 진심을 숨기지 않는 것과 같다.

음식을 통해 나는 이 민족을 이해했고, 음식을 통해 한국의 국민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한국에 자주 여행갈 수는 없지만, 한국 드라마를 보고, 매킨 김치를 먹으면 한국을 몇 번 갔다 온 것 같다.

홍콩 대공보, 2010년 12월 29일자, 王焱

# 서양을 감동케 한 K-Classics, K-Arts

## 한국인의 일상이 된 클래식

“악사(樂師)인 독일 사람 에케르트(扼巨多: Franz Eckert)는 악보를 살펴 만들어 성의껏 교습(敎習)한 공로가 있으니 특별히 훈3등에 서훈하고 태극훈장(太極勳章)을 하사했다.” 조선왕조실록, 1902년 12월 20일

1901년 대한제국은 독일인 프란츠 에케르트(1852~1916)를 궁정 양악대 지휘자로 초빙했다. 주한 독일 대사 하인리히 바이페르트(Heinrich Weipert)의 소개로 내한한 에케르트는 먼저 연주 인력을 교육하기 시작했다. 첫째 24명의 연주자를 훈련시켰으며 이듬해에는 3배 가까이 늘렸다. 대한제국 정부는 국가를 작곡해 달라고 의뢰했다. 에케르트가 작곡한 첫 애국가는 1902년 7월 1일 탄생됐다.

하느님은 우리 황제를 도우사.

만수무강하사

큰 수명의 수를 산같이 쌓으시고.

위엄과 권세를 천하에 떨치사

오천만세에 기쁨과 즐거움이

날로 새롭게 하소서

하느님은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애국가를 만든 공로로 에케르트는 그해 12월 고종황제로부터 태극훈장을 받았

국민일보 2011년 07월 02일 토요일 002면 종합

### ‘클래식 한류’ 차이콥스키 콩쿠르 휩쓸다

(세계 3대 콩쿠르)

성악 베이스 1위 박종민, 성악 소프라노 1위 서선영, 피아노 2위 손연음, 피아노 3위 조성진, 바이올린 3위 이지혜

#### 주최국도 아닌데 5명 무더기 입상 ‘이변’ 국내서 교육받은 ‘토종들’이라 의미 각별

한국 음악가 8명이 지난 30일 오후 (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14회 차이콥스키 콩쿠르를 휩쓸었다.

한국은 남녀 성악 부문에서 테이스 박종민(21)과 소프라노 서선영(27)이 각각 1위, 피아노 부문에서 피아니스트 손연음(25)·조성진(17)이 2·3위, 바이올린 부문에서 이지혜(25)가 3위를 차지해 5명의 입상자를 배출했다. 특히 손연음은 ‘심내와 챔주곡 최고연주상(Best Chamber Concerto Performance)’과 ‘챔주곡 위촉작품 최고연주상(Best Performance of the work written specially for the competition)’을 함께 받았다. 이지혜 역시 심내야 협주곡 최고연주상을 수상했다.

입상자 5명은 한국에서 음악교육을 받은 ‘국내파’들이라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다. 서선영 손연음 이지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박종민은 서울대 음대 출신이다. 이후 해외로 나간 음악가도 있지만 이들의 실력은 대개 국내에서 다져졌다. 10대 피아니스트로 3위에 입상한 조성진은 예원학교를 거쳐 서울예고 재학 중이다. 이지혜는 대회 후 본보와의 통화에서 “자기가 공부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어디서 공부하든 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최국을 제외한 한 국가에서 5명의 콩쿠르 입상자를 배출한 것은 이례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홈 어드밴티지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지혜는 “한국 음악가들은 특이 경쟁에 강한 것 같다”며 “콩쿠르에 출전할 때마다 한국이 끝까지 강국이 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고 말하기도 했다.

관심을 모았던 피아노 부문 1위는 러시아인 피아니스트 다니엘 트리프노프가 차지했다. 손연음은 “무승을 못해 아쉬웠지만 러시아에서 이보다 더 할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리자레스 콩쿠르, 폴렌드의 쇼팽 콩쿠르와 함께 세계 3대 음악 콩쿠르 중 하나다. 1938년 창설돼 4년에 한 번씩 개최된다. 피아노·바이올린·첼로·성악 부문의 입상자를 가리며, 피아노 부문에서 특히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한국은 74년 피아노 부문 창영은(2위), 90년 성악 부문 최현수(1위), 94년 바이올린 부문 제니퍼(2위) 등의 입상자를 배출한 적이 있으나 이들은 모두 미국 국적으로 수상했다. 이번이 피아니스트 박재현이 94년 대회에서 3위, 임동민·홍희영(2002년과 2007년 대회에서 각각 5위와 4위, 2007년 바이올리니스트 윤소영·신현수가 4·5위를 차지한 바 있다.

한민영 기자 hmin@kmb.co.kr

다. 서양 음악이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듯 구한말 전래된 서양의 클래식은 한국인의 음악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상이 됐다. 한국의 웬만한 가정에는 피아노가 있다. 유년시기부터 피아노 교습소를 다닌



벨기에의 최고 권위자인 De Standaard는 2012년 5월 9일자 문화면 특집으로 3개면(dS2 D1, D4, D5)에 걸쳐 '한국 음악 모든 분야를 정복하다(Musiceren is concurreren)'란 제목으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한국 음악인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이유를 집중 조명했다.

다. 바이엘, 체르니는 기본이다. 초중고의 음악교과서에 서양음악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장 자크 루소가 계몽사상가라는 사실은 알아도 그가 작곡가였다는 사실은 모른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주먹 쥐고 손을 펴서'란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초등학교에 입학하자마자 운동장에 모여서 숫자 감각을 익히는 교육용 노래가 바로 '주먹 쥐고 손을 펴서'다. 그 노래는 루소의 단막 오페라 '마을의 점쟁이(Le devin du village, The Village Soothsayer, Der Dorfwahrsager)'에 나오는 작품이다. 한국 어린이들이라면 '나가자 동무들아'라는 노래를 쉽게 읊조린다. 그것이 스코틀랜드 민요 '밀밭에서(Comin' Through the Rye)'라는 사실은 모른다.

이렇듯 음악은 나라의 경계를 넘어, 시간을 초월해 전해지는 놀라운 마력을 지니고 있다. 바로크 음악을 비롯, 서양 음악들이 오늘날 한국인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잡으리라 어느 누군들 상상이나 했겠는가!

### 유럽의 연구대상으로 부상한 K-Classics

“한국인 연주자들은 마치 이 음악[서양음악]들을 들으며 성장한 것처럼 바이올린 위로 활을 움직인다. 어떻게 이들은 주어진 곡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왜 많은 한국인들이 음악분야에 진출하며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는가?”

지난 5월 벨기에 공영방송 RTBF는 '한국 음악의 비밀(Le mystère musical Coréen)'이란 다큐멘터를 방영했다. 이 다큐는 올해 퀸엘리자베스 콩쿠르 결승 1차전에 총 16명의 한국인이 진출한 것에 주목했다. 좀 더 부연하면 1995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은 명망 있는 대회에서 결승 진출자를 배출해내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 그들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6년이 지난 지금 3백78명의 한국인들이 결승진출이라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이 가운데 60명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가장 많은 수상자를 배출한 부문은 성악으로 대상 수상자는 30명에 달해 전체 대상 수상자의 50%를 차지한다. 지난 2009년은 한국 음악인들이 세계대회를 휩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 세계 콩쿠르 결승 진출자 중 한국인은 51명으로 이 결과는 명망 있는 대회의 전 분야에서 나타난 기록이다. 플루트, 클라리넷과 같은 악기 연주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 오르간 연주 또한 실력을 인정받았으나 성악분야야말로 한국인들의 실력이 가장 돋보이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바이올린과 피아노 분야는 성악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이나 우수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과연 한국 음악교육의 비밀은 무엇이며, 왜 세계 각국의 우수한 음악 경연대회에



서 한국인들은 결승에 진출하는지 의문을 풀기 위해 두 명의 프로듀서 티에리 로르(Thierry Lorreau)와 피에르 바레(Pierre Barre)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방문해 어린 음악도들의 인고의 과정을 가감없이 화면에 담았다.

카메라는 이번 콩쿠르에 진출한 두 사람, 바이올린 연주자 김봄소리가 그녀의 교수와 함께 연습하는 장면, 2009년 파리의 롱 티보(Long-Thibaud)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신현수의 연습장면을 전하며, 한국 음악인들이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 중 하나는 다른 분야에서와 같은 끊임없는 훈련이라고 분석했다.

한국 음악인들은 최고의 기량을 위해 노력하고 정신력을 바탕으로 한 자기자신과의 싸움을 극복한다. '어린 바이올린 연주자들에게는 어린 시절이 없다'는 벨기에가 낳은 바이올린의 거장 아루트르 그루미오(Arthur Grumiaux)의 말을 떠올리게 된다.

## 오페라의 본바닥에서 인정받은 '김치 클래식'

외국인이 한국의 트로트 가요를 능숙하게 부를 수는 있다. 그러나 한국인을 감동케 하기는 정말 어렵다. 노래에는 부르는 이의 음성뿐만 아니라 정서와 감성도 담겨 있기에 더더욱 그렇다.

그런데 한국의 성악도는 해내고 있다. 더군다나 오페라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에서 말이다. 2012년 6월 17일 이탈리아의 오페라 거장 베르디의 고향 부세토(Busseto)에서는 제50회 베르디국제성악콩쿠르가 개최됐다. 이탈리아 내에서도 권위있는 콩쿠르로 베르디 오페라곡으로만 경연을 벌이며 우승 상금은 1만 유로. 15개



한국인 성악가들의 약진을 보도한 이탈리아 일간지 Il Giornale 기사.

국, 1백40여 명이 참가한 대회에서 한국의 성악가가 1, 2, 3위를 차지했다. 테너 김정훈(24·서울대 성악과 4년), 김주택(26·밀라노 베르디음악원 졸), 윤승환(34·전남대 졸, 밀라노 베르디음악원 재학) 씨가 주인공들이다. 김정훈 씨는 최연소 우승자로 기록됐다.

현지 일간지 Il Giornale는 '오페라의 X-factor, 한국인이 있다'라는 제목의 2012년 6월 18일자 기사에서 많은 한국 유학생들이 이탈리아로 유학 오고 있고 최근 크게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베르디콩쿠르에서도 한국인 성악가들이 1, 2, 3위를 모두 차지했다고 관심을 보였다. 이어 신문은 1위를 차지한 24세의 김정훈은 오페라 가면무도회의 리카르도 백작 역을 훌륭하게 소화해냈으며, 2위를 수상한 김주택 역시 가장 어려운 베르디 아리아인 '그대의 빛나는 미소'를 불러 심사위원장인 레오 누치(Leo Nucci)의 격찬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3위 역시 이탈리아 소프라노 제시카 캄비오와 경합했으나 한국인 테너 윤승환이 차지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장은 이들의 열



'세계 오페라 무대의 떠오르는 보석'으로 평가받고 있는 연광철(왼쪽)과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  
 <사진제공 주독일한국문화원>

창에 기립박수를 보내는 등 콩쿠르는 사실상 한국인의 독무대였다.

한국 연주자들은 거침이 없다. 2011년 2월 20일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성악가 연광철을 '덩치는 작으나, 노래는 거인처럼(Standing Small, Singing Big, All Sulfur and Zest)'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베이스 연광철을 집중 분석했다. 뉴욕타임스의 클래식 음악평론가 매튜 그루윗시가 쓴 이 기사에서 세계적인 지휘자 대니얼 바렌보임과 역시 오페라계에 서 큰 이름을 날리고 있는 연출가 데이비드 맥비카는 연씨의 예술성을 높이 평가했다. 그루윗시는 연광철이 자라난 환경,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무대에서 활동하게 된 과정, 뉴욕의 메트로폴리탄오페라(메트오페라) 무대에 진출하게 된 이후의 활동상황을 상세히 전했다. 뉴욕타임스가 한국 출신 성악가를 이처럼 장문의 기사를 써서 소개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그루윗시는 뉴욕의 오페라팬들이 2008년 연광철이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에서 마르케왕의 역할을 해내는 것을 보고 그의 진가를 알게 됐다고 전했다. 연광철은 지난 2008년 바그너 오페라 팬들에게는 성지라고 할 수 있는 바이로이트 바그너오페라 축제에서 '파르지팔' 신작의 구르네만츠 역을 훌륭히 소화해 내면서 찬사를 받았다. 바렌보임은 이 기사에서 연광철이 몸집은 (서양인들에 비해) 작은 편이지만 무대에서 그는 위엄이 넘쳐 흐르다고 평가했다.

1965년생 연광철은 충주 대원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주대학교에서 성악을 공부했다. 베를린 국립예술대학 성악과에 재학 중이던 1993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플라시도 도밍고 제1회 국제성악콩쿠르에서 우승하면서 유럽무대에서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1994년 졸업과 동시에 베를린 국립오페라 극장에서 솔리스트로 활동을 하게 됐다. 세계 빅3 테너 중 한 명인 플라시도 도밍고는 연광철을 '세계 오페라 무대에 떠오르는 보석'이라고 칭찬했다. 연광철은 2002년 독일 바이로이트 축제에서 바그너 오페라 '탄호이저'의 헤르만 영주로 출연한 후 현지 언론으로부터 '바그너가 찾던 바로 그 목소리'라는 찬사를 받았다. 독일에서는 차세대 3대 베이스 중 하나로 기대를 모아왔다.

독일 바이에른주에서 열리는 바이로이트 축제(Bayreuth Fest)는 작곡가 리하르트 바그너(Wilhelm Richard Wagner, 1813~1883)의 작품들이 상연된다. 1876년 바그너가 자신의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 첫 공연을 하면서 시작된 바이로이트 축제는 전 세계 바그너 애호가들에게 성지순례 코스다. 독일의 낭만주의를 대변하는 이 축제에 동양인이 참가하는 것은 좀체 드문 일이었다. 2012년 7월 25일 한국인 베이스 바리톤 사무엘 윤(윤태현·

그동안 대중예술의 확산만 한류로 인식해왔으나 한류는 끊임없이 진화하며 외연을 넓히고 있다. 미술, 무용 등 한국의 순수예술에 대한 호응도 점차 눈에 띄고 있는 것이다.

4) 씨가 25일 시작하는 독일 바이로이트 축제 개막 오페라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의 주역으로 전격 발탁됐다.

지난 2004년부터 이 축제에 참여해 온 사무엘 윤은 올해 ‘로엔그린’에서 왕의 대변인 헤어루퍼 역을 맡았다. 그는 올해 바이로이트 축제에서 각 6회씩의 ‘방황하는 네덜란드인’과 ‘로엔그린’에 출연, 모두 12차례나 무대에 오르는 중심인물이 됐다. 바그너는 게르만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다. 순수 독일을 강조하고 독일 색채가 강한 무대에서 한국 출신 음악도가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체가 역설적 경이이다.

### 세계와 소통하는 K-Arts

지난 1997년, 독일 정부는 동양 출신의 한 작가를 기리는 우표를 발행했다. 주인공은 다름아닌 백남준(1932~2006). 우리에게 현대미술가로 기억되는 백남준의 영역은 한마디로 말해 ‘광대무변(廣大無邊)’ 그 자체다. 포스트모더니즘 계열에서 가장 도발적이고 혁신적인 예술가란 평가를 받는다. 음악, 미학을 뛰어넘어 선이나 도교 등 폭넓은 사상과 철학을 포용하는 예술 콘셉트에는 한국 전통의 ‘해학정신’, ‘테크놀로지와 엘렉트로닉 미디어의 인간화’, ‘동서양의 융합’이 예술 세계에 깔려 있다.

독일 중북부의 도시 카셀(Kassel)에서 5년마다 열리는 현대미술전시회 ‘카셀 도큐멘타’는 백남준과 인연이 깊다. 백남준은 1977년 초청받았으며 뒤를 이어 육근병이 1992년 초청받았다. 13회째를 맞은 2012년 행사에는 20년 만에 전준호·문경원·양혜규 등 3명의 한국 작가가 초청받았다. 이들은 2012년 카셀 도큐멘타의 예술감독인 캐롤린



세계 3대 비엔날레 중 하나인 '카셀 도큐멘타'에 초대된 백남준의 작품을 기념해 독일정부가 발행한 우표.

크리스토프 바카르기에프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았다. 지난 2010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예정지인 옛 기무사터에서 열린 전시에서 이들의 작품을 본 캐롤린이 관심을 가지면서 참가가 이뤄졌다.

그동안 대중예술의 확산만 한류로 인식해왔으나 한류는 끊임없이 진화하며 외연을 넓히고 있다. 미술, 무용 등 한국의 순수예술에 대한 호응도 점차 눈에 띄고 있는 것이다.

한국 예술인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유수의 전시회에 초대 받는 것은 물론 유명미술관의 한국작가 작품 소장도 늘어나고 있다. 사진작가 정연두 씨는 미국 미술 전문지 아트앤옥션(Art+Auction) 2012년 6월호에서 ‘가장 소장 가치 있는 50인의 작가’로 선정됐다. 아시아계 작가로는 그가 유일하다. 뉴욕현대미술관(MoMA)은 한국작가로는 백남준에 이어 두 번째로 그의 작품을 소장하기도 했다.





세계 정상급 발레단에 한국 무용수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예술종합학교>

한편 지난 7월 6일 세계 정상급 발레단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ABT)는 한국인 발레리나 서희가 ABT 수석 무용수로 승급했다고 밝혔다. ABT 75년 역사에 한국인이 수석 무용수가 된 것은 처음이다. 서희는 2005년 ABT에 입단해 지난 2006년 군무를 추는 코르 드 발레로 활동했다.

서희는 지난 2003년 스위스 로잔 콩쿠르에서 4위 입상했으며 같은해 유스 아메리카 그랑프리에서 시니어 부문 대상을 받았다. 세계 메이저급 발레단에서 수석 무용수로 활동 중인 한국인 발레리나는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소속의 강수진, 강효정을 포함해 총 3명으로 늘어났다.

## 스웨덴 언론에 비친 한국춤의 매력

**예술적 공격성의 파장** | 체조 강국 한국의 면모가 잘 드러난 공연이었다. 남자 무용수들은 공연 내내 잔잔한 유머와 함께 에너지 넘치는 하이킥과 몸짓으로 관중에게 접근했다. 현재 유럽 투어 중인 한국 무용그룹 Korea-A-Moves 소속 3개의 무용단이 이번주 스톡홀름 Dansens hus(무용 전용극장)에서 두 차례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두 차례 공연으로 한국 현대무용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으나 화요일 개막 공연에서 이 무용단은 '세계화'라는 추세를 분명히 반영하고 있었다.

화요일 공연 첫 번째 주제인 'Promise'는 Steve Reich의 미니멀리즘(minimalism: 단순함을 추구하는 예술 추세. 1960~1970년 미국의 시각 예술과 음악을 중심으로 발생) 방식으로 표출됐다. 'Modern Feeling'의 경우 인간관계 보편의 상호교류, 경쟁 그리고 적응이라는 주제를 유쾌하게 담아냈다. 'No comment'에서는 8명 무용수가 손바닥으로 가슴을 치며 올려내는 심장박동이 주요 리듬을 이루며 관객들에게 존재를 위한 투쟁을 선보이듯 다가왔다. 배경 음악도 영국식 Transglobal Underground를 만난 듯한 인상을 주었고 이 공연은 다른 문화 간 충돌이 아닌 새로운 문화를 과감하게 연결시켜서 신선한 예술적 감각을 일깨워주는 매력을 선보였다.

Svenska Dagbladet, 2010년 11월 18일자

놀라운 봄의 사육제(Rite of Spring) | 화요일 공연이 현대적, 도시적 스타일을 보여주었다면 금요일 공연은 전통적 바탕의 현대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선 'Three nights, Three days'는 전통과 현대의 화합을 모색하는 모티브를 바탕으로 한 안무를 선보였다.

한국의 전통 종교인 불교의 장례식에 기초한 공연은 죽음을 애도하는 흰색 차림의 무용수들과 장례식장을 장식하는 붉은 꽃과 카드들이 어울려서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다양한 감정들을 표출했다.

금요일 공연의 대미를 보여준 'Rose'는 안성수가 재해석한 '봄의 의식'을 표출했다. 이고르 스트라빈스키(Igor Stravinsky)의 음악과 1900년대 모더니즘에 기초를 둔 스타일리쉬한 안무가 돋보였다.

Maurice Bejarts의 봄의 의식에서 나타난 성적 매력이나 Pina Bausch의 봄의 의식에서 보여진 연약함과는 차별되게 이번 안성수의 '봄의 의식'은 의식 자체가 인간 스스로의 정체성을 탐구해가도록 이끌어 주고 있다. 이 공연은 고전에 대한 놀라운 재해석을 보여줬으며 무용수들이 표현한 인체의 아름다움 또한 매우 돋보였다.

Svenska Dagbladet, 2010년 11월 21일자

한국 무용: 길거리춤, 전통 그리고 스트라빈스키의 공존 | 1990년대 한국 고전무용단 스톡홀름 공연과 이번 Korea-A-Moves 현대무용단 공연을 비교하면 고전무용이 정적이고 함축적이었던 반면 이번 공연은 매우 역동적이고 현대적 안무를 선보여 신선하고 놀라웠다.

현재 유럽 순회공연 중인 한국 현대무용단 Korea-A-Moves 공연은 현대적이고 국제화되어 있으며, 길거리 춤(Street dance)과 격투기가 혼합된 것과 같은 안무를 불교 전통과 현대 무용의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다.

오늘날 한국의 전체 인구 약 4분의 3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번 한국무용단 공연의 도회적 성격은 그리 놀랍지 않다. 이 무용단이 선보인 현대적 색채의 안무는 세계 어떤 대도시에서 공연되더라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Dagens Nyheter, 2010년 11월 21일자

## 세계 속 한국어와 K-Literature

### 세계 속 한국어

십수년 전만 해도 서울 종로구 사간동의 프랑스문화원은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명소였다. 당시만 해도 국내에서 유럽 영화를 볼 기회는 드물어 문화원에서 상영하는 영화들은 문화 소통로 역할을 톡톡히 했다. 지난 1969년 개원한 이래 국내 영화계 지망생들 사이에 ‘프랑스문화원 사단’이 생겨날 정도로 큰 영향을 주었다.

영화감독 정지영·장길수·박광수·곽지균·신승수·김홍준·이세민, 영화평론가 유지나 씨 등이 ‘프랑스문화원 사단’이 배출해낸 인재였다. 프랑스 영화감독 장 르누아르의 이름을 딴 ‘르누아르관’은 월~토요일 오후 두 차례, 한 달에 10편가량 유럽 영화들을 소개했다. 젊은이들은 제한된 공간에서 조금이라도 유럽의 문화를 알려고 애썼다. 프랑스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한 고등학교도 많았고 웬만한 대학에는 불문학과가 개설돼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웠다.

오늘날에는 반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파리의 한국문화원 앞은 한국어 강좌에 등록하려는 학생과 직장인들로 장사진을 연출하고 있다. 한국어를 배우는 수강생은 15개 학급에 모두 4백여 명. 대학에서도 한국어는 정규 과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어가 정식 학과로 개설된 곳은 8개 대학, 학생 수도 1천 명이 넘는다. 한국어를 제2, 제3외국어로 채택하는 고등학교까지 생겨나고 있다. 이같은 한국어 학습열기 고조는 한류의 급속한 확산과 높아진 경제적 위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한국드라마나 K-Pop 등 한국의 대중문화가 계기가 돼 학습을 시작하지만 점차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경제적인 목적 등 실생활의 이익과 연계되며 지속성을 띠고 있다.

해마다 50개국에서 40만~50만 명의 외국인이 한국어능력시험(TOPIK, Test of Proficiency



세종학당 분포도(총 43개국 90개소).

in Korean)를 치른다. 2012년 현재 한국어를 가르치는 세종학당이 설치된 나라는 43개국, 90곳에 이른다. 일례로 2012년 7월 신규 지정된 세종학당은 멕시코 나야리트, 브라질 상레오폴두, 칠레 산티아고, 콜롬비아 보고타, 독일 튀빙겐,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 이탈리아 베네치아, 뉴질랜드 오클랜드, 라오스 루앙프라방, 몽골 울란바토르,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중국 항저우, 카자흐스탄 탈티쿠르간,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 등으로 전 세계에 걸쳐 있다.

베트남에는 13개 대학에 2천5백여 명의 학생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 한국어과 졸업생은 100%의 취업률을 보여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외국어 선호도에서 식민지 언어였던 프랑스어를 제친 지 오래 되었고 최근에는 일본어와 순위다툼을 할 정도로 한국어의 위상이 높다.

2011년 미국 캘리포니아주 동북부의 샌라몬 교육구내 도허티벨리교가 한국어를 정규 외국어 과목으로 채택했다. 캘리포니아주 셀리나스 지역의 존 E.스타인백 초등학교도 2011년 겨울 학기부터 평균성적 98점 이상인 영재학생을 위한 심화학습 프로그램으로 방과후 한국어를 일주일에 3시간씩 가르치고 있다. 뉴저지주 리치필드





세계 각국의 한국문화원과 세종학당에는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룬다.



고교도 한국어반을 개설해 40여 명의 학생이 수업을 받고 있는 등 정규과목으로 한국어반을 개설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어 과목을 채택한 미국의 공립학교는 2010년 10곳이 늘어 60곳에 이르며 점차 늘어나고 있다.

세종학당에 입학하기 위해 재수, 삼수 하는 사례도 적잖다. LA세종학당의 경우 수강생의 인종별 분포를 보면, 한국어교실이 개설된 1995년에는 수강생 중 순수 외국인 비율이 25% 정도였으나 2011년 10월 현재 80%에 이르렀고, 특히 초급반은 90%가 다른 인종들로 이뤄져 있다. 2008년 이전에는 한국어 수강생이 매년 평균 8백여 명이었으나 2009년에 9백60명, 2010년에 1천2백70명, 2011년에는 1천4백 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문화원의 수용공간으로 수용하기 어려워 매학기 1백여 명이 대기자로 등록하고 있을 정도다.

한국어의 글로벌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 10월 한글주간에 맞추어 한국어 방송 강좌가 전 세계 73개국 4천8백만 가구에 송출되는 KBS World 채널을 통해 방영

된다. 또한 한국어 학습 누리집인 누리-세종학당([www.sejonghakdang.org](http://www.sejonghakdang.org))에서도 서비스되므로 한국어 학습을 희망하는 전 세계 학습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2011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송공사가 체결한 ‘한국어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13년에도 드라마와 대중가요뿐만 아니라 다양한 한국문화를 포함한 한국어 강좌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는 세종학당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종학당재단’이 2012년 10월 출범했다. 세종학당재단은 5월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어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공공기관이다. 세종학당 본부의 역할을 하며 개별 세종학당에 교육과정, 교원 파견, 교재 개발 등을 총괄 지원하게 된다. 해외에서 한국과 한국문화를 알릴 수 있는 날개가 달린 셈이다.

## 세계를 감동케 하는 K-Literature

지난 2009년 9월 발행된 독일어권 최고 권위의 문학사전 '킨들러 문학사전'(KINDLERS LITERATUR LEXIKON) 최신판에는 한국의 생존 작가 15명을 포함, 고전·근현대 문학 작가 30명이 대거 실렸다. 세계문학의 중심에 있는 독일어권에 한국문학과 작가를 알리는 의미있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전 출간본에서 한국작가를 거의 다루지 않았던 사실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일이다.

신라 말의 최치원을 비롯, 김시습·정철·황진이·박인로·윤선도·김만중·박지원 등 조선시대 문인 7명이 등재됐다. 근현대 작가로는 한용운·이광수·김소월·김동리·김수영·박경리·이청준·박완서 등 작고 문인 8명, 이호철·고은·최인훈·황동규·오태석·김광규·김지하·김원일·황석영·이강백·오정희·이문열·황지우·김혜순 등 생존 문인 14명이 소개됐다.

문학은 인간의 의식 속에 오랫동안 머물며 정신세계에 영향을 준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세계문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아왔다. 근대화 이전에는 중국 한문학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으며 근대화 이후에는 서구와 일본문학의 세례를 받았다.

한국 문학작품이나 한국작가의 작품이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나 조금씩 외국인들의 감성을 움직이고 있다.



독일어권 최고 권위의 문학사전 「킨들러 문학사전」.

외국 저작물에 대한 비중이 3% 이하에 불과하고 그중에서도 문학은 1%에 못 미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진입 장벽이 높다는 미국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문학과 보편성 그리고 대중성을 평가받은 것이다.

신경숙의 장편소설 『엄마를 부탁해』는 2011년 봄 미국 문화의 심장부인 뉴욕에서 영역본이 출판되며 세계무대에서 화려한 데뷔를 했다. 미국의 대형 출판사인 크노프(Knopf)에서 Please Look After Mom 제목으로 출간된 이 책은 초판만 10만 부가 발행되었고 그 후 10쇄를 거듭했다. 어머니와 가족이라는 보편적인 소재를 섬세한 필치로 그려냈다는 호평을 얻으며 한국문학 작품으로는 처음으로 뉴욕타임스 선정 베스트셀러 리스트에도 올랐다. 세계 최대 인터넷서점 아마존닷컴이 선정한 '2011 문학·픽션' 부분 올해의 책 베스트 10'에도 선정되었다. 이 여세로 세계 34개국에 판권이 팔렸으며 이미 17개국에서 출판되었다. 또한 미국 랜덤하우스 계열 출판사인 빈티지 앵커북스에서 대중보급판인 페이퍼백판으로 출판되기도 했다.

외국 저작물에 대한 비중이 3% 이하에 불과하고 그중에서도 문학은 1%에 못 미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진입 장벽이 높다는 미국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문학과 보편성 그리고 대중성을 평가받은 것이다. 이 작품으로 신경숙은 2012년 '맨아시아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영국 최고 권위의 문학상인 '맨부커상'을 후원하는 맨(Man)그룹이 2007년에 만든 상으로 아시아 35개국 작가를 대상으로 영어로 쓰였거나



프랑스의 시 전문 문예지 「포에지(POÉSIE)」 2012년 여름호 전체를 한국특집으로 다뤘다. <사진제공 한국문학번역원>



영어로 번역된 소설을 심사, 수상하는 '아시아의 부커상'으로 불린다. 이후 신경숙의 후속 작품의 해외 판권 계약이 이어지고 다른 한국 작가 작품의 해외 판권 계약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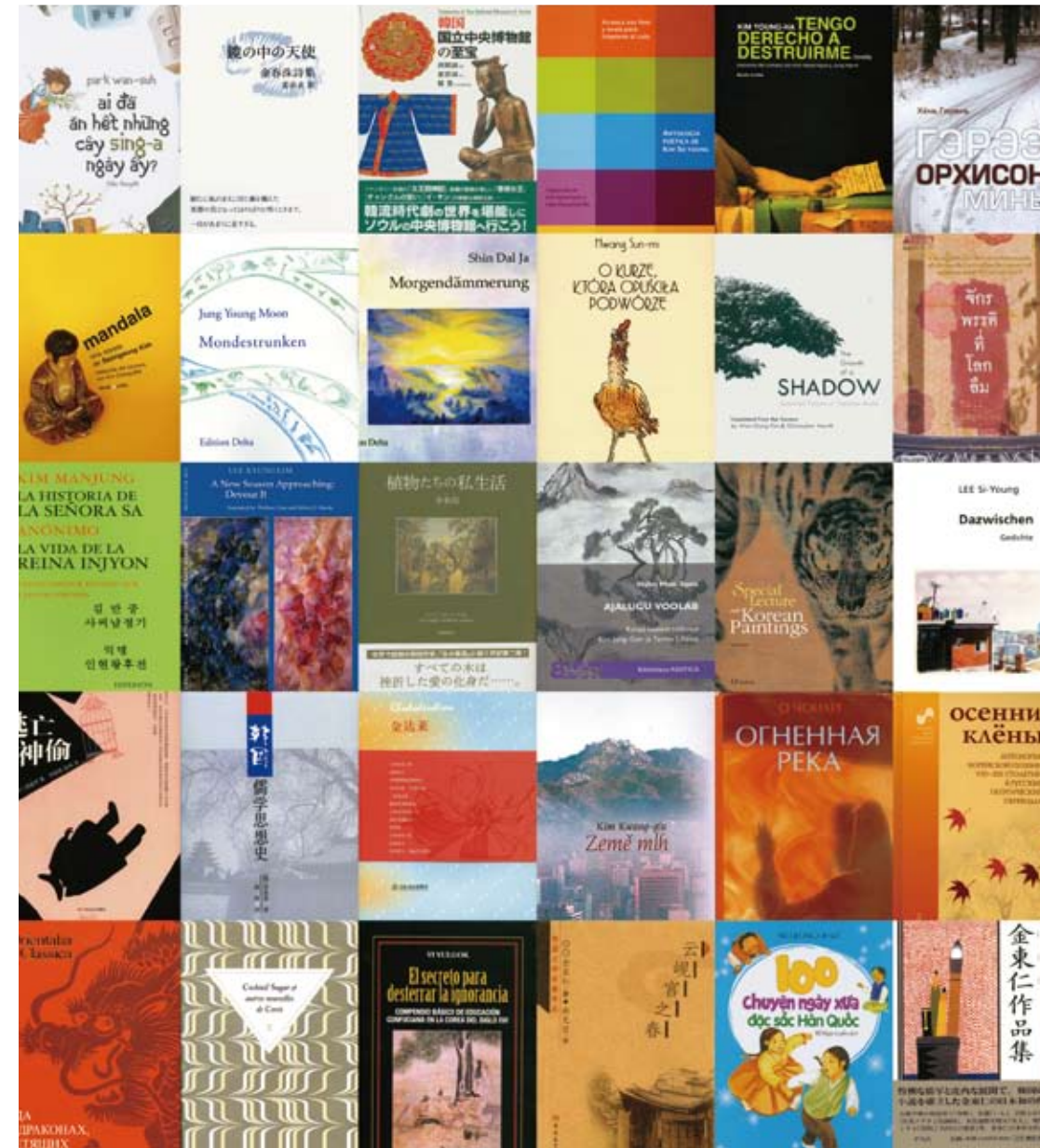
한국문학을 서구에 알리는 데 선구적 작가가 강용홀(姜龍訖, 1903~1972)이다. 함경남도 흥원 출신인 그는 함흥 영생중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항일 학생단체에 가담하여 3·1운동에 참가했다가 투옥됐다. 몇 개월 수감생활을 마치고 출옥 후 미국인 선교사의 도움으로 1921년 캐나다, 미국을 전전하다 보스턴대에서 의학을, 하버드대에서 영미문학을 전공했다.

지난 1931년 3·1운동을 배경으로 국권상실과 한국 고유의 정서를 자전적으로 그린 소설 『초당草堂, The Grass Roof』이 뉴욕에서 간행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당시 유엔월드지는 “살아 있는 한국사람 중 가장 유명하다”고 극찬했다. 구겐하임(Guggenheim) 상, 금세기의 책(The Book of the Century)상, 카민스키상, 와이즈메모리얼상 등을 수상하고 풀리처상 후보에까지 올랐다.

독일·프랑스·유고슬라비아·체코 등 10여 개국어로 번역된 『초당』은 미지의 나라 조선의 역사와 전통, 일제에 대한 저항 등을 훌륭하게 소개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초당』 외에 『행복한 숲 The Happy Grove』(1934), 『동양인 서양에 가다 East Goes West』(1965), 『낙천적 방원』, 희곡 『공정의 살인』(1935) 등 주로 자신의 한국에서의 유년시절, 한국과 한국인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꾸준히 발표했다.

번역서로 『동양의 시 Oriental Poetry』(1929), 아내 프랜시스 킬리와 공역한 한용운의 『님의 침묵』(1971) 등이 있다.

독일 고등학교 교과서에 등장하는 한국 작가가 있다. 『압록강은 흐른다 Der Yalu



다양한 언어로 출판되고 있는 한국문학 작품과 저작물들. 정선문화 소통을 통해 한국문학을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문학번역원>



fliessst』의 이미륵(李彌勒, 1899~1950)이다. 본명이 이의경(李儀景)인 그는 최초로 독일어로 작품을 써 독일에 한국을 알린 인물이다. 『압록강은 흐른다』는 지난 1946년 독일 유수의 피퍼(Piper Verlag)출판사가 선정한 외국인이 쓴 가장 우수한 작품으로 뽑히기도 했다.

황해도 해주 태생의 이미륵은 경성의학전문학교 재학 중 1919년 3·1운동에 가담, 일제의 탄압을 피해 압록강을 건너 상해를 거쳐 1920년 독일에 정착했다. 뷔르츠부르크 대학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했고, 뮌헨 대학으로 옮겨 동물학, 철학 등을 전공했다. 1928년에 동물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전공보다는 문학에 전념하여 문예지 다메(Dame)를 통해 작가활동을 시작한다. 『압록강은 흐른다』는 구한말에 태어난 주인공이 한학, 서양식 교육을 받게 되는 과정, 대학에 입학하여 3·1운동에 가담하다가 일제의 탄압을 피해 상해로 망명, 상해에서 다시 우여곡절 끝에 유럽으로 향하는 자전적 스토리가 유려하게 펼쳐지고 있다.

김은국(Richard Eunkook Kim, 1932~2009)은 한국전쟁 당시 한 목사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 『순교자The Martyred』를 미국에서 발표하여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독일어 등 20개 언어로 번역되었다. 이 작품은 1965년에 유현목 감독에 의해 한국에서 영화화되었으며 1967년 노벨문학상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1990년대 프랑스에서 크게 주목받은 바 있는 이문열은 미국의 세계적 저작권 에이전시인 와일리(Wylie)와 계약을 체결하고 2001년 미국의 대형 상업출판사인 하이퍼리온(Hyperion)에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The Twisted Hero』를 펴냈다.

또한 단편소설 『익명의 섬An Anonymous Island』이 한국소설로는 처음으로 2011년 9월 12일자 뉴욕커에 번역되어 실리면서 주목받았다. 뉴욕커에는 오에 겐자부로, 오르한

파묵, 무라카미 하루키 등의 작품이 실리면서 세계적 작가로 알려지게 됐다. 1년에 외국작가는 한 명 정도만 소개할 정도로 입성하기 어려워 이 잡지에 작품이 게재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2000년대 들어 세계에서 가장 주목한 한국의 문인은 고은 시인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유력한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현재 31종이 넘는 고은 시인의 작품은 12개 언어로 번역되어 미국·프랑스·스웨덴 등 12개국에서 출판되었고 현재도 여러 작품이 번역 중이거나 출판을 서두르고 있다. 고은 시인이 세계와의 소통 과정에서 얻게 된 긍정적인 결과들은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앞으로 국경과 언어를 뛰어넘는 작가의 작품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⑥ 유럽에서의 한국문학

2000년대 이후 한국문학에 큰 관심을 보여 온 프랑스 줄마(Zulma)사에서 출판된 이승우와 황석영의 작품들이 프랑스 언론과 독자, 서점들로부터 연이은 찬사와 호평을 받았으며, 프랑스의 저명한 문학상 가운데 하나인 페미나상의 외국문학 부문에서 각각 최종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이승우의 장편소설 『생의 이면L'Envers de la vie』 프랑스어판은 2000년에 출판되자 프랑스의 르몽드(Le Monde), 르피가로(Le Figaro), 라크로와

(La Croix), 스위스의 르탕(Le Temps) 등 주요 일간지들이 일제히 문화면 머리기사나 전면 특집기사로 크게 보도하는 등 큰 반향이 있었다. 또한 2006년 펴낸 이승우 장편소설 『식물들의 사생활La Vie Révée des Plantes』은 연이은 호평 속에 한국문학 작품으로는 처음으로 프랑스 최고의 갈리마르 출판사의 폴리오(Folio) 포켓판 시리즈로 2009년 재출간되었다.

이 시리즈는 1972년 시작된 이래 알베르 카뮈, 생텍쥐베리부터 르 클레지오에 이르는 세계적인 작가의 대표작을 아우르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보급판 시리즈로, 이승우 작품이 여기에 포함됨으로써 “이승우가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올랐다는 점과 함께 대규모 인쇄판 보급으로 인해 불어권에서 다시 한 번 이승우 열풍을 기대케 한다”는 평을 받았다.

황석영의 작품은 2002년 『한씨연대기Monsieur Han』를 시작으로 『손님L'Invité』, 『심청Shim Chong, fille vendue』에 이르는 대표작들이 줄마를 통해 집중적으로 소개되며 한국을 대표하는 사회참여(양가주망-engagement) 작가로 높이 평가받았다. 『오래된 정원』이 르몽드의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는 등 호평 속에 갈리마르와 함께 프랑스 문학을 대표하는 출판사로 꼽히는 쇠이유(Seuil)의 문고판 시리즈에 『한씨연대기』, 『삼포 가는 길La Route de Sampo』, 『심청』이 판권 계약을 맺었고 『심청』이 출간되었다.

스웨덴 유력 일간지 Svenska Dagbladet는 2012년 6월 30일 황석영 작

가와의 인터뷰를 실었다. 이 신문은 황 작가의 출생과 성장배경, 문단 등단 계기 등을 설명하고, 한국문학에서는 낯선 주제인 노동과 생산, 부와 빈곤의 문제 등을 다루며 1980년대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미친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최근 스웨덴어로 출간된 『오래된 정원』은 1998년 황석영 작가가 출옥 직후 집필한 소설로, 작가 자신의 민주화 투쟁에 대한 기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황 작가는 『오래된 정원』의 창작 과정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치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 세계 속에 우뚝 선 K-Sports

### 한국인의 적은 '한국인'?

2012년 런던올림픽 양궁장에서 재미있는 모습이 연출됐다. 7월 28일 런던 로즈 크리켓 그라운드에서 열린 양궁 단체 결승전. 이탈리아와 미국팀 감독은 모두 한국인. 이탈리아에 첫 금메달을 안긴 주인공은 석동은 감독과 박영숙 코치였다. 석 감독은 영국팀 감독도 지냈다. 준결승전에서 한국을 꺾은 미국팀의 이기식 감독은 2005년 미국 대표팀을 맡은 이래 단체랭킹 1위로 올려놓았다. 미국은 준결승에서 한국을 5점 차로 누르고 한국의 올림픽 4연패를 저지했다.

한국과 동메달을 다툰 멕시코는 한국 대표팀 코치 출신 이용 감독이 지휘하고 있다. 멕시코팀의 이상현 코치와 우송희 코치도 한국 대표팀 선수 출신. 한국 양궁의 최대 적은 바로 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국인 감독이 됐다.

3, 4위전을 치른 한국과 멕시코의 감독도 모두 한국인이다. 한국 출신 지도자들이 메달을 휩쓴 셈이다. 이번 대회 양궁 경기에 참가한 40개국 가운데 한국인이 지도자인 나라는 모두 12개국. 양궁의 한류 바람이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증거다. 스페인 조형목 감독은 인천 계양구청 선수 출신이다.

이밖에 브라질 임희식 감독, 말레이시아 이재형 감독, 태국 김선빈 감독이 전 한국 국가대표 출신이다. 그루지아 안형승 감독, 콜롬비아 김학룡 감독, 이집트 문백윤 감독, 필리핀 정재현 감독도 한국의 양궁을 세계에 알리는 지도자이다. 이들 양궁 지도자는 강인한 정신력을 강조하는 한국식 훈련법으로 훈련을 시킨다. 이러한 훈련을 받은 각국 선수들은 한국선수를 위협하거나 능가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7월 27일 '한국 사람을 내놓아라. 아무나 괜찮다'는 제목의 기사에



올림픽 양궁 종목에 참가한 40개국 가운데 한국인 지도자인 나라는 12개국이나 될 정도로 한국인 감독 '모셔가기' 경쟁이 뜨겁다.

서 최근 “반도체, 선박, 스마트폰을 수출하는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에 양궁 감독을 포함하라”면서 한국 양궁 실력과 훈련 방식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로이터는 “2012 런던올림픽에서 한국인 양궁 코치가 미국, 말레이시아, 브라질, 필리핀 등 여러 나라에서 명품보다 높은 가치를 지닌 필수품으로 떠올랐다”며 한국이 지금까지 올림픽 양궁에서 금메달 16개를 포함해 30개를 휩쓸어간 양궁 강국이라며, 세계 곳곳에서 한국인 감독 ‘모셔가기’ 경쟁이 일어났다고 소개했다.

미국 태권도 대표팀의 단장과 코치진도 전원 한국 출신 지도자로 채워졌다. 용인대 출신인 김우섭 사범을 단장으로, 한국 국가대표 출신인 하태경, 김준규 사범이 각





로스앤젤레스올림픽 여자배구 한국과 페루의 경기에서 페루의 영웅 박만복 감독(오른쪽)이 한국팀의 이창호 감독과 인사하고 있다.

각 남녀팀 감독을 맡았다. 김 단장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윈스텀 세일럼에서, 하 감독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김 감독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 출신 스포츠 지도자들이 활약하고 있다. 남미 페루에서 한국인 박만복 씨는 스포츠계 신화이다. ‘맘보 박’으로 불리는 박 감독은 페루 배구를 세계 정상급으로 끌어올린 주인공이다. 1974년~93년까지 20년간 페루 여자국가대표 배구감독으로 있으면서 세계대회 우승, 88올림픽 은메달까지 따내며 페루 국민영웅이 됐다. 지금도 페루 여자배구의 총감독이다. 페루 수도 리마 도로변에 세워진 한국 가전제품 광고탑 모델로 활동할 정도로 페루에서 인기가 높다.

박 감독은 1974년 1년 계약으로 페루 여자배구 감독을 맡았다. 그의 지도력으로 페루 여자배구는 1982년 세계대회 준우승, 19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 4위, 1987년 세계대회 전승 우승의 대기록을 세웠다. 1988년 서울올림픽에선 결승까지 진출했지만



중국 프로축구 '충칭의 별' 이장수 감독(왼쪽)과 이탈리아 프로배구의 '전설' 김호철 감독.

소련에게 아깝게 패해 은메달에 그쳤다. 이 은메달은 페루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이다.

박 감독은 남미 특유의 유연성과 체력을 바탕으로 한국식 기술 배구를 접목시켰다. 처음에는 훈련이 가혹하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좋은 성적으로 이를 극복했다.

배구의 '신' 김호철 감독도 이탈리아 프로배구에 전설을 남겼다. 이탈리아에서 인기를 끄는 3대 스포츠로 자동차 경주인 F1, 프로축구, 프로배구를 꼽는다. 그중 프로배구 리그는 전 세계 유명 선수가 모여 기량을 겨루는 최고의 빅리그이다. 이곳에 키가 1m75cm에 불과한 한국의 배구 선수가 진출했다. 김호철 선수였다.

김호철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세터를 10여년간 지냈다. 1975년 국가대표로 발탁된 김호철은 3년 뒤 로마세계선수권에서 4강에 진출했고, 이듬해 멕시코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우승을 이끌었다. 그의 장기는 정확한 컴퓨터 토스다. 1981년 러브콜을 받고 이탈리아에 진출했다. 처음에는 말도 통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그는 특유의 부지런함과 열정으로 우승을 한 번도 못했던 파르마를 81~82, 82~83 2년 연속 우



승으로 이끌었다. 2년 연속 MVP를 수상하고, 최우수 용병상, 이탈리아 기자단 선정 MVP 수상 등의 기록을 남겼다. 그의 토스는 '신의 토스'로 평가받았다.

1987년 이탈리아 최고 명문팀 트레비소에서 1995년까지 선수로 뛰었다. 그해 나이 마흔 살에 은퇴하자마자 파르마 감독에 부임해 첫해 준우승으로 이끌었다. 1997년에는 최고 명문팀 트레비소 시슬리 감독으로 부임해 그해 준우승, 이듬해 우승으로 이끌었다. 2001년 2부리그 트리에스테 감독으로 우승을 차지, 1부 리그에 진입시켰다. 그는 이탈리아 청소년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내다 2003년 16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다. 파르마시는 그(Kim)을 위해 시를 헌정했다.

당신은 그렇게 작은 몸으로  
어떻게 그렇게 힘차게 날 수 있나  
당신의 손은 황금으로 만들어졌나  
당신은 우리 파르마의 영원한 수호신...

중국 프로축구 만년 꼴찌팀을 우승팀에 올려놓은 '충칭의 별' 이장수 감독도 주인공이다. 그를 '중국판 히딩크'라고 부른다. 이 감독은 1998년 중국 충칭 감독을 맡았



런던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기수로 참가한 윤경신 선수. 그가 세운 독일 핸드볼 분데스리가 통산 2,751골은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다. 당시 충칭은 재정이 열악해 선수는 물론 감독까지 6개월간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였다. 구단은 우수한 선수를 다른 팀에 팔아 겨우 월급을 주고, 월급을 못받은 선수들은 훈련을 보이콧했다. 충칭은 1부 리그 꼴찌였다. 이 감독은 이런 팀을 정직과 성실, 소통 3가지로 완전히 바꿨다. 그리고 원칙 앞에 흔들리지 않았다. '철의 리더십'이라는 말도 들었다. 특히 당시 중국 프로축구에 만연했던 승부조작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했다.

결국 그는 1부 리그 꼴찌였던 충칭을 중국 FA 우승팀으로 만들었다. 그는 충칭에서 '충칭의 별'이라 불리며 일약 스타가 됐다. 그의 팬클럽 회원 수는 무려 1천만 명이 나 됐다. 그가 다른 팀으로 이적한다는 소문이 나자 수천 명의 팬들이 혈서로 쓴 플래카드를 들고 몰려와 이적을 만류했다.

이 감독은 중국에서 칭다오, 베이징, 광저우까지 네 개의 중국 프로리그 감독을 맡았다. 이 중 충칭, 칭다오, 광저우의 FA 우승을 이끌어 냈다. 베이징팀도 우승 문턱까지 이끌었으나 구단의 지나친 간섭으로 중간에 사임했다. 그 기간 2백68게임 1백18승, 4백5골 4백38포인트를 획득해 중국 프로리그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 ⑨ 핸드볼계의 마이클 조던, 윤경신

독일 최대의 루르(Ruhr) 공업지대엔 Gummersbach(구머스바흐)라는 소도시가 있다. 지난 1995년 12월 황색피부의 한국 젊은이가 이곳에 도착했다. 그의 이름은 윤경신. 2m3cm의 장신인 그는 핸드볼 선수였다. 지난 1990년 베이징아시아게임 금메달,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금메달, 득점왕, 1995년 세계선수권대회 득점왕 등 그의 성적은 발군이었다.

독일에서 핸드볼의 인기는 상상을 뛰어넘는다. 1부 18개팀, 2부 36개팀을 비롯, 5부리그까지 포함 3천개 팀이 있다. 윤경신은 1997년~2002년까지 6년 연속 득점왕에 올랐다. 그 이전의 최고기록은 3년 연속이었다. 전설

적인 기록이었다. 그의 소속팀 Gummersbach는 데뷔 당시 1부 하위권에 머물렀으나 이후 10년간 상위권에 올랐다. 5년 만에 팀의 주장이 됐고 10년이 됐을 때는 팀의 최고참에 올랐다.

핸드볼은 특성상 지역방어에 집중하므로 대인방어가 없다. 분데스리가에서 유일하게 전담 수비수가 붙는 선수가 됐다. 심지어는 그가 중앙선에서 있어도 수비수 한 명이 따라와 있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2000~2001 시즌 윤경신의 324득점은 단일시즌 최다 득점이자, 분데스리가 통산 유일한 300 이상 득점이었다. 2003~2004, 2006~2007 시즌까지 무려 여덟 차례나 분데스리가 득점왕을 차지했고, 통산 2,751골로 핸드볼 분데스리가 42년 역사상 최다 득점 기록을 갖고 있다. 국가대표팀에서는 250회 이상 출전했으며, 2001년에는 세계핸드볼연맹이 선정한 올해의 핸드볼 선수(IHF Welthandballer)로 뽑혔다. 세계 핸드볼의 레전드로 불리며 올림픽에 다섯 차례나 출전한 그는 2012년 9월 23일 은퇴식을 끝으로 코트와 작별했다.



## 1억인의 스포츠, 태권도

태권도는 대한민국이 종주국인 국제 공인 스포츠이다. 태권도는 손과 발을 사용해 자신을 방어하고 상대를 공격하는 호신무술이다. 하지만 태권도는 정신수양도 중요시한다.

근대에 들어와 체계화된 태권도는 점차 승부적 요소가 더해져 스포츠로 발전했다. 1961년 대한태권도협회가 창립돼 본격적 스포츠로 자리잡았다. 1971년에는 우수성과 가치를 인정받아 국기(National Sports)가 됐다. 1973년 서울에서 제1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열면서 세계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80년 7월 17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태권도는 올림픽 경기종목으로 채택됐다.

한국은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전 체급에 출전했지만 금메달 1개, 은메달 1개를 땀다.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이 된 이후 출전한 한국선수들은 거의 대부분의 종목에서 메달을 땀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때 금메달 4개를 모두 한국이 차지했다. 하지만 런던올림픽에서는 금메달 8개를 8개 나라가 나눠 가졌다. 이것은 태권도가 그만큼 세계화됐고, 실력도 평준화됐다는 반증이다.

현재 태권도는 세계적으로 약 1억의 인구를 거느린 국제 스포츠로 자리잡았다. 세계태권도연맹(World Taekwondo Federation)에는 2012년 4월 현재 2백5개국에 가입했다. 현재 태권도는 올림픽과 맞먹는 1백44개국에 세계선수권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태권도는 '코리아'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 각종 민간 및 정부차원에서 태권도의 세계화에 대해 꾸준히 노력했다. 민간단체인 태권도진흥재단이 후원한 태권도평화봉사단은 2008년부터 해외 25개국에 1백7명을 파견해 태권도 정신과 한국

문화를 전파했다.

정부 차원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도 태권도 사범을 파견해 태권도를 세계에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KOICA는 1972년부터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개도도상국가에 사범을 파견해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다. 이 태권도 해외봉사단은 파견국 태권도협회, 학교, 경찰학교 등에서 지역 주민과 학생, 사관생도는 물론 태권도 선수단 등을 대상으로 태권도를 지도한다. 지금까지 해외에 파견된 사범만 3천 명이 넘는다.

세계 분쟁지역에 UN PKO(평화유지군)로 파견된 한국군이 현지인들을 가르치는 태권도교실도 큰 인기다. 분쟁지역에 파견된 평화유지군이 현지인의 호응을 얻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5년 넘게 레바논에서 평화유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동명부대는 7백40여 명의 현지 주민에게 태권도를 가르쳤다. 이 중 유단자가 50명이 넘게 배출됐다.



'코리아'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서 태권도는 명실상부한 국제 스포츠로 자리잡았다. <사진 전한 코리아넷 기자>





미국의 중심 뉴욕 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 펼쳐지고 있는 태권도 시범. 태권도는 코리아를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  
 (사진제공 뉴욕한국문화원)



## 태권도 정신수양 덕목으로 진화

태권도는 무술뿐 아니라 정신수양도 강조하고 있어 남녀노소가 모두 참여하는 스포츠로 인기가 높다. 태권도에는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라는 삼태극의 동양사상이 배어 있다. 동양사상은 자신의 몸이 곧 우주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몸과 정신도 같은 맥락이라고 여긴다. 따라서 태권도는 무술과 정신수양을 통해 자신을 보호하고 신체를 수련하는 스포츠이다. 신체 수련은 물론, 정신 수련도 중요하게 여긴다.

특히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인 청소년들의 중독성 장애(인터넷, 게임, 폭력 등)를 치유하기 위한 대안 스포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 공립학교에서는 태권도가 학생들의 인성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2012년 현재 80여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세계적으로 태권도의 공식 교육은 더욱 늘고 있다.

태권도가 세계 공교육에서 환영받는 이유에 대해 Norman Burgess 교장(Bowie Memorial Elementary School)은 이렇게 말했다. “미국은 개인 중심의 교육, 토론 위주의 수업, 충분한 교육자금 지원 등으로 교육 선진국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발생하고, 약물 복용 문제 등 범죄가 많이 일어나면서 미국의 학교 도덕교육이 심판대에 올려지고 있다. 개인 위주의 교육보다 단체교육, 인성 교육을 중시하

는 태권도 교육이 학교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

Robecca M. Johnson 초등학교의 체육교사 소냐 월 씨는 이렇게 말했다. “미국 사회에서 교육받기 힘든 ‘참을성’ 교육을 태권도 수업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인다.”

이젠 태권도가 호신무술에서 스포츠를 넘어 인내심을 기르는 정신수양 수단으로 발전한 것이다. 심지어 태권도는 이제 병마와 싸우는 하나의 치유 수단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실제 태권도는 신체와 정신의 수련을 통해 몸의 건강과 치유를 중요하게 여긴다.

미국인 로버트 엘브 씨의 감동적 사례가 바로 그것이다. 그의 수기는 미국 전역에 감동을 주고 있다. 월남전 특수요원 출신인 그는 병원에서 말기암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날마다 태권도를 4시간씩 수련하며 병마와 싸우고 있다.

여성 태권도인 쉐라 리드위츠 씨의 삶도 감동적이다. 그는 선천성 혈소판 감소증으로 두 팔이 없으면서도 태권도 유단자가 됐다. 그것은 태권도가 가르치는 강인한 정신력이 바탕이 됐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에서 태권도 수련을 통해 암을 이기는 인간승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태권도는 단순한 호신무술에서 스포츠로, 나아가 정신 수련은 물론 고난을 이기는 극기의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



## 야구 명가도 인정한 한국야구

한국야구가 미국, 쿠바와 대등하게 겨룬다는 것을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다. 그냥 당연히 패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다른 나라와 경기에서 만회하는 것을 전략으로 삼았었다. 먼 나라와 비교할 것도 없이 가까운 일본과 야구인구를 비교해도 하늘과 땅의 차이이다.

지난 2006, 2009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World Baseball Classic)에서 한국대표팀이 보여준 명품야구의 근사함에 세계 언론은 감탄을 연발했다. 1회 WBC 무대에서 5전 전승으로 무패행진을 벌이며 완벽에 가까운 플레이로 강팀들을 연파한 한국팀에 외국 언론들은 반했다. 미국 스포츠 전문채널 ESPN은 인터넷판에서 “아시아 야구가 WBC 무대를 휩쓸

### 한국과 일본의 야구팀 현황

구분	한국	일본
고교야구팀	53	4,164
대학팀	32	364
여자야구팀	21	200
사회인 야구팀	3,000	4,800



한국야구팀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도 9전 전승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남겼다.

고 있다”며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고 보도했다. ESPN은 특집기사에서 “5전 전승으로 무패행진을 벌이고 있는 한국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특히 한국팀이 제2회 WBC에서 메이저리거가 23명이나 있는 베네수엘라를 10대 0으로 대파하고 결승 진출이 확정되자 찬사가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WBC 대회 홈페이지는 “한국이 힘으로 승리를 거뒀다”면서 스몰볼로 인식됐던 한국 야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드러냈다. 또 미국의 LA 타임스는 “중고교 시절부터 함께 야구를 해온 한국 선수들이 메이저리거들을 대파했다”면서 “대다수의 선수들이 LA 전체 고교야구 팀 숫자보다 적은 한국 고교무대에서 함께 뛰었거나 경쟁해왔다”면서 특유의 팀워크가 승리의 원동력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야구팀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도 9전 전승이라는 전무후무한 신화를 남겼다. 만사 제쳐놓고 야구를 좋아한다는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전 국가평의회 의장까지 직접 논평에 나섰다. 카스트로는 아바나 대학 재학시절 강속구 투수로 명성이 자자했고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의 입단테스트까지 받았던 야구매니아다. 그는 2008년 8월 25일 쿠바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Granma)에 ‘명예를 위한 금메달’이라는 제목으로 관전평을 올렸다.

“한국 야구선수들은 마치 타격 기계와 같았다. 훌륭한 팀이다. 좌완투수(류현진 선수)는 빠른 직구와 다양한 변화구를 던질 줄 알았다.”

덧붙여 그는 쿠바와 한국과의 야구 결승전에 대해서는 “긴장감이 팽배했다. 역대 올림픽 경기 중 가장 특별했다”며 “9회말 1아웃에서 3명의 쿠바 선수가 모두 들어오는

만루 찬스가 있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카스트로가 입이 마르고 닳도록 칭찬한 류현진은 2010시즌 23경기 연속 퀄리티 스타트(선발투수로 나와 6이닝 이상 투구하며 3자책점 이하)를 기록, 세계를 놀라게 했다. 2010시즌 등판한 23경기 모두 퀄리티스타트를 기록하며 메이저리그에 밥 김슨과 리스 카펜터가 세운 22경기 연속 기록을 경신했다. 류현진은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했다.



## 세계에서 불러들이는 코리아 스탠더드

### 한국을 배우자

1881년 조선인 61명이 일본을 방문했다. 표면상 노닐면서(遊) 구경한다는(覽) 지극히 개인적인 여행이었지만 실제론 일본의 문물제도를 상세히 견학하는 국가적인 임무를 띠고 있었다. 신사유람단으로 불리는 일본시찰단은 보수세력의 부정적인 시선을 의식해 조심스럽게 추진됐다. 고종은 박정양(朴定陽), 어윤중(魚允中), 홍영식(洪英植) 등을 동래부 암행어사에 임명하고 신사유람단이란 형식으로 일본의 문물을 배워오게 했다. 1881년 5월 6일 일본선 안녕환(安寧丸)을 타고 부산 초량(草梁)을 떠난 이들은 약 4개월 동안 일본에 머물면서 다방면에 걸쳐 견학했다.

1876년 개항 이래 우리는 100여년을 부지런히 선진국에서 배웠다. 한국의 법과 제도에는 구미, 일본 등의 영향이 적잖게 남아 있다. 그러나 21세기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한수 가르침을 주었던 선진국들이 한국식 시스템을 배우기 시작하고 있다. 코리아 스탠더드가 글로벌 스탠더드로 채택되고 있는 것이다.

2011년 1월 27일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는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부산은 개발원조의 상징”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50년 전 부산은 낡은 부둣가에 식량자루가 마구 쌓여 있고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외부 지원에 의존했던 전쟁 국가의 풍경이었다”며 그러나 “부산에서 열리는 개발원조총회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은 세계 5위의 번창한 상업항구이자 첨단 기술제품들을 전 세계로 실어 나르는 항구”라며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변신한 것은 한국의 기적”이라고 평가했다.

지난 2009년 11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 가입했다. 식민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절대빈국의 상태에서 국제원조로 연명하던 최빈 수혜국이 이제 신흥 개도국을 도와주는 ‘선진 공여국’으로 탈바꿈하는 상징적 모멘텀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원조 수혜국에서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된 유일한 국가라는 점에서 세계 원조사적으로도 의미가 각별하다. DAC가 신규 회원국을 받아들이는 것은 1999년 그리스에 이어 10년 만이다.

우리나라도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에 적극 나서고 있다. ODA 총액 규모도 2008년 8억2백만 달러에서 2011년 13억2천1백만 달러로 증가했다. 물론 규모면에서 기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난 격동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 미국도 부러워하는 한국의 건강보험

2009년 3월 14일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을 방문, 캐슬린 시빌리우스 미국 보건부 장관과 만났다. 시빌리우스 장관은 전 장관을 보자마자 “한국이 전 국민 보험을 제공한다는데, 미국이 배울 게 많다. 미국은 한국의 보건의료 지출, 전 국민 건강보험의 경험을 듣고 싶다”며 “앞으로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보건의료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지속적인 정보 및 경험 교환을 기대한다”며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다. 전 장관은 2009년 7월 21일 CBS와의 대담에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해마다 건강보험 시스템을 배우려는 외국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건강보험 국제연수 과정'은 해마다 참여 국가와 참가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건강보험을 보시면 우리의 의료급여와 같이 정부가 다 책임지는 메디케이드가 있고요. 65세 이상 어른과 장애인이 적용받는 메디케어 있습니다. 이 외 국민들은 전부 다 개개로 민간보험에 가입해서 이것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험에 못 들어가신 분이 한 4천6백만 명이니까 거의 우리 인구만큼 보험에 안 들어간 분들이 있습니다. (중략)

그러니까 이분들을 어떻게 보험으로 적용해서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산하는 것을 막을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미국 의료개혁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잘 아시다시피 의료급여가 되든지 아니면 전 국민이 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이 다 의료기관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에게 배울 점이고요.

미국은 의료비로 GDP의 16.2%를 씁니다. 4천6백만이 안 들어 있는데도. 우리는 전 국민이 다 들면서도 GDP의 6.8%를 씁니다.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국민이 보상받고 있다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우리가 건강보험이 된 이후에 의료기술이 급격하게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보다 앞서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1977년 7월 1일 5백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이후 확대를 거듭해 1987년 7월 1일부터 도시지역에 실시되면서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인 제도 도입 12년 만에 전 국민 건강보험 시대를 열었다. 전 국민 대상 건강보험을 정착시키는 데 독일은 127년, 벨기에는 118년, 일본은 36년이 걸린 것에 비하면 초단기

건강보험 국제연수 과정 추진현황

2004(1차)	2005(2차)	2006(3차)	2007(4차)	2008(5차)	2009(6차)	2010(7차)	2011(8차)
14개국 28명	15개국 34명	16개국 34명	14개국 34명	18개국 39명	18개국 36명	23개국 46명	23개국 48명

건강보험정책연구원(2012. 6)

간에 거둔 성과다.

제도 도입 원년인 1977년에는 건강보험 적용 인구가 총인구의 8.8%인 3백20만 명에 불과했지만 2012년 현재 의료급여를 제외한 96.9%, 4천9백40만 명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높은 본인부담금 등 문제도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우수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의 건강보험 제도를 롤 모델로 의료개혁을 추진했다.

해마다 건강보험 시스템을 배우려는 외국인의 발길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건강보험 국제연수 과정(Training Course on Social Health Insurance)'은 해마다 참여 국가와 참가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04년 8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WHO/WPRO(WHO 서태평양지역 사무국)·UNESCAP(유엔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는 연수과정 운영에 대한 MOU를 체결해 건강보험 국제연수 과정을 운영한 이래 9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2012년 6월에는 아시아·태평양·아프리카 및 중동뿐만 아니라 유럽 지역을 포함한 해외 27개국 국가 공무원, 교수, 의사 등 보건의료 전문가 52명이 참가했다. 특히 러시아·우즈베키스탄·감비아·스와질랜드·상투메프린시페(아프리카 중서부에 있는 국가)가 처음으로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오만에서는 보건부 차관이 참가하는 등 해외 고위직 공무원의 관심과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한국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제도 소개 및 한국의 보건 의료 체계 이해를 포함하여 국제 보건 의료 동향과 정책 등을 주제로 한 강의, 심사평가원·일산병원 등 현장견학, 한국문화 체험, 연수생 자국제도 소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Group work(조별과제 및 발표) 세션을 추가해 기존 주입식 강의보다 강의와 토론을 병행하는 수업방식으로 연수효과를 극대화했다. 국내 교수진 뿐만 아니라 기존 WHO, UNESCAP, ISSA 등 OECD 보건 의료 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교수진을 추가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다.

## 세계가 배우는 한국의 전자정부

이탈리아 최대 일간지 Corriere della Sera는 2012년 5월 12일 전면을 할애하여 한국 문화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에도아르도 편집장은 '전자도서관의 성공한 유토피아'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자도서관을 자세히 소개했다. 미래지향적 건축물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아시아뿐 아니라 유럽이나 전 세계 어떤 도서관들과도 차별화된 독보적 '가상기지'를 구현해 냈다고 극찬, 이탈리아 정부도 '한국의 디지털 모델'을 참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엇보다 도서관 내에 '크리에이티브 존'을 만들어 이용자 스스로가 신문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한 것에 가장 놀랐으며, 전자도서관을 기존의 일반 도서관 근처에 위치 시킴으로써 디지털 세계와 인쇄의 세계가 공존하도록 한 것은 하나의 아방가르드적(전위예술적) 경험이었다고 소개했다.



'전자도서관 성공한 유토피아' 제하의 이탈리아 유력지 Corriere della Sera는 한국의 전자도서관이 전 세계 어떤 도서관과도 차별화된 '가상기지'를 구현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디브리리(전자도서관, Digital+Library의 합성어)는 한국의 끊임없는 도전정신과 창조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라고 논평했다. 독창성과 진취성, 한류를 기반으로 중국과 일본을 추월해 2020년까지 세계 경제대국으로 부상하겠다는 한국의 야망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한국인들이 특유의 강인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전쟁, 분단, 공산주의의 위협, 가난 등으로부터 벗어났으며, 그 정신력을 토대로 지금은 IT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록을 달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엔 경제사회처 공공행정국(UN DESA)은 국가 간 전자정부 발전수준 비교를 통한 글로벌 전자정부 협력 촉진 및 국가경쟁력 강화 유도를 위해 2002년부터 유엔회원국 1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은 세계 각국으로 활발히 벤치마킹되고 있는 또하나의 수출상품으로 떠올랐다.  
사진은 국립중앙도서관의 디브리리 시스템. <사진제공 국립중앙도서관>

#### 국내 구축 시스템 해외진출 사례

수출지역	내용	국내 사례
중국·인도	지하철 요금징수시스템(AFC) 구축	서울지하철 6·7호선, KTX고속철도 대전지하철 1호선
베트남·몽골·코스타리카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조달청 나라장터
몽골	지식재산권 현대화 사업	특허청 특허넷
바레인	법인 등록 및 인허가 시스템(BLIS) 구축	대법원 등기시스템
아제르바이잔	주소등록정보시스템	도로명 주소정보시스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구축	서울시 내부순환로 교통관리시스템 및 제주시·안산시·용인시·부천시 ITS
브라질	스크린도어(PSD) 구축	서울지하철 2·7호선, 광주광역시 지하철
카자흐스탄	2011카자흐스탄 동계 아시안게임 대회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88서울올림픽 대회종합정보시스템 97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경기운영시스템 2002한일월드컵 대회운영관리시스템 등
베트남	다낭시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 사업	한국 전자정부프레임워크(eGovFrame) 기반
몽골	국제시스템 선진화 사업	한국 세무정보화시스템 개발
필리핀	필리핀 증권시장감시 시스템 구축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백90여 개국을 대상으로 격년으로 전자정부 평가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유엔 전자정부 평가에서 지난 2010년에 이어 2회 연속 1위를 달성해 세계 최고의 전자정부 선도 국가임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유엔의 평가 결과는 이명박정부 이후 추진한 국가정보화 추진체계 정비, 스마트 전자정부 추진 등 그 동안의 전자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이 객관적 지표로 반영된 것이다.

특히, 주요 전자정부 서비스를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반으로 전환하는 스마트 전자정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민원24’ 등을 통한 온라인 민원서비스를 지속적



유엔은 한국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성공적 우수사례로 꼽았다. WEB 2.0 서비스를 이용해 시민참여를 유도한 점 등 '온라인 참여도' 역시 높이 평가했다. 국민신문고가 행정의 투명성 강화, 부패 개선, 시민의 정책참여에 기여하고 있는 점도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으로 확대한 것이 2회 연속 1위 달성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대표적인 전자정부 사이트인 민원24는 2011년도에 공공서비스 전달방식 개선 분야에서 유엔공공행정상을 수상했다. 외국 고위급 인사들이 전자정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잇따라 방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자정부 시스템이나 솔루션이 세계 각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최근 세계 최고의 전자조달 시스템으로 평가받고 있는 '나라장터(KONEPS)'가 아프리카 튀니지에 진출했다. 2012년 2월 23일 튀니지에서 '튀니지 전자조달 착수식'이 열렸다. 최규연 조달청장은 튀니지·에티오피아·벨기에·터키 등 4개국을 차례로 방문, 나라장터 세일즈 활동을 벌였다. 나라장터는 그동안 베트남·코스타리카·몽골 등에 수출됐다. 나라장터의 튀니지 진출은 아프리카 거점 국가를 확보하는 의미가 있다. 향후 모로코·알제리·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권으로 진출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정부통합전산센터에도 브루나이·케냐·몽골·스리랑카 등 각국의 장·차관을 비롯한 고위관료들의 방문이 줄을 잇고 있다. 연간 60개국 4백여 명이 방문하고 있으며 2011년 한 해에만 62개국 3백35명이 센터를 다녀갔다.

2011년 전자정부는 수출 2억 달러 달성의 쾌거를 이뤘다. 베트남 정부 데이터센터(1억 달러), 모잠비크 재난관리정보화 시스템(2천5백만 달러), 도미니카공화국 출입국관리 시스템(2천5백만 달러), 에콰도르 전자통관 싱글윈도우즈(1천5백82만 달러), 인도네시아 경찰 무선통신망 구축(4천만 달러), 멕시코 정보보안 컨설팅(2백만 달러) 등 총 2억3천5백66만 달러의 수출 성과를 올렸다. 이는 2007년 9백82만 달러에 비해 24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2010년 1억4천8백76만 달러에 비해서도 58%가량 늘어나는 등 폭발적인 수출 증가세다. 전자정부 수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현정부 출범 초인 2008년(2천7백32만 달러)과 비교하면 8.6배로 대폭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전자정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한한 일본 전자정부 시스템 개발 관계자들이 무인민원 발급기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유엔은 한국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성공적 우수사례로 꼽았다. WEB 2.0 서비스를 이용해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한 점 등 '온라인 참여도' 역시 높이 평가했다. 국민신문고(people.go.kr)가 정부 단일창구로서 행정의 투명성 강화, 부패 개선, 시민의 정책참여에 기여하고 있는 점도 우수사례로 소개했다. 정부는 그동안 협력체제 강화를 통한 수출 지원에 힘써 왔다. 이탈리아·파나마·불가리아 등과 MOU를 체결하고 베트남·브루나이와 IT협력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전략국가 정부와 협력을 강화했다. 전자정부 구축과정과 성과를 시스템별로 자료화해 전자정부를 브랜드화시키는 데도 힘썼다.

이와 함께 지적재산권을 수출기업에 제공하는 등 전자정부 시스템을 상품화하는데 성공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무상원조를 활용한 전자정부 시범시스템 진출과 대외협력기금을 활용한 전자정부 수출사업 발굴을 통해 초기시장 개척에도 앞장섰다. 파나마 등 전자정부 해외시장 개척단을 운영하고 IT국제전시회에 참가해 민·관 공동 해외마케팅 등도 추진했다.

현재 글로벌 전자정부 시장은 약 1천6백8억 달러(약 1백76조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전자정부 주요 수출 대상국인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등은 매년 8.5% 이상의 고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심지어는 행정시스템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던 일본까지 전자정부를 배우고 있다. 2010년 3월에는 하라구치 가즈히로(原口一博) 총무성 장관이 방한, 서울 한 구청의 전자정부 시스템을 꼼꼼히 견학하면서, “일본 전자정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해 한국과의 협력을 바란다”고 밝혔다. 2012년 2월 27일 잠실 스마트워크센터에 후지쓰 종합연구소, 일본 총무성 관계자 등 5명이 방문해 한국 스마트워크의 선진사례에 대해 집중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텔레워크 선진국으로 알려진 일본이 한국의 스마트워크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 조직이라는 하드웨어를 수입했던 나라가 인터넷 기반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소프트웨어를 역수출하게 된 것이다.

## 9 일본 정부가 보는 한국의 전자정부

유엔의 전자정부 순위에서 일본은 11위, 한국은 미국에 이어 제2위의 세계최고 수준이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 행정의 백오피스 업무의 표준화 DB간 상호연계·제휴가 상당히 진전돼 있으며 일본은 한국보다 5년 정도는 뒤떨어진 느낌이다.

한국의 행정수속은 약 5천 종류, 이 가운데 이용빈도가 높은 약 8백 개의 수속은 온라인화가 가능해졌으며 인터넷상에서 증명서 발급까지 가능한 수속은 32종이 됐다. 실제 이용상황은 전체 2~3억 건 행정업무 가운데 1천6백만 건이 온라인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증명서 발급까지 인터넷에서 완결되는 수속도 연간 6백만 건에 이르고 있다. 한국 전자정부의 큰 특색은 행정의 백오피스 업무의 전자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그 결과 행정인허가 프로세스가 투명화되고 있으며 각종 프로세스가 어디까지 발전하고 있는지 담당자의 성명, 연락처를 포함, 인터넷상에서 국민이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행정의 투명성 향상, 정보공개에 철저히 유익한 것이 전자정부에 대한 국민의 대대적인 지지로 연결되고 있다.

2008년~2012년까지 5개년 계획에서 차세대 전자정부를 추진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세웠으며 이 가운데 현재 전자정부 시스템을 국민 이용자의 시점에서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차세대 전자지방정부 구상은 U-Life21이라고 부르고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프론트 오피스의 국민의 필요성에 부응한 ‘라이프이벤트 원스톱 포털’ 구축이 늦어지고 있으므로 고객의 필요에 섬세하게 대응하며 국민 개개인의 니즈에 따른 마이 포털을 선택, 작성할 수 있도록 ‘나의 전자정부(My e-Gov) 구상’을 실현코자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 수상관저 자료



## 세계를 리드하는 녹색성장

가난했던 시절 민둥산은 빈곤의 상징이었다. 일제식민지 시절 무분별한 벌채, 6·25전쟁으로 전국의 산림은 황폐화됐다. 댐강이 절대 부족했던 시기에 저마다 산에 올라가 잔가지라도 챙겨 내려와 난방을 해야 했다. 나무 한 그루조차 없는 민둥산들이 지천에 널려 있고 집중호우만 내리면 산사태에 집이 깔리고 대량 사상자와 집단 이재민이 발생하는 것은 다반사였다.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은 사방공사와 식목을 독려했다. 연료림 조성, 아궁이 개량, 산림조합 결성 등 산림녹화에 집중했다. 도벌을 5대 사회악의 하나로 규정해 임산물단속법, 산림법, 사방사업법을 제정했다. 국토녹화 촉진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만들어 산사태와 도벌에 대처했다.

1967년 1월에는 산림청을 설치해 나무심기와 사방공사에 전력을 기울였다. 이어 1967년 선진국의 국립공원 제도를 도입해 지리산, 한라산 등 13개의 국립공원을 지정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어찌해야 잘사는 나라를 물려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1968년 11월 11일 경북 선산 농산물 가공공장 준공식 치사에서 산림녹화를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우리 한국의 산을 보십시오. 전부 벌거숭이 같은 산에 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앙상한 나무들이 붙어 있는데 외국의 경우 이것은 전부 울창하고 무성합니다. 외국에서는 땅이 좋고 비가 잘 와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일 년 내내 거의 비가 안 오는 땅에서도 훌륭한 나무를 심어서 몇 년 내에 울창한 숲을 이



산림청 지원으로 인도네시아에 조성중인 맹그로브 양묘장. 쓰나미로 파괴된 해안가 숲을 복원하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위) 2011년 6월 산림청은 제16회 세계 사막화 방지의 날을 맞아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서쪽으로 125km 떨어져 있는 톱 아이막 톨 슴에서 조림사업을 벌였다. <사진제공 산림청>



산림관련 협정 체결현황(산림청)

체결일자(장소)	내역
1987. 6. 20(서울)	한·인니 임업협력협정
1997. 4. 29(웰링턴)	한·뉴 임업협력약정
1997. 7. 18(캔버라)	한·호 임업협력약정
1998. 6. 15 / 1994. 10. 19(북경)	한·중 임업협력약정
1998. 10. 24(대전)	한·몽골 임업협력약정
1999. 7. 20(하노이)	한·베트남 임업협력약정
1999. 7. 22(양곤)	한·미얀마 임업협력약정
2006. 10. 17(서울)	한·러시아 임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2008. 6. 3(프놈펜)	한·캄보디아 산림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2008. 9. 2(서울)	한·우루과이 산림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2009. 7. 31(아순시온)	한·파라과이 산림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2010. 3. 24(튀니스)	한·튀니지 산림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2012. 5. 9(서울)	한·칠레 산림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2012. 6. 21(리우데자네이로)	한·에콰도르 산림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2012. 6. 22(리우데자네이로)	한·브라질 산림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2012. 7. 26(경기도 포천)	한·일 산림 고위급회담 개최에 관한 의향각서
2012. 8. 29(서울)	한·필리핀 산림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루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수십년 수백년 동안 노력하고 당대에서 안 되면 자손들까지 대대로 노력해서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얼마전에 동남아시아와 뉴질랜드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그 나라에서는 온 산이 꼭 공원과 같이 목장이 아니면 울창한 숲입니다.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산에 심어져 있는 나무, 목장의 풀, 이것은 거의 다 지난 백년 동안에 뉴질랜드 사람들이 동양이나 유럽에서 가져와서 전부 개량을 했습니다. 그 지방의 농산 수목이라든지 풀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없어지고 개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지방에서 키우고 있는 소나 양도 모두 유럽에서 가져왔습니다. (중략)

이런 정도로 끈질기게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훌륭한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 당대에 우리는 고생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민족이라면 그 민족은 훌륭한 민족이 될 수 있고 그 자손은 번영하는 것입니다.”

1971년에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지정, 산림보호에 박차를 가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3년 1월 연두기자회견에서 “전 국토를 녹화하기 위한 10개년 계획을 세워 푸른 강산으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1월 15일 손수익 경기도 지사를 산림청장으로 임명했다. “고속도로, 공업화, 새마을운동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치산 녹화가 잘 안 되고 있어. 임자가 맡아 치산 녹화를 이룩해 봐”라고 지시했다. 관행으로 본다면 강등이나 다름없는 인사였으나 손수익은 대통령의 뜻을 받아들였다.

손수익 산림청장은 5년 8개월간 재직하면서 집무실 입구에 ‘산 산 산! 나무 나무 나무!’ 라고 써붙여 놓았다. 제1차 치산 녹화 10년 계획(1973-82년)을 진두 지휘했다. 예정보다 4년 앞당겨 1978년에 마쳤다. 4만2천ha의 사방사업을 마무리하고 3백억 그루의 양묘를 조립한 결과 1백8만ha에 나무를 심었고 4백20만ha에 숲을 가꾸었다. 그 덕분에 국토의 65% 이상이 산림으로 변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녹화 성공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산림녹화의 노하우는 다른 나라에 전수되고 있다. 2004년 12월 동남아 전역을 강타한 지진해일(쓰나미)로 인해 인도네시아의 북부 수마트라 지역의 해안림인 맹그로브 숲(열대 및 아열대 지역의 염분이 있는 해안가나 강 어귀에서 자라는 수목)은 초토화됐다. 산림청은 2006년 5월부터 2년여에 걸쳐 맹그로브 숲 복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미 인도네시아와는 1987년 임업협력협정을 체결한 이래 2005년부터는 임목 개량 및 양묘장 조성 사업을 지원했다. 산림청 녹색사업단도 올해 캄보디아에서 대규모 녹화사업 및 산림연구에 나섰다.

산림청의 국제협력 사업들은 지난 9월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Asian Forest Cooperation Organization)의 출범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 2011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4차 동남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때 10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맺은 산림협력 협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 협정에는 한국이 아세안 10개 국가의 사막화 지역 및 훼손된 산림생태계를 복구하고 산림재해를 방지하는 데 주도적으로 활동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경영·보전, 산림부문 능력 배양과 기술 이전, 각종 연구개발에 협조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 협정의 발효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아세안 지역에서 산림 현안에 대한 한국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세안 지역에서 확고한 산림원조국이 되는 셈이다.

환경 분야의 세계적 석학 레스터 브라운 지구정책연구소장은 “산림협력협정은 아시아의 산림협력을 증진하고 아시아 산림협력 기구를 창설하는 데 효과적인 기반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아세안이 손을 잡고 만드는 AFoCO가 몽골의 사막화를 막고 인도네시아의 열대우림을 보살피는 등 지속가능한 미래의 아시아 중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글로벌 스탠더드로 나아가는 Korea Standard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는 무슬림을 위한 기도공간이 있다. 국내뿐 아니라 수많은 외국 교육생들이 찾아오면서 배려한 것이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우리나라 국가발전 경험의 공유를 통한 개도국 발전지원, 각국 공무원 간 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국제사회 기여 등을 위하여 외국공무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984년부터 2백6개 과정 1백18개국 3천7백66명의 외국공무원이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외국공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과 국정운영 시스템은 여러 나라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KDI,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이들 외국연수생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 KDI, 중앙공무원교육원)

외국 교육훈련기관과의 양해각서 체결현황

MOU 체결 기관	체결 연월
콜롬비아 공공행정학원(ESAP)	2010. 10
베트남 호치민국가정치학원	2011. 10
싱가포르 공무원교육연수원(CSC)	2012. 03
카자흐스탄 국립행정아카데미(APA)	2012. 07
러시아연방 공공행정아카데미(RANEP)	2012. 07
중국 국가행정학원	2012. 07

무원 교육과정을 마쳤다(2011년 12월 현재).

중앙공무원교육원 자체의 외국공무원 교육사업은 외국정부의 요청과 경비부담에 의해 해당국 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고 있다. 러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공무원 과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다음으론 공적개발원조 사업이 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연수생 초청사업의 일환으로 국제행정발전 과정(International Administration Development Program), 국제교육훈련발전 과정(International Public Sector Training Development Program) 등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한·ASEAN 협력사업으로 ASEAN 회원국 인적자원개발 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시키고 있다. 한국적 표준(코리아 스탠더드)이 확산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독립국에서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루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한국의 역량은 여러 나라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경험을 개도국 등과 공유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을 지난 2004년부터 벌여왔다. KSP는 한국의 발전경험을 토대로 협력대상국의 수요와 여건에 맞춰 정책연구·자문·연수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협력대상국의 제도 구축(institution building)과 역량 배양(capacity development)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식집약적 개발협력사업이다. 지난해까지 35개국을 대상으로 3백여 개 과제에 대해 정책 컨설팅을 완료했다. 2011년에는 26개국을 대상으로 KDI가 총괄기관으로서 9개국을 직접 담당했다.

KSP 사업은 적잖은 성과를 거두었다. 먼저 다년간 진행된 중점지원국인 베트남의 경우 2011~20 경제사회발전전략 수립을 지원했고, 이 전략은 2011년 1월 제11회 전당대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 마련된 무슬림을 위한 기도 공간. <사진제공 중앙공무원교육원>

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2009년 캄보디아 KSP에서 다루어졌던 마이크로 파이낸스와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권고안은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었으며, 2010년 이후 산업구조 고도화에 관한 연구·자문·연수는 캄보디아 정부의 산업정책 수립과 연계하여 진행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신용평가 체계와 감사 및 회계 기준 확립이 강조되었고, 2011년 KSP에서 다루고 있는 국고금 관리시스템 개혁 및 중앙은행 PCR 시스템 기반의 신용평가 인프라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주로 산업·혁신 정책을 중심으로 정책자문이 이뤄졌는데, 2004년 KSP에서 우즈베키스탄의 제조업 육성 및 수출진흥을 위하여 경제특구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고가 있었고, 2007년에는 경제특구 후보지들에 대한 타당성 평가, 2009년에는 나보이 자유산업 경제구역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정책자문이 이뤄졌다. 또한 2010년 몽골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예금보험에 관한



자문은 자국 정부가 관련 법안과 지침을 작성하고 기구 설립을 구상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도미니카공화국, 아제르바이잔, 우크라이나 사업 등도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 도미니카공화국의 경우에는 2008년부터 수출진흥에 대한 지식공유가 이뤄져 개발연대 한국의 월레 수출진흥회의와 유사한 민관협의체의 도입, EDCF와 연계한 수출진흥 기반시설의 구축, 한전의 배전개선 사업 참여 등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였다. 아제르바이잔에 대해서는 2007년과 2008년에 걸쳐 WTO 가입전략, 협상기법, 분야별 후속 조치에 대한 심도 있는 정책자문이 이뤄졌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2008년 중장기 경제개발전략을 주제로 정책자문이 진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금융위기를 맞게 되자, 원래 주제 외에도 1997~98년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 경험에 대한 지식공유가 이뤄졌다. 또한 2009년에는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신재생 에너지 개발 전략에 관한 집중적인 정책자문이 실시되었다.

그밖에도 2006년 알제리에 대한 신용카드시장 활성화에 관한 자문이 협력 대상국의 높은 평가를 받았고, 쿠웨이트의 5개년개발계획 수립과 이행을 위한 자문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 터키의 경우 2008년 국가혁신 체계에 관한 공동연구가 진행돼 두 나라 연구진이 서로에게서 배우는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2010년 사우디 초등교육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에 이어 2011년 한국의 EBS 모델을 적용시킨 공교육 및 평생교육 향상 방안에 대한 자문이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사우디 정부와 EBS는 교육채널 기획에 대한 협력 및 프로그램 공동제작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 의향서(Letter of Intent)를 교환했다.

### 2011년 KSP 국가정책자문 사업 연구주제

중점지원 사업	
지원국가	연구주제
베트남	2011~2020 경제사회발전전략과 한국의 발전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입 분석 및 전망</li> <li>•한국의 국영기업 평가시스템: 비교연구</li> <li>•장기 거시경제 예측모델 구축 지원</li> <li>•공항 현대화 전략: 한국의 경험 공유</li> <li>•항만 현대화 전략: 한국의 경험 공유</li> </ul>
캄보디아	중소기업, 산업 및 수출 부문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기업 전담은행을 통한 중소기업금융 지원방안</li> <li>•중소기업의 역량 배양</li> <li>•전자산업 육성전략</li> <li>•농산물 가공산업 육성</li> <li>•수출 다변화 방안: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li> </ul>
인도네시아	핵심 정책분야 지원: 공공재정, 신용인프라, 수자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고관리 및 예산집행 시스템 개혁방안 - 한국의 경험과 정책제언</li> <li>•정부의 회계 및 결산 제도에 관한 KSP</li> <li>•재정정보시스템 분석 및 정보전략 기획</li> <li>•PCR 시스템 기반의 신용평가 인프라 개선방안</li> <li>•수자원 계획과 재원조달에 관한 지식 교류</li> </ul>
우즈베키스탄	국가혁신 시스템의 강화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학기술정책</li> <li>•과학기술인력 양성정책</li> <li>•기술이전·사업화 및 기술혁신활동 촉진방안</li> <li>•지역혁신 시스템의 구축방안 연구</li> <li>•수출지향적 중소기업의 육성</li> </ul>
몽골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거시경제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본유출입 급변동하에서의 거시경제 정책조합</li> <li>•자본유입과 외환정책</li> <li>•예산절차 개선을 통한 재정개혁</li> <li>•부실자산 정리체제 구축방안</li> <li>•수익형(BTO) 도로 민간투자사업 재무모델 개발</li> </ul>
페루	지역특화사업을 통한 페루 남부경제 회랑지역 중소기업 발전방안: 커피, 알파카, 자동차부품 산업을 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특화산업 육성 사례: 알파카 산업</li> <li>•지역특화산업 육성 사례: 커피 산업</li> <li>•지역특화산업 육성 사례: 자동차부품 산업</li> <li>•지역특화전략 개발 계획: 중소기업을 위한 협동화사업 및 농공단지 개발사업</li> </ul>
가나	국가 차원의 행정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역량강화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나공화국의 경제·사회에 대한 이해</li> <li>•대한민국의 정부업무 평가</li> <li>•M &amp; E의 현황 및 도전과제</li> <li>•M &amp; E 발전방향</li> </ul>

## 🌀 말레이시아의 한국 배우기 28년

말레이시아 공무원의 한국 정책연수는 마하티르 총리의 동방정책의 일환으로 1984년 처음 시작된 이래 올해로 28년째를 맞고 있다. 그동안 연간 2~3회를 실시하여 63기 1천2백38명이 한국을 배우고 돌아갔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21일까지 2주간 말레이시아 중앙부처 담당급 초급관리자 20명을 대상으로 '제64기 말레이시아 공무원과정'을 실시했다. 교육생에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말레이시아 정부에서 100% 부담했다. 직접적인 교육비용이 1개 과정당 평균 5천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그간 31억 5천만 원의 소득을 올린 것이다. 이번 교육과정은 말레이시아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국가발전 과정과 한국정부의 주요 Agenda인 녹색성장과 농어촌개발전략 등을 소개하고 리더십교육 및 갈등관리 등 행정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마련하였다.

또한, 한국정부 개혁 및 발전전략 소개 외에도 정책현장을 직접 찾아서 SOS 국민안심 서비스, 인천공항 출입국 시스템, 가락동 농수산물 전자경매 시스템, 문화한류를 선도하는 예술인 양성 사례 등 현장체험 위주로 교육이 짜여졌다. 윤은기 중앙공무원교육원장은 “한국의 발전 경험을 통해 말레이시아의 발전에 기여하고 양국 간의 활발한 인적자원 교류로 공동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 '한국은 세계경제 위기를 어떻게 이겨냈는가(Comment la Coree sest jouee de la crise)'

2012년 세계 3대 신용평가사(무디스, 피치, S&P)가 차례로 한 나라의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할 사례가 있는데, 이는 현재와 같은 세계경제 위기상황 속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케이스다. 한국이 바로 그 사례인데 무디스가 지난 8월 27일, 피치가 9월 6일, 그리고 9월 14일 S&P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했다.

**위기대응력(Resilience) |** 3대 신용평가사는 '재정건전성, 높은 경쟁력 및 경제활력, 은행 부문의 대외취약성 최소화, 북한리스크의 안정적 관리, 세계적 불안정 속에서 한국의 경제적·재정적 안정성, 건전한 거시경제 시스템' 등을 높이 평가했다.

G20국가인 한국의 경제적 펀더멘탈이 매우 건전하다는 것은 사실인데, 2007~2011년 기간 중에 한국은 매년 평균 3.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과거의 교훈에 따른 노력 |** 피치가 한국에 부여한 AA-는 중국과 일본을 앞선 것이며, 1997년 아시아 경제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인데, 당시에 한국의 은행부문은 매우 큰 타격을 입었다.

한국은 2002년에 '신용카드 대란'을 겪었다. 당시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고객들에게 신용카드를 남발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가 개입했으며 엄격한 규제기구를 설치했다. 한편,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2009년 1월부터 대통령이 주관하는 '주간 위기관리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경기부양 계획** | 최근 한국은행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3%로 하향 조정(2012년 4월에 3.5% 예상)했는데 한국정부는 세계경제 침체의 한국경제에 따른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9월 10일 5조9천억 원(41억 유로) 규모의 경기활력 제고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자동차 및 주택 구입에 대한 재정적 유인 제공 등을 통해 가계 소비를 진작(내수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유럽으로의 수출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피치는 한국이 향후 국가채무를 낮출 경우 한국의 신용등급 상향조정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인구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중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벨기에 경제전문지 L'ECHO, 경제 9면, 2012년 9월 15일자, Jean-Paul Bombaerts 기자

## 해외로 수출하는 한국 법제

우리나라와 법제정보 교류와 법제발전의 경험을 공유하는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2012년 법제처는 환경, 노동 등의 분야에 관한 『대한민국 경제법제 60년사』를 발간했다. 이를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에 참가한 21개 아시아 국가들에 제공했다. 이와함께 올해 초 베트남 법무부와 우크라이나 법무부에서 법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MOU 체결을 먼저 요청, MOU 체결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히, 2월 26일~28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개최된 'GGGI(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캄보디아 법제회의'에서는 한국 측 관계자가 캄보디아 녹색성장 사무국 공무원 등과 캄보디아 녹색성장위원회 설립에 관한 법령 초안 검토에 참여해 녹색성장 관련 법제 정보와 경험을 교환했다.

이어 2월 27일~3월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Mongolia-GGGI Consultation Workshop'에서 몽골 대표단에게 우리나라의 '말산업 육성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 '차이'에서 '조화'를 추구하는 문화동반자 사업

국내 거주 외국인 1백20만 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는 다문화로 대세를 인정하고 조화로운 공존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동안 '단일민족'에 기반한 순수혈통주의는 국적주의로 바뀌어 가고 있다. 파란 눈의 한국인, 검정피부의 한국인 등 외국계 한국인들이





문화동반자사업(Cultural Partnership Initiative)은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2005년부터 추진해온 외국인 초청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여러 기관들이 각각의 특성에 맞는 세부 프로그램으로 꾸며 실시하고 있다. 2012년 11월 9일, 10일 국립극장의 '전통음악의 교류' 사업에 참여한 7개국(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태국, 필리핀) 전통악기 연주자 12명이 '하모니 인 아시아(Harmony in Asia)'를 펼치고 있다. <사진제공 국립극장>

점차 늘어나고 있다.

다문화시대에 걸맞게 문화교류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한류를 비롯한 한국문화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부정적인 시각,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이다. 다른 문화권의 인재들을 불러들여 우리의 문화를 소개하고 문화대화를 나누는 '문화동반자(CPI: Cultural Partnership Initiative)' 사업은 상호존중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05년 문화동반자 사업을 시작한 이래 총 72개국 704명을 초청했고, 2012년 6월에는 중국·인도·벨기에 등 31개국 66명의 문화동반자를 초청했다. 현재 문화동반자 사업은 개발도상국가의 문화예술, 관광, 체육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6개월간 한국문화 체험 및 한국어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호혜적 협력의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고, 우리 문화를 홍보하며 동시에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심층적으로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2년에는 기존의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 더 나아가 남미, 동유럽 지역으로 초청 대상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초청자들에게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국립극장,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등 16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및 산하 기관에서 공동 창작활동을 진행하고, 기관별 특성에 맞는 전문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한국어 교육을 받기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기본 2백 시간의 한국어 교육 외에도 별도 신청을 한 참가자는 추가 한국어 연수를 받게 된다. 초청자들은 자국의 전통문화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진행하여 자국의 문화를 한국에 소개함은 물론 귀국 후 한국의 문화를 자국에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있어, 쌍방향 문화교류의 성공 사례로 발전하고 있다.

그간의 공적 원조(ODA)는 주로 개도국의 빈곤 퇴치를 위한 경제 원조에 중점을 두

있으나 이제는 그것을 보완하여, 개도국 주민의 자긍심과 정서를 존중하며 그들이 문화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 문화 공적 원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회성·단기성 사업으로는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동반자 관계 구축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장기적 안목에서 지속적으로 문화동반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문화가 세계로 전파될 뿐 아니라, 문화를 통한 ‘함께 살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벤치마킹 대상이 된 한국식 교육

2012년 9월 3일 알자지라방송은 ‘Korea, Renaissance Model’이란 제목의 한국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아랍어 채널에서 알자지라는 우리 역사와 문화, 경제개발, 경제 다변화, 외환위기, 북한의 위협 등 한국의 전반적인 과거와 현재를 균형있게 다뤘다. 리포터는 “아랍국가는 한국보다 돈도 많고 자원도 많은데 한국과 같은 성장이 왜 없는가” 반문하면서, 한국교육에 대해 집중 보도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인들은 자녀교육에 집중했으며, 현재도 1년에 2백60일을 등교하며 하교 후에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학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12년 1월 25일 의회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한국교육을 칭찬했다. 과거에는 한국 학부모의 교육열을 주로 거론했지만 이번에는 한국 교사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한국에서 교사들은 국가 건설자(nation builder)로 알려져 있다”면서 “미국에서도 교사를 같은 수준으로 존경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작 국내

한국의 교육시스템이 세계 각국의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뉴욕에는 할렘가 아동들에게 예의와 규범을 지키고 열심히 공부하는 한국식 교육 모델을 접목시켜 뉴욕 최고 학교로 성장한 데모크라시프렘스쿨(DPCS)이 있다.

에선 우리 교육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부정적인 시각을 보낸다. 물론 오바마가 부러워하는 것은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보이지만.

한국의 교육시스템이 세계 각국의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뉴욕에는 할렘가 아동들에게 예의와 규범을 지키고 열심히 공부하는 한국식 교육 모델을 접목시켜 뉴욕 최고 학교로 성장한 데모크라시프렘스쿨(DPCS)이 있다. 이 학교에는 한국인 학생이 없지만 9~11학년(한국의 중3~고2) 학생 1백85명이 한국어를 배운다. 또 한국의 전통 춤과 민요, 태권도 등 한국과 관련된 각종 특별활동도 활발히 한다. 재학생 2천명 모두 흑인과 라틴계이며 90%는 빈곤층, 75%가 한 부모 가정이지만 중학교 성적은 ‘전 과목 A’로 뉴욕시 1위, 고등학교는 뉴욕시와 인근을 포함해 최상위다.

2012년 8월 15일 교육과학기술부는 아세안사이버대학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CLMV(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베트남) 4개국의 정부부처(한국 교육과학기술부, 캄보디아 교육훈련부, 라오스 교육부, 미얀마 과학기술부, 베트남 교육훈련부)와 협력대학(한국 서울사이버대학, 캄보디아 공과대학, 라오스 국립대학, 미얀마 기술대학, 베트남 하노이공과대학), 그리고 아세안대학연합(AUN, ASEAN University Network)과 베트남 하노이에서 아세안사이버대를 설립키로 했다. 아세안사이버대학 설립 사업은 2009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사무총장이 한국의 선진 정보기술(IT)을 바탕으로 사이버대학 설립을 건의했고 한국이 이를 수용함으로써 추진되었다.

한국은 CLMV의 e-러닝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12년 8월 10일 CLMV의 4개 협력대학에 e-러닝센터와 허브센터를 완공하고 이를 기반으로 9월부터 한국과 CLMV의 협력대학 간 e-러닝을 활용한 학점교류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4월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의 자원과 학문·교육적 역량을 활용해 개발도상





한국국제협력단은 지난 2007년부터 라오스 교육부와 함께 라오스 전역의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전 과목 교과서를 제작, 배포하고 있다. 현재 중학생 24만 명, 고등학생 15만 명이 우리나라가 지원한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이 지원한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는 라오스 학생들(위), 한국국제협력단이 동티모르에서 '국립교과서 보급센터(NGPTL: National Graphic arts & Printing center in Timor Leste)'를 완공, 2012년 9월 5일 베코라(Becora) 지역에서 국립교과서 보급센터 준공식을 가졌다. <사진제공 한국국제협력단>

국을 지원하는 '국제협력 선도대학'으로 포항공대 등을 선정했다. 이에 따라 포스텍과 부산교대는 에티오피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아다마과학기술대의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신소재공학과 설립을 의뢰받은 포스텍은 해마다 1억 원을 지원, 교과과정 설계, 실험실 설치 등 하드웨어부터 매년 10여 명의 교수 파견, 졸업예정자 대상 한국 초청 현장실습 등 소프트웨어까지 전 교육과정을 펼치고 있다. 부산교대는 에티오피아 초등 교사 수학·과학 교육 역량강화 사업도 벌이고 있다. 아다마과기대뿐 아니라 이 나라 전역 초등학교 교사들의 수준을 높이는 연수과정을 수립 중이다.

동티모르는 2002년 5월 독립한 이후 고유 언어인 테툼어가 국어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표준화된 교재가 없어 테툼어, 포르투갈어, 인도네시아어를 혼용해 수업을 하고 있다. 교과서를 자체 제작·보급할 수 있는 인쇄시설이 없어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 보급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국가 정체성 확립·문맹 퇴치·인적자원개발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티모르 교육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국정교과서 인쇄센터 설립, 교사용 테툼어 지도서 개발 및 출판, 테툼어 교과서 개발 및 출판, 테툼어 사전 출판에 대한 지원 등을 요청해 왔다. KOICA는 지난 2009년 11월과 2010년 6월에 전문가 팀을 파견해 동티모르 교육부와 협의한 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총 4백만 달러를 투입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했고, 주요 사업내용을 정리해 지난 2010년 6월 8일 협의의사록을 체결하게 됐다.



## 🌀 한국인들의 배움에 대한 갈증(The Thirst for Learning)

“열심히 해요.” 한국인들은 말한다. 한국인들은 이 어구를 구호인 동시에 아무도 투덜대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말로 끊임 없이 되뇌어 왔다. 학생이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 해도 그는 항상 더욱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혹은 이론상 그렇다.

어쨌거나 한국은 열심히 노력해서 수십 년간의 일제 식민통치와 한국전의 잿더미에서 일어난 국가이다. 한국은 ‘한강의 기적’을 일구어 경제성장의 모델이 되었고 하계올림픽과 월드컵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연중 200일 동안 평일 오전이면 매일같이 학생들은 필자가 오전 7시 40분까지 영어를 가르친 엘리트 유치원에 도착했다. 선생님들과 규율반 학생들은 입구 밖에서 기다렸다가 학생들의 머리(길이와 스타일-파마머리나 염색머리는 금지) 그리고 복장(무릎 길이의 스커트 유니폼과 정상적 신발)을 검사했다.

학생들은 그런 다음 계단을 올라 교실로 들어가 바닥에 걸레질을 하고 책상을 문질러 닦으며 유리창을 닦고 휴지통을 비운다. 수업은 오전 8시부터 시작돼 각 교시 사이에 10분간 휴식시간을 둔다. 점심시간은 50분, 저녁시간은 오후 5시부터 1시간이다.

오후 6시 내가 보통 컴퓨터를 끈 다음에도 학생들은 4시간 동안 더 자리

에 앉아 자율학습을 하며 그들이 잠들거나, 잡담을 하거나, 공부 이외에 다른 일을 하지 않도록 교사들이 지킨다. 밤 10시 20분이 돼서야 교실은 텅 빈다. 해방된 아이들은 대기 중인 버스로 달려가 집으로 향한다. (근처에 집이 있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 대다수 학생들은 자정 전에는 잠자리에 들지 못한다. 일류대학에 진학하려면 밤잠을 4시간으로 줄이라는 말이 있다.

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동안 학교, 부모, 국가가 학생들에 기대하는 것과 학생들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려는 애쓰는 것에 경이로움을 금치 못하고 당혹스럽기까지 했다.

가끔 8, 9시쯤 늦게 학교를 떠날 땐 학생들이 공부하고, 책을 읽거나, 일부는 잠을 쫓기 위해 교실 뒤에 서 있는 모습을 봤다. 모두 자신에게 거는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결연한 듯 보였다. 이들의 젊음은 어떻게 되는가? 학교 불빛을 뒤고 하고 언덕을 내려가면서 이런 생각을 하곤 했다.

미국에 돌아와서 고령의 한 교수가 1학년 철학 수업에서 아시아에서 내가 보낸 시간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주었다. 흥분한 나는 학생들이 때론 너무 조용히 자료를 빨아들이는 한국 수업을 생각하면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수집했다.

20명의 대학 1학년생 앞에서 내가 처음 본 것은 거의 모든 책상 앞에 놓인 전자 기기였다. 휴대폰, 랩탑, 아이패드 등.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된 지

몇 분 만에 한 남학생은 책상 아래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다른 학생은 노트북을 타이핑하고 또 다른 학생은 전면으로 휴대폰에 문자를 쓰고 있었다.

나는 “그만해주겠니?”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불편한 모습으로 논의에 관심을 돌렸으나, 몇 분 만에 다시 본래 하던 일로 돌아갔다. 다음 수업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 뒤 나는 교수 집무실에서 한국 학생들을 언급하면서 이곳 학생들의 전반적 태도가 어떤지 물었다.

“은퇴하면 미국대학의 붕괴에 대해 책을 쓸 것이다. 학구열과 열심이 없다”고 그는 털어냈다. (후략)

뉴욕타임스, 2012년 10월 18일자, 뉴햄프셔주 플리머스주립대 조교수 John M. Rodgers

## 경이로운 한국의 기술력

1871년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는 평양 대동강에 정박해 조선 정부를 향해 문호를 개방하라고 연일 무력시위를 벌였다. 조선의 민·관·군은 합심하여 화공(火功)으로 제너럴 셔먼호를 침몰시켰다.

당시 조선의 실권자 대원군은 대동강에 가라앉은 불탄 선체를 인양했다. 서양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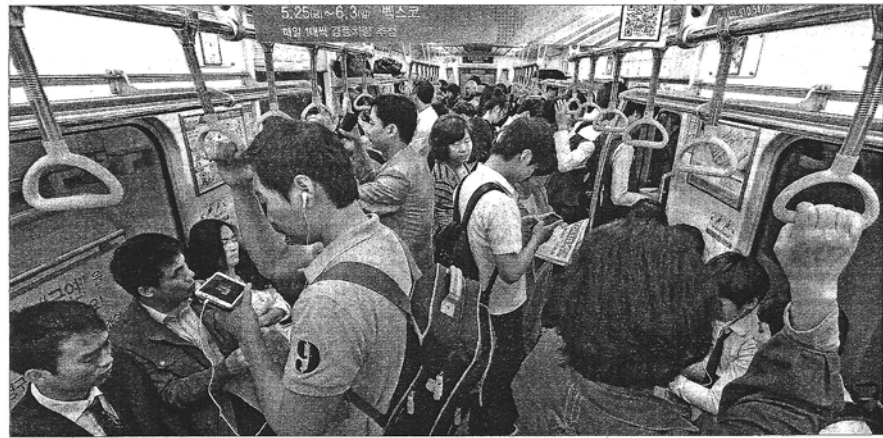
랑캐의 기술이 우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선박을 복원하여 활용하려고 온나라의 대장장이들을 총집합시켰다. 온갖 기술을 동원하여 철판을 붙이고 뿔질을 한 끝에 선박의 원형을 복원시켰다. 많은 백성이 보는 가운데 서강[마포강]에서 진수식을 가졌다. 배는 화끈하게 강 위에 떴으나 이내 그대로 물속으로 가라앉았다.

식민지로 전락돼 해방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이렇다할 기술은 없었다. 한국전쟁 이후 폐기처분된 미제 자동차 엔진에 드럼통을 펴서 덧씌워 1955년 8월에 나온 시발택시가 국산 자동차 1호였다. 산업화 기간에도 한국의 기술은 주로 일본, 미국의 카피판이 대부분이었다. 모방만으로도 개도국의 선두주자였던 게 개발연대의 실상이었다. 수많은 모방을 거듭한 끝에 나뭇대로의 모델을 창조했다. 그 누구도 한국이 일본을 앞서리라곤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삼성전자가 소니, 히타치를 앞선다고 누가 생각했으며 현대기아자동차가 어찌 감히 도요타와 경쟁하리라 생각했는가?

지난 2005년 8월 한국기업들이 만든 TV제품이 세계시장을 평정했다. 매출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가, 판매량에서는 LG전자가 소니, 마쓰시타 등 일본업체들의 아성을 무너뜨리며 사상 최초로 각각 1위에 올랐다. 놀라운 약진에 힘입어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세계 10위권에 첫 진입했다. 애플(20위)이나 소니(29위)보다 높은 순위다. 2010년 9월 18일 영국 인터브랜드와 비즈니스위크지가 공동으로 발표한 ‘글로벌 100대 브랜드(Best Global Brands)’ 조사에서 삼성은 1백75억2천만 달러의 브랜드 가치를 기록, 19위에 올라섰다.

1960~198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건설수준은 도로나 항만, 교량 등을 단순 도급 형태로 수주하는 방식이었다. 1990년대 들어 석유화학 플랜트공사 수주가 점차 증가하고 투자개발형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했다.

»Economía global.



El uso de Internet en el transporte público por parte de los coreanos es masivo, como en este vagón del metro de Busan, la segunda ciudad del país. /SUNGJUN CHO (BLOOMBERG)

# Corea, campo de pruebas del futuro

Tecnología, innovación y calidad impulsan el crecimiento del país asiático

J. P. VELÁZQUEZ-GAZTELU

A la espera de que alguien invente un medio de viajar en el tiempo, una manera de ver qué nos depara el futuro es bajar al metro de Seúl. Conectados a Internet a través de una red Wi-Fi de alta velocidad, millones de viajeros recorren diariamente las estancias de esta inmensa ciudad entreteniéndose con todo tipo de teléfonos inteligentes, tabletas y ordenadores portátiles. Unos ven películas, telenovelas o videoclips de K-Pop, el género musical que arrasa entre los jóvenes de media Asia; otros conectan con sus amigos en redes sociales como Me2Day o Kakao Talk, consultan los resultados de la liga nacional de béisbol o sacan asiento al de media edad—aprovechan para echar una cabezada o leer periódicos de papel, un objeto que en esta parte del mundo más que en ninguna parece una reliquia del pasado.

Corea del Sur es el país más conectado del mundo. Su población ha incorporado las nuevas tecnologías de la información y la comunicación a la vida cotidiana con más naturalidad y entusiasmo que cualquier sociedad occidental. Tener la infraestructura adecuada ayuda: más del 90% de los coreanos disponen ya de cobertura de telefonía móvil 4G, que permite la navegación por Internet a altísima velocidad. Suncheon Kang, alto cargo del Ministerio de la Economía del Conocimiento, explica que a partir de los años noventa el gobierno coreano invirtió mucho dinero en la creación de redes de banda ancha en todo el país. "Los corea-

nos tienen características especiales que ayudan al desarrollo de Internet", sostiene Suncheon, "y tenemos fabricantes muy fuertes de teléfonos móviles y otros dispositivos". Yung Kim, jefe de Estrategia de KT, segunda empresa de telecomunicaciones de Corea del Sur, afirma que el país se ha convertido en una "zona de pruebas" para las nuevas tecnologías. "La rapidez con que los coreanos se adaptan a las tecnologías es impresionante", explicó Yung a un grupo de periodistas invitados por el Gobierno coreano a visitar el país, entre ellos un enviado de EL PAÍS.

Yung opina que el futuro de su compañía y de la economía coreana está en el desarrollo y comercialización de lo que él llama "bienes virtuales", productos de última generación como aplicaciones para dispositivos móviles, libros electrónicos, películas,

juegos y programas informáticos cuyo peso en la economía mundial, según él, superará a finales de este siglo al de bienes manufacturados tradicionales como coches, televisores o electrodomésticos. Se les denomina bienes virtuales porque se almacenan en la nube y se distribuyen por Internet. Yung recuerda que de los

Internet se ha incorporado a la vida cotidiana más que en ningún otro país

7.000 millones de habitantes de la Tierra, solo 2.200 millones tienen acceso a la Red, lo que supone un enorme potencial para hacer negocios, especialmente en Asia, África y América Latina.

Plenamente incorporado al mundo desarrollado—es miembro de la OCDE desde 1996—, Corea del Sur es un país muy similar a España en cuanto a número de habitantes, producto interior bruto y renta per cápita. Pero el dinamismo que se respira en las calles de Seúl contrasta enormemente con el abatimiento que se ha apoderado de los españoles por culpa de la crisis. Corea del Sur se ha recuperado por completo del trauma nacional que supuso la crisis asiática de 1997-1998, cuando fue objeto de un rescate de 60.000 millones de dólares—el mayor de la historia hasta entonces— por parte del Fondo Monetario Internacional (FMI), el Banco Mundial y otros organismos internacionales, que le impusieron estrictas condiciones fiscales y macroeconómicas. Bancos y grandes empresas tuvieron que cerrar, algunas compañías fue-

ron obligadas a reorganizar su producción, y legiones de trabajadores perdieron sus empleos. Hoy la situación es completamente distinta. Tras pagar por completo las deudas contraídas con el rescate, Corea del Sur disfruta prácticamente de pleno empleo y, según las previsiones del FMI, crecerá un 3,5% este año y un 4% en 2013. El país se acerca al equilibrio presupuestario, tiene un bajísimo nivel de deuda pública y cuenta con unas reservas superiores a los 300.000 millones de dólares.

¿Cuáles son los motivos de esta resurrección? Al responder a esta pregunta, los responsables políticos y económicos coreanos mencionan siempre la apertura al exterior de una economía que hasta el estallido de la crisis asiática era tremendamente proteccionista. En 2003, Corea del Sur no contaba con ningún acuerdo de libre comercio; hoy lo tiene con la Unión Europea, EE UU,

los miembros de la Asociación de Naciones del Sudeste Asiático (ASEAN) e incluso con varios países de América Latina, por lo que las empresas coreanas pueden exportar libres de barreras arancelarias a economías que conjuntamente suponen el 60% del PIB mundial. "Queremos ser una plataforma mundial de negocios y de libre comercio", afirma Young Ho Oh, consejero delegado de KOTRA, el organismo encargado de promocionar la inversión extranjera. El Gobierno ha comenzado a negociar acuerdos similares con China y Japón, con la idea de que empresas de todo el mundo se instalen en su territorio para desde allí acceder con facilidad a los grandes mercados asiáticos.

## El poder del K-Pop

Corea del Sur no solo fabrica coches, teléfonos móviles o barcos. También crea contenidos audiovisuales cada vez más demandados en el resto del mundo. El fenómeno, conocido como Olla Coreana (Hallyu, en coreano), es una buena muestra de la creciente influencia y cultura del país. Las telenovelas, las películas y, sobre todo, el K-Pop—el género musical predilecto de los adolescentes coreanos—se consumen con avidez en Japón, Taiwán y, para sorpresa de muchos, China. Pero la ola va extendiéndose rápidamente por el resto del planeta, desde India hasta California.

"No me extraña que tanta gente en todo el mundo se haya subido a la Olla Coreana", dijo el presidente de EE UU, Barak Obama, durante un discurso pronunciado en marzo en la

Universidad de Hankuk, en Seúl, entre vótores de los estudiantes. Se calcula que el año pasado las exportaciones del sector del espectáculo aportaron 3.800 millones de dólares a la economía nacional.

Millones de jóvenes asiáticos descargan diariamente los videoclips de grupos coreanos como Wonder Girls o Super Junior, vistos en Youtube tantas veces como los de Lady Gaga o Coldplay. La comedia romántica *My Sassy Girl*, una de las películas más taquilleras en la historia de Corea, fue un éxito internacional y ha sido adaptada en Japón y EE UU. Los filmes que componen la *Trilogía de la venganza*, de Park Chan-wook, han sido premiados en Europa. Y todo ello en un país en el que, hasta 1992, solo el Estado podía producir películas.

La Olla Coreana ha llegado incluso a España y América Latina gracias a las telenovelas, distribuidas vía Internet. ■

2000년대 들어 제2의 중동건설 붐이 일고 있다. 포스트 오일시대에 대비해 IT, 제조업, 신재생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다. 담수플랜트나 가스전 개발, 원자력, 복합화력발전소 등 민간발전사업(IPP)이나 민관합동개발(PPP)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아랍에미리트 부르즈 칼리파타워,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호텔 등 랜드마크를 차질없이 성공시키면서 한국 건설사들의 높은 기술수준은 호평을 받고 있다.

일단 완성되면 오래도록 지속되는 게 토목건설이 지니는 특징이다. 고대 이집트의 피라미드, 로마의 경기장, 수로교(水路橋), 잉카의 성곽 등은 수천년을 견뎌내며 오랜 기억을 전해주고 있다. 다시 말해 문화를 기억시켜주는 장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불후의 기억으로 남을 토목건설에 한국의 기술이 가세하고 있다. 아예 도시 전체를 한국형으로 짓는 사례까지 늘고 있다. 2012년 5월 30일 한국건설사에 획기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이날 이라크 총리 공관에서 말리키(Nouri Kamil Al-Maliki) 이라크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의 본계약이 체결됐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동남쪽으로 10km 떨어진 비스마야 지역에 도로와 상·하수관로를 포함한 신도시 조성공사와 10만 호 국민주택 건설공사로, 총 80억 달러 규모의 한국기업이 수주한 단일공사로는 사상 최대다. 설계·조달·시공을 한 회사가 모두 진행하는 디자인 빌드(Design Build) 방식으로 공사기간은 7년이다. 공사를 맡은 한화건설은 하루 평균 2만1천 명을 투입해 도로, 상하수도, 주거단지 등을 건설하게 된다.

지난 2009년 12월 27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자력발전사업 프로젝트에 한전 컨소시엄이 프랑스(Areva)와 미국(GE)-일본(Hitachi) 컨소시엄과 경합 끝에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중동에서 처음으로 착수되는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으로, 1천4백 MW급



신형경수로 APR1400 원전 4기를 설계·구매·시공하고, 준공 후의 운영지원, 연료공급을 포함하는 초대형 원전 프로젝트로서 총 계약금액이 약 2백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 최초 1호기를 2017년 5월 1일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한전은 준공 이후에도 60년의 원전수명 기간 UAE 원전운영사의 발전소 운전, 주요기기 교체 등 운영지원에 참여함으로써 약 2백억 달러의 추가적인 재원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UAE 원전수주로 원자력발전을 시작한 지 30년 만에 미국·프랑스·러시아·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 원전수출국으로 도약함으로써 국가위상을 크게 드높이게 되었으며, 소비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에너지 수입국에서 산유국에 버금가는 에너지 수출국으로 입지를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최근 '중소형 원전 스마트(System-integrated Modular Advanced Reactor, SMART)'가 우리나라에서 개발됐다. 1994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주도하여 한국전력, 두산중공업 등 15개 기관이 공동개발했다. 스마트는 하나의 압력용기에 원자로의 주요 설비인 증기발생기, 가압기, 냉각재펌프 등을 내장하여 안전성을 현저하게 높인 일체형 원자로다. 스마트가 기존 원전과 가장 다른 것이 일체형이라는 점이다. 일체형 원자로는 주요 기기를 연결하는 대형 배관의 파괴 또는 단절에 따른 사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함으로써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다.

스마트는 기후변화, 화석연료 가격 폭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열병합발전, 해수담수화 열원 공급, 지역난방 등을 위한 대안으로서 중소형 원자로 개발이 모색되는 과정에서 개발됐다. 건설비용도 7천억~1조 원으로 기존의 대형원전 건설비용 3조~4조 원에 비해 적은 편이다. 만성적인 물 부족에 담수화플랜트가 절실한 중동지역 국가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 🌀 한국, 미래 실험의 장

기술·혁신·품질이 한국의 성장을 이끈다. 누군가가 타임머신을 발명하길 기다리는 와중에,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서울의 지하철이다. 수백만의 승객들이 다양한 종류의 스마트폰, 태블릿 및 노트북으로 고속 와이파이망을 통해 인터넷을 사용하며 매일 이 거대한 도시의 내부를 여행한다.

어떤 이는 영화, 드라마 혹은 아시아 절반의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음악 장르인 K-Pop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또 다른 이는 미투데이나 카카오톡과 같은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프로야구 경기를 보거나 남은 업무를 계속하기도 한다. 나이가 많은 몇몇 사람들만 잠을 자거나, 이 나라에서 유독 과거의 유물처럼 보이는 종이신문을 읽는다.

한국은 세계에서 무선망이 가장 잘 구축된 나라이다. 국민들은 어느 서구 사회보다 더 열광적으로, 그리고 더 자연스럽게 새로운 정보기술과 통신을 그들의 삶에 받아들였다. 적절히 구축된 인프라 덕분에 90% 이상의 국민이 초고속 인터넷 사용을 가능하게 해주는 이동통신 4G망을 사용할 수 있다. (중략)

1996년 OECD에 가입한 회원국으로서 이제는 완전히 선진국에 편입된

한국은 인구 규모, 1인당 GDP 및 소득 측면에 있어서 스페인과 매우 유사한 나라다. 그러나 서울의 거리에서 발산되는 활력은 경제위기에 닥친 스페인의 낙담한 분위기와 매우 대조된다.

한국은 1997~1998년 아시아에 경제위기가 닥쳤을 때 엄격한 재정조건과 거시경제 부문의 조건을 부과한 IMF와 세계은행 등의 국제기구에 의해 그 당시 역사상 최대 규모인 6백억 달러의 금융 구제를 받았고, 그때의 국가적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었다. 많은 은행과 대기업이 문을 닫아야 했고, 일부 기업들은 생산체계를 재편성하도록 강요당해 엄청난 수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오늘날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구제받은 모든 부채를 갚은 후 한국은 사실상 완전고용을 자랑하며, IMF의 예측에 의하면 한국은 올해 3.5%, 2013년에 4% 성장을 이룰 것이라 전망된다. 균형 재정에 가까운 한국의 공공부채는 (국제준비금으로) 낮은 수준이며, 외환보유고가 3천억 달러 이상이다.

이 부활의 원인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해 정치, 경제 지도자들은 항상 아시아 위기 발발 이전까지 고수했던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체제에서 경제개방 체제로의 전환을 언급한다. 2003년까지 한국은 어떠한 나라와도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하지 않았지만 오늘날 유럽연합, 미국, 아세안 회원국들, 그리고 일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으

며, 따라서 한국기업들은 관세장벽 없이 전 세계 GDP의 60%를 차지하는 무역 거래에 편승하게 되었다.

“우리는 비즈니스와 자유무역의 글로벌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싶다”라고 외국인 투자촉진을 담당하는 기관인 KOTRA의 오영호 사장은 말한다. 한국정부는 전 세계의 기업들이 한국에 그들의 지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거대한 아시아 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자 중국, 일본과도 FTA 협상을 시작했다.

한국은 그들의 거대한 이웃인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과의 가격경쟁에서는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생존의 수단으로서 기술혁신, 품질, 그리고 지식을 선택했다. 따라서 스페인이 GDP의 1.35%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는데 비해 한국은 GDP의 3.74%를 투자하고 있으며, 교육제도 강화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

한국 당국은 투자지역으로서의 매력을 어필하기 위한 거대한 저장소를 가지고 있다. 한국 노동자들은 교육, 기강 및 직업에의 헌신에 있어서 매우 경쟁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전혀 다른 언어를 습득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의 방안으로 영어를 제2외국어로 채택했다.

특히 삼성·현대·LG와 같은 기업들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제품들을 제조하고 있다. 한국은 태블릿, 휴대폰, 액정 디스플레이(LCD) 및 선박의 최대 생산국이며, 반도체 제조 3위, 자동차 제조에서는

# K-Pop에서 K-Culture로

5위를 차지하는 국가이다.

높은 인구 밀도를 가진 반도 국가, 그리고 고도로 산업화된 국가로서 한국이 녹색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한국의 청정에너지 분야는 스페인에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지방 당국은 보고 있다. (후략)

스페인 El Pais지, 2012년 6월 24일자 비즈니스 섹션



## 문화전쟁의 시대

● 식민지, 전쟁이 남겨놓은 빈곤의 유산을 청산하고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함께 이뤄냈다. 단기간에 이뤄진 세계 유일의 기적이라고 하지만 적잖은 시행착오와 부작용도 겪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해냈다. 골드만삭스의 자산운영부문 회장이며 BRICs라는 유행어를 만든 짐 오닐(Jim O'Neil)은 2010년 11월 방한 때 “이 국가가 왜 신흥국인가?”라고 반문하면서 한국이나 인도네시아를, 중국이나 인도와 함께 신흥국으로부터 분리시키는 투자전략을 세우는 중이라고 밝혔다.

독일의 유력 주간지 Die Zeit의 경제부 선임기자 크리스티안 텐브록(Christian Tenbrock)은 2012년 6월 28일자 경제면에서 6·29선언 이후 25년 동안 한국은 세계 역사상 그 유례 없는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실현에 성공한 희귀한 케이스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제 한국은 과거 개발시대와 달리 사회적책임적(sozial)이면서, 창의적(kreativ)인 국가로 발돋움 중이라고 분석했다.

과거 세계의 이웃들을 대상으로 단편적인 전통 문화예술 전시회, 공연 등 행사에 집중하여 한국문화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호소하던 단계를 훌쩍 뛰어넘어 이제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한국문화에 대한 호감도와 인지도가 현저히 높아지고 있다.

K-Pop, K-Drama 등 대중예술로 상징되는 한류를 뛰어넘어 순수예술, 의식주, 사회 운영 시스템 등 한국문화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국산 가전제품, 자동차, 식품에서부터 조선, 한국형 도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망라한다. 뿐만인가.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이나 경제위기 극복, 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세계 각국에서 찾아오는 발길이 줄을 잇는다.

우리나라는 지구촌이 안고 있는 경제·환경·안보 문제 등을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를 비롯, 서울G20정상회의, 핵안보정상회의,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등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세계에 보여준 계기였다.

특히 GGGI 구상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의제화한 데다 뜻이 다른 나라들의 재정지원을 받아 국제기구를 만들어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가 2012년 10월 23일 국제기구로 전환됨으로써 한국은 명실상부한 녹색성장의 중심국가로 자리잡았다. 이미 만들어진 녹색성장기술센터(GTC)와 함께 지식·기술·자금의 3요소 간 협력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다.

서구에서도 외면해 왔던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아젠다를 제시해 주도권을 잡은 셈이다. 정부는 유엔, G20, APEC은 물론 양자회의에서도 녹색성장의 시급성을 끊임없이 설득했다. 그 결과 녹색성장의 국제 거점국가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커졌으며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기후변화라는 도전에도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이제 우리나라는 외국으로 ‘나아가는 세계화’(outbound globalization)의 단계를 지나 한국으로 ‘들어오는 세계화’(inbound globalization) 단계를 맞고 있다. 이는 반만년 역사상 처음 맞는 도전이며 기회다. 더 이상 한국은 지난날 서방 선진국들을 따라다니며 성장의 결실을 얻어먹는 주변국가가 아니다.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딛고 함께 성장을 모색하는 글로벌 국가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를 요구받고 있다.

이른바 선진국, 강대국들은 자국의 문화를 다른 나라에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치·군사적 패권경쟁에서 ‘문화전쟁’으로 모습이 바뀌었을 뿐이다. 소프트 파워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대중외교(Public Diplomacy 공공외교로도 번역됨)란 이름을 빌려 국

가이미지, 국가브랜드를 높이려고 다양한 전략을 구사한다. 이러한 노력들은 결국 국익과 직결된다고 믿는다. 국가, 문화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는 것은 친밀도, 호감도와 연결되고 경제·정치의 영향력 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미국의 한 지식인은 동서냉전 체제가 무너진 이후 미국정부가 문화소통의 중요성을 경시한 교훈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소련이 붕괴되고 공산권이 개방된 현재 사회 모든 계층의 시민들에게 민주주의의 가치와 사상을 일깨워야 할 필요성은 과거 어느때보다 급증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미국은 도서관과 미국문화원(American Houses)의 운영을 중단했으며 세계 각국에서 근무하는 공공외교 및 문화외교 관련 공무원의 수를 엄청나게 축소하거나 어떤 공관은 통째로 없애 버렸다.

또한 정보화시대에 적응한다는 명목으로 도서관을 ‘정보화 지원센터(Information Resources Centers)’라는 명칭으로 바꾸고 도서관에 책 대신에 비치된 인터넷이 전 세계에 포진해 있는 미국 대사관에 비치되었던 수천 권의 책을 완벽하게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조지타운 대학의 조교수이며 아랍학 전문가인 사메르 세하타(Samer Shehata)는 미국 대사관과 문화원 폐쇄에 대해 통탄하면서 ‘내가 제퍼슨과 링컨을 알게 된 것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미국문화원(American Cultural Center)에서였다’고 회상하였다.” 『신공공외교-국제관계와 소프트파워』 국제교류재단, 262-263쪽

이와같이 요즘 마르고 닳도록 강조되고 있는 ‘소프트파워’, ‘스마트파워’의 중요성은 소통의 중요성을 간과한 반성에서 출발한 것임을 알 수 있다.

## 문화발신국 ‘코리아’

우리가 체감할 새도 없이 디지털로드를 따라 K-Culture는 세계 곳곳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와 같은 시간에 지구 반대편에서 K-Pop에 열광하며 한국드라마를 꼼꼼하게 시청한다. 인터넷, SNS 등 뉴미디어를 통해 정보는 신속하게 공유되며 연쇄반응을 방불케 하듯 확산된다.

한국문화에 대한 열정의 강도는 오히려 발신지 한국을 앞지르며 한국인보다도 한국문화에 밝은 매니아층이 양산되고 있다. 한국문화가 활발하게 유통되는 현상들이 놀라우며 당황스러울 지경이다. 영향력의 범위가 지극히 제한적이었던 실크로드 시대에서 무제한으로 확장된 디지털 시대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 것이다.

종종 한류현상을 일시적이며 조만간 소멸할 것이라고 폄하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문화개방을 하면 우리의 문화기반은 무너지고 퇴폐, 타락이 난무한다고 불안에 떨던 시기도 있었다. 한류가 주류문화에 진입하지 못한 B급 문화라는 자조적 시각도 상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이 훌쩍 지난 오늘날에도 한류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거대한 바위가 언덕에서 구르는 모습을 연상케 한다. 그 기세를 멈추게 할 힘은 없어 보인다.

오히려 바깥에서 한국문화를 부러워하며 감동하고 있다. 홍콩의 유명 요리사 잔자오 조(詹兆州)는 홍콩 유력지 신보(新報)에 ‘한국, 전통과 함께하는 성장’이란 제목의 칼럼(2012년 8월 4일자)을 기고했다.

“한국은 이제 홍콩 사람들의 생활에서 뗄 수 없는 국가가 되었다. 홍콩 전역

을 뜨겁게 달군 드라마 「대장금」과 맛있는 한국음식, 한국의 의류, 주머니 속의 한국 휴대폰, 각 가정마다 놓인 컴퓨터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이제 홍콩 사람들의 생활 저변에 자리잡고 있다.

한국의 삼성이나 LG, 롯데 같은 기업들은 한국인들이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한국인들은 휴대폰에서 자동차, 아파트까지도 한국기업의 것을 애용한다. 이러한 모습은 홍콩의 큰 기업들이 홍콩의 대중들에게 꽤 권적이고 무자비한 이미지로 자리잡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거리의 한국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민족성을 느낄 수 있다. 나이가 적고 많음을 떠나서 그들의 모습은 한결같다. 한국의 아줌마, 아가씨 심지어 학생들까지도 헤어스타일이며 화장 그리고 행동하는 모습들까지 한국드라마에서 나오는 최신 유행 그대로였다. 이렇게 최신 유행을 따르는 한국사람들은 변함없이 예의 범절을 지키면서 웃어른을 존경한다. 사람들끼리 마주치면 모두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웃어른 앞에서 아랫사람이 담배를 피우거나 큰소리를 내는 법이 없다.

한국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존중의 전통과 순응의 민족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필자는 홍콩의 젊은이들에 대한 반감이 들었다. 어째서 홍콩의 젊은이들은 이와 반대로 웃어른에게는 최신유행을 따른답시고 버릇없이 굴고 홍콩의 부모들은 아이들의 버릇없는 행동을 두고 활발하다고 치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한국인들의 음식 습관에서도 유행을 따르면서 전통을 지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한국인들에게 커피는 이제 기호식품으로 자리잡아 호텔, 공항, 음식점, 상점을 막론하고 어디서든 커피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에도 한국인들은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 김치나 다른 전통음식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다.

발전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전통에 소홀하기 쉬운데 한국사람들은 이렇게 과학기술과 사회가 발전하면서도 전통을 유지·발전시키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우리의 전통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되물어 볼 필요가 있다.”

외부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모습은 전통과 현대, 외래문화와 전통문화가 조화된 부러움의 대상 그 자체다. 지난 반세기 이상 무차별적으로 밀려오는 서구 팝음악의 홍수 속에서 K-Pop을 창조했다. 할리우드 영화가 세계 곳곳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가운데서도 관객 1천만을 웃도는 국산 영화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잘 만들어진 한국영화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의 영화팬들을 감동케 하며, 권위있는 영화제에서 속속 수상작들을 내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개신교 인구가 1천만 명을 웃돌며 가장 많지만 불교 등 전통 종교와 충돌하지 않으며 조화롭게 공존한다. 서구에서 유래한 크리스마스도 설날, 추석과 함께 유쾌한 국민명절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한동안 억압과 빈곤이란 도전에 맞서 ‘잘사는 나라’가 지상목표였다. 매력과 품격을 갖춘 문화국가라는 이상이였다. 문화국가로 인정받으리라곤 기대조차 못했다. 우리도 모르는 새에 다양한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융복합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

최근 호주정부 백서의 제목은 『아시아 세기의 호주Australia in the Asian Century』다. 파이낸셜타임즈, 로이터, 블룸버그 등 해외언론은 이를 아시아의 부상을 인정하고 적극 협력



하려는 의지가 담겼다고 풀이했다. 얼마 전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는 '팍스 퍼시피카(Pax Pacifica)'를 언급했다. 미국의 클린턴 국무장관이 해마다 한국의 추석을 맞아 'Happy Chuseok'이라고 축전을 보내고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논어 등 중국 고전을 인용해 공감을 얻으려는 것도 아시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할 수 있다. 동시에 아시아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만큼 '위상에 걸맞은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아시아의 중요성은 더 이상 외교적인 수사가 아니다.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환경·안보 문제에서 아시아의 참여 없이는 해결의 단초조차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의 이웃들이 찾아와 우리의 장점을 배우는 현실에 걸맞은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다시 말해 문화발신국으로서 정체성을 인식하고 글로벌 시민의식을 갖춰야 하는 시대적 소명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

## 경제·산업적 접근을 넘어

한류를 비롯한 한국문화의 확산이 코리아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국가이미지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한국어, 한국음식에 대한 관심의 급증은 일상사가 됐으며 관광, 한국산 제품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고 한국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문화를 경제·산업적 측면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단견이며 위험한 발상이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등 종교철학 등의 정신적·문화적 가치들이 물리력을 동반하지 않았어도 인류역사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만 봐도 '문화력'은 단

순히 경제논리로 타산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멀리는 삼국 시대, 가까이 고려 시대에 들어온 유교의 가치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것을 봐도 '문화력'은 정치력·군사력으로 표상되는 '하드파워'를 압도한다.

따라서 한국문화의 세계 확산을 성찰함으로써 철학적 의미를 찾고 미래를 조망하는 자세가 요망된다. 문화로써 세계 이웃들의 감성을 위로하고, 발전경험의 공유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고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다면 세계에 기여하는 한국의 역할은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소통하며 함께 번영을 모색해야 우리의 생존과 번영이 담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한류의 성과에 일희일비할 수 없으며 한국문화가 갖고 있는 '보편성'을 극대화하는 게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다.

아무리 선의로 출발하고, 취지가 좋았어도 긍정적 평가가 꼭 따르는 것은 아니다. 1980년대 개혁개방을 하기 훨씬 이전부터 중국은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 막대한 원조를 제공했다. 대표적인 예가 아프리카 동부의 탄자니아와 잠비아를 연결하는 총연장 1천8백60.5km의 '탄자니아-잠비아 철도(Tanzania-Zambia Railway)'다. 줄여 '타자라(TAZARA)'로 불린다.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벌인 최대의 인프라 사업으로 2억 달러의 무이자 차관을 제공했다. 탄자니아의 항구도시 다르에스살람에서 잠비아의 중부도시 카리피 음포시를 잇는 이 철도는 1970년 10월 개통됐다.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막대한 양의 구리를 수송하는 데 활용됐다. 구소련이 20세기의 피라미드로 불리는 아스완댐 건설에 3억2천만 달러를 제공한 것에 비견될 정도였다. 중국인 전문가·기술자·노동자들에게서 현지인이 기술을 완전히 전수받고 현지인과 똑같은 수준의 생활과 대우를 하는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게다가 중국정부는 지난 2011년 1월 차관의 50%를 면제해줬다. 오늘날

중국의 자원, 원자재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한 세대 넘게 공을 들인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이를 경계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유념해볼 대목이다.

2012년 10월 16일 테헤란 아자디 스타디움에서 열린 월드컵축구 최종예선전. 한국팀은 이란에 0대1로 패했다. 패배의 아쉬움은 경기 후 감동으로 바뀌었다. 응원 나온 현지 교민과 주재원 2백여 명이 관중석에 널려 있는 쓰레기를 치우는 장면이 눈에 띄었고 이란 언론, 현지의 SNS를 뜨겁게 달구었다.

현지 네티즌들은 인터넷매체 타브낙뉴스(www.tabnak.ir/fa/news/279332)에 게재된 화제의 사진과 SNS 코멘트를 소개했다. 타브낙뉴스는 “한국 관중의 ‘당연한’ 공중도덕은 이란 사회 내에서 일파만파의 문화적 충격으로 다가가고 있다”며 ‘아자디 경기장에서 한국 관중들의 재미있는 행동(Interesting Action by Korean Spectators at Azadi)’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다. 인상적인 소셜 댓글들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우리는 스스로 부끄러워 해야 한다. 이들 현명한 민족(한국인)들은 귀감이 되어야 한다. (익명)
- 위대한 페르시아 문명을 주장하는 우리 이란인들은 이들 한국인들로부터 배워야 한다. (익명)
- 이 사진은 이란 내 모든 경기장, 거리, 공원의 게시판에 올려야 한다. (익명)
- 이러한 공중질서를 바로 풍부한 문화(rich culture)라고 부르는 것이다. (Hossein Ghodossi)
- 나는 정말 부끄럽다. 그날 밤 난 경기장에 있었고, 내 발 밑에는 쓰레기가 가득차 있었다. (Arma)



이란과의 축구 경기에 지고도 경기가 끝난 후 자리를 치우는 한국인 관중의 모습을 담은 사진 한 장이 이란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사진 타브낙뉴스)

- 내가 이 사진을 봤을 때, 진정한 승자는 이란인이 아닌 한국인이라고 생각했다. (익명)
- 정말로, 그들은 한국 TV 드라마에 나오는 멋진 한국인과 같이 행동했다. (Mehdi)
- 진정한 승자는 한국인이다. 그들은 경기 후 서로 격려하면서, 이란 관중들에게도 인사를 하였다. 이것이야말로 문화와 기품이라고 하는 것이다. (Hossein)

이웃을 감동케 하고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막대한 인적·물적 투자가 전제되는 대형 이벤트나 국제행사만이 아니다. 일상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얼마전 한 개인이 유튜브에 올린 이슬람 폄하 영화가 끼친 후유증은 심각했다. 미국의 재외공관이 잇따라 공격당하고 적잖은 인명손실까지 초래했다. 부정적 매체가 유튜브 등 SNS를 타고 손을 쓸 새도 없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한국문화가 확산될수록 겸손하고 배려해야 한다. 코리아 콘텐츠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소비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남의 일은 없다. 애정은 언제든지 미움으로 변할 수 있다.

혹시 눈에 보이는, 단기간의 성과에 집착하는 것은 아닌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 우리가 날마다 목도하는 한국문화의 확산, 한국인들의 활약은 자부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지나친 자만은 상대방을 자극하고 경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디지털로드를 통한 K-Culture의 세계 확산은 우리에게 절호의 기회다. 전략적 사고와 신중한 자세가 요구된다.



한류 :  
K-Pop에서 K-Culture로

발행처 |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발행인 | 우진영  
편 집 | 해외문화홍보원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  
집 필 | 위택환(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  
발행일 | 2012. 12. 17

해외문화홍보콘텐츠과  
TEL 02-3981-912, 915  
www.kocis.go.kr www.korea.net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